

디자인 충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전문저널

디자인 충남

vol.12 June. 2021

cpdc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전문저널
vol.12 June. 2021

발행
2021년 6월 30일

발행인
윤 황

발행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041-840-1123
www.cpdcre.kr

기획
박혜은

디자인 및 편집
오병찬 · 강경연 · 이혜수

주관부서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제작 · 인쇄
삼성애드피아

CONTENTS

Issue

002 ESG 공공디자인이 온다 홍익대학교_이현성 교수

Level up

012 공공건축 사업계획 (주)라움플랜건축사사무소_김영종 대표
사전검토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

Review

026 모두를 위한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인천카톨릭대학교_신은주 교수
038 時·空間의 인식을 지원하는 한남대학교_오미현 교수
고령자 유니버설디자인

Team 태안군

052 태안군 「공동주택 디자인 지원」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의 질 개선
충청남도 태안군청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_김수열 주무관

Focus on 센터소식

058 2020년도 정책연구 성과
060 2021년도 정책연구 소개
061 2014~2020 연구성과
062 센터소식

국내 정책동향

066 중앙부처
076 광역지방자치단체
105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ESG 공공디자인이 온다¹⁾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전공_이현성 교수

공공가치 향상을 위한 민간 기업 E.S.G 연계 공공디자인의 출현

“공공기관만이 주체가 되는 공공디자인은 이제 영역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공공영역의 공공가치 향상은 주체에 관한 분류가 아닌 실행에 따른 다양한 주체의 거버넌스로 이루어져야 한다.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을 넘어 하나의 중요한 평가 및 투자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공헌활동과 분명히 구별된다. CSR이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ESG는 ‘필수’다. 공공가치에 대한 민간투자가 진행될 지금, 공공디자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공공디자인의 공공화 필요

‘산업디자인으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디자인’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1908년 한국 의장령이 공포되고 광복 직후 대학에 도안과가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7년 12월 31일 ‘디자인·포장진흥법(현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디자인 정책이 실

현되었다. 이 법으로 디자인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해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그 유형을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으로 분류하였다(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이러한 성격을 지닌 산업디자인은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예쁜’ 디자인이 소비자를 자극하면서 우리 삶에 가까이 있게 되었다. 이처럼 광복 이후 근대화가 이뤄지는 동안 사람들에게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의 개념으로 인식된 것이 사실이다.

‘예쁜’ 디자인에서 ‘필요’한 디자인으로

산업디자인이 태동한 지 40년이 흐른 2016년 8월 4일,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세상에 나타났다.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는 디자인에 더해 안전, 편리, 배려의 가치를 최적화하는 디자인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디자인은 양쪽 날개를 갖춘 선진형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사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디자인’으로 자주 불린다. 환경디자인, 건축디자인, 시각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 디자인은 접미어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이 출현했을 당시만 해도 하나의 분류된 유형이 나왔을 것이라고 예단한 부분이 많았다. 어쩌면 출발은 그랬는지 모른다. 그냥 하나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형태적 디자인..... 하지만 실은 무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삶에 딱 ‘필요’한 디자인의 출현이었다. 게다가 세계 최초로 법적 용어를 만들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비교
출처: 저자 작성

1) 본 원고는 2021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공공디자인 기획전’ ESG 공공디자인 소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Public Design

세계 최초로 공공디자인을 법제화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디자인 수립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의 비전 및 주요 추진 전략]

▲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통한 공공디자인의 정책 구현
출처: 저자 작성

‘그들만의 리그, 공공디자인’

디자인의 산업적 기여가 활발하던 1996년 한국경제신문 커버스토리 제10호 「총체적 부실 디자이너」 양산 시스템』이라는 기사를 보면, ‘최근의 사회적 수요나 추세를 보았을 때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만큼 디자인 전공을 공대 쪽에 두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기고 글이 실린 적이 있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수요나 정신이 경제적 가치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떤 시대적 수요가 있을까? 영국 모 대학의 도시디자인 전공이 인문사회대학에 개설된 것처럼, 공공디자인은 인문학과 행정에 많은 연관성을 두고 있는 인본주의 관점, 즉 사람 중심의 디자인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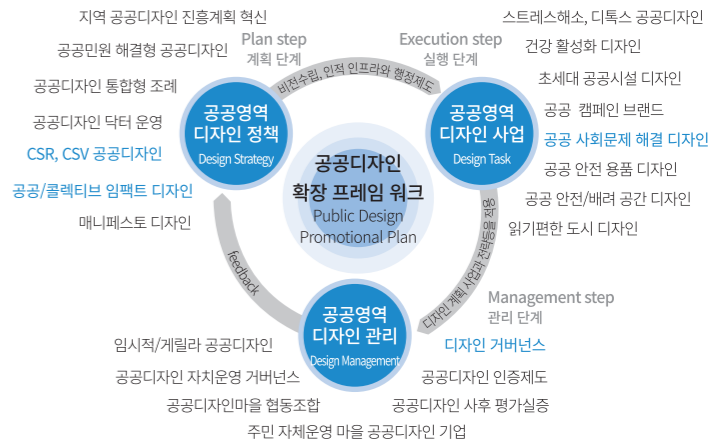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생기기 전인 2006년 전문가들의 ‘포럼’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 전문가가 무리 안에는 디자인 전문가도 있었지만, 행정가, 정치가, 정책가 등의 전문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공공디자인이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적 영역의 관계자들은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이 공공기관의 예산과 조례를 통해 이루어져 온 데다, 더욱이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제정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의 법정계획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공공디자인은 점점 전문화되면서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대상이 되어갔다.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공’ 디자인이지만, 공공에게는 어려운 공공디자인이 되어갔다.

2. 공공디자인 대중화의 서막

‘The 공공디자인과 & A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진흥법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이 수행 주체가 되는 디자인 영역이다. 따라서 공공디자인 법규, 제도, 정책 중심의 논의와 실행이 이루어졌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서 공공디자인 확장



▲ 다양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공디자인의 확장
출처: 저자 작성

는데, 어쩌면 이러한 경향이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디자인이지만 어렵게 느껴진 구조가 된 원인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을 법제 기반의 고유명사 같은 ‘행정 기반의 공공디자인’과 실행 기반의 일반명사 같은 ‘민간 기반의 공공디자인’으로 이분화해서 이해를 쉽게 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또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통해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혹은 광역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을 안전, 편리, 배려라는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민간 영역에서 실행 중인 공공디자인을 지금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등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주민들이 협력하여 임시적인 안전시설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또한 통닭 판매 프랜차이즈 업체가 자사의 통닭을 먹기 위해 한강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깎판을 사용하는 것을 줄이려고 친환경 착한 돛자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동차 회사에서 시각장애 아이들이 운전하면서 놀 수 있는 무장애 놀이터를 만든 것 모두 그 예이다.

▼ 민간 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출처 : 청량초등학교-체인지위커



출처 : 노랑통닭



출처 : 현대자동차

‘사회공헌활동과 공공디자인’

「기업주도형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ESG 평가에 관한 연구(김지연, 2021)」에 따르면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민간기업의 공공성 사업은 공공디자인 참여 및 협력 주체의 확장, 그리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 ‘기업 시민의식’의 증가에 따라 최근 확대되는 추세이다. 물론 몇몇 기업을 빼고는 아직 공공디자인이라는 공식 사업명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공영역에서 안전, 편리, 배려, 환경과 같은 공공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행 관리 주체만 다를 뿐, 분명 공공디자인이다.

(사)사회공헌센터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총규모는 약 1조 7,950억 원이다. 이는 기업당 평균 310억 원을 지출한 셈이다. 물론 현금과 봉사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많은 용품과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100대 기업은 평균 7.9년간 사회공헌을 지속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한 기업이 전체의 29%로 나타났다. 또한 약 28%는 사회공헌활동이 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 소통 등은 공공디자인 요인과 밀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민간의 사회공헌활동이 공공디자인으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CSR-CSV-ESG’

기업의 초과 수익을 재분배하는 수동적이며 의무에 가까운 개념으로서의 사회공헌(CSR)은 기업의 본질에 충실하되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 공유가치 창출(CSV)로 발전되어 왔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기업 사회책임의 형태인 CSR과 CSV는 사회적으로 공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핵심은 같다. 그러나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일종의 시혜적 활동인 CSR과 비교했을 때, CSV는 기업이 장기적 관점의 투자로 보고 접근한다거나 혹은 그 결과가 기업에도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가치 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행한다는 것을 등 상대적으로 주체성이 강화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UN에서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란 용어를 2006년 UN PRI(책임투자원칙)를 통해 알리기 시작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관투자자는 기업 투자 대상 선정 시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흐름 속에서 CSR, CSV에 이은 ESG, 즉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가치적 성과 실현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 공공 민간 영역에서의 공공가치 향상 전략으로서 공공디자인 확장
출처: 저자 작성

3. E.S.G의 실행전략으로서 공공디자인

E : environment by Public Design

사실 공공디자인 정책 중 가장 미흡한 부분이 환경 부분이다. 공공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담고 있는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19개 세부과제에도 친환경 관련 내용은 부족하다. 또한 협력과 연계를 강조하는 공공디자인 정책에서 K-뉴딜이나 K-SDGs와의 시너지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민간 영역, 특히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친환경적인 공공가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공공영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이는 공공디자인이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된다.

환경적 공공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지식, 노하우, 프로세스, 방법론 및 장비 제작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공공가치를 창출한다. 현재 공공영역에서는 바이오필릭과 같은 환경심리행태 관점에서 그린디자인을 추구하거나, 미세먼지 이슈 등의 주제를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사업화하여 진행 중이다. 이러한 환경적 관점은 ESG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범위도 넓다. 기업의 친환경적 개선 투자가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이루어져야, 공공디자인이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공공영역에 실현하는 전략과 수단으로서 역할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 실현성과 파급력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S : society by Public Design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10조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칙을 보면 제일 먼저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이다. 다양한 공공시설물, 매체 인프라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공공디자인의 가장 궁극적이면서도 중요한 가치이다. 더욱이 올해 3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가치와 관련된 ESG 공시 항목에 ‘안전 · 환경, 사회공헌’을 신설 확대한 것은 이제 ESG가 기업의 투자 기준만이 아닌 공공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문화화 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에도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에 대한 세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모든 이를 배려하고, 안전을 지켜주고, 편리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디자인의 개념도 정리되어 있다. 사회를 위한 ESG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안전과 편의, 배려 등의 공공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캠페인, 공공 굿즈, 선한 영향력을 공동체와 나누는 공공활동 프로그램, 노약자 및 고령인구를 배려하는 고령 친화 놀이터, 안전마을 만들기 등 기존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 실현 가능하다.

G : governance by Public Design

공공디자인 진흥법에는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적 공공디자인 구현,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공공디자인의 정체성이 협력과 연계라는 ‘협치’를 기본 방법론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거버넌스는 협치라는 거시적 의미에서 계속 진화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양식을 포함하는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 개념까지 발전해왔다. 즉, 공공디자인에서 말하는 거버넌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공공디자인이 사회 문제 해결과 공공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이뤄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유형적 디자인보다는 과정적이고 가치 중심의 방법론적 디자인을 위한 거버넌스의 개념이 실행 전략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민간기업의 CSR을 기반으로 한 공공환경의 개선, 안전마을 사업, 무장애 놀이터, 건강증진 공간 마련, 전통시장 개선,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공간 사업 투자는 현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으로 체계적이고 협력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로 기획 실행해야 한다. 이는 기업관점에서는 실질적인 ESG 실현, 국민 입장에서는 편의, 배려 등 공공 서비스 혜택,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4. 공공문화로서의 ESG 공공디자인

‘ESG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 공공가치 향상을 위한 민간 기업 E.S.G 연계 공공디자인 적용
- ESG의 실행을 위해 공공영역에 기획, 적용, 운영 수단으로서의 공공 디자인의 전략화
-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민간 ESG 참여 전략 필요
- ESG의 실행 및 관리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공공디자인 연계
- 공공영역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ESG 거버넌스 모델 필요
- 공공기관만이 주체가 되는 공공디자인이 아닌 민간주체와 함께 하는 공공디자인의 가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전략은 ESG 관점에서 혁신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해결이 필요한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다양한 민간 및 공공 주체 간 협력을 통해 많은 기업이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ESG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공공영역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에 CSR-CSV-ESG로 이어지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협력 대안 중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공공가치 추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지닌 공공디자인과의 만남으로 더욱 큰 힘을 낼 것으로 보인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많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ESG 공공디자인 모델이 핵심 전략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법과 제도 중심의 어려운 공공디자인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공공’의 공공문화로서의 ESG 공공디자인이 온다.



▲ 서울 강남구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ESG 사업의 적용(안)
출처: 저자 작성

LEVEL UP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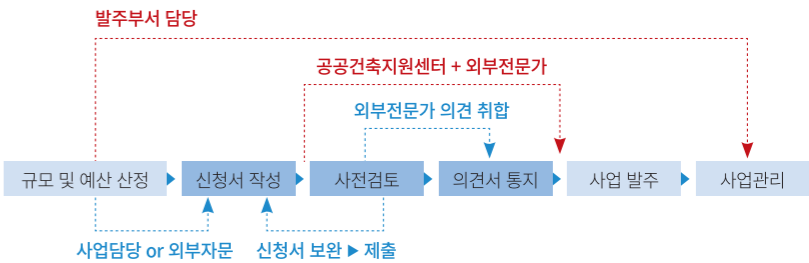
(주)라움플랜건축사사무소_김영중 대표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배경 및 효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는 그동안 공공건축사업의 관습화 된 기획업무 환경에서의 행정편의 중심, 지자체 성과 중심의 업무로 인한 문제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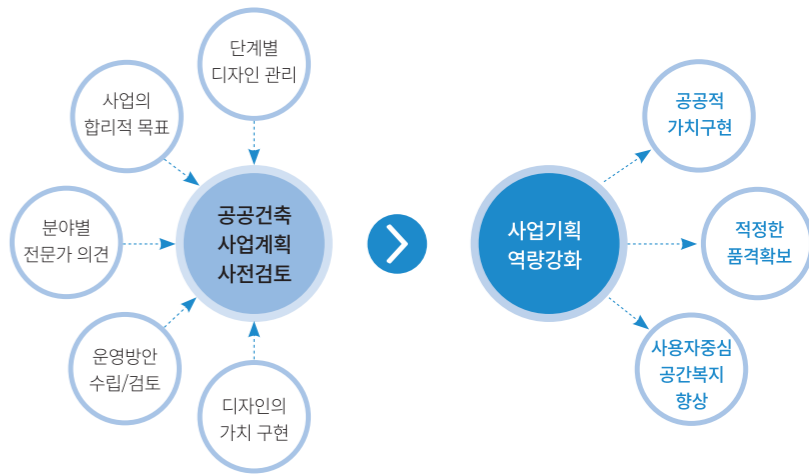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정의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관련 조항에서 보자면,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기획 단계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적정 규모를 산출하고, 유효한 프로그램과 합리적인 예산을 계획하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또한 설계 발주 및 사업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사업 추진 및 디자인 관리체계를 제시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 즉, 공공건축 조성 기획 단계에서 사업의 합리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설계·시공·유지관리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합리적인 예산 실행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 2019 건축사 실무교육 자료 일부 발췌



▲ 공공건축 조성 Process에서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개념도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기획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²⁾.



▲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목적

그동안은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전문 공무원이 사업을 수행해야만 하는 업무환경, 그리고 빠르게 성과를 내야만 하는 성과 중심의 사업수행 조건으로 인해 공공건축이 가져야 하는 가치를 밀도 있는 기획으로 끌어내기 어려웠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첫 단추로 인해 사업수행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예산 변경 등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도 흔한 풍경이었다.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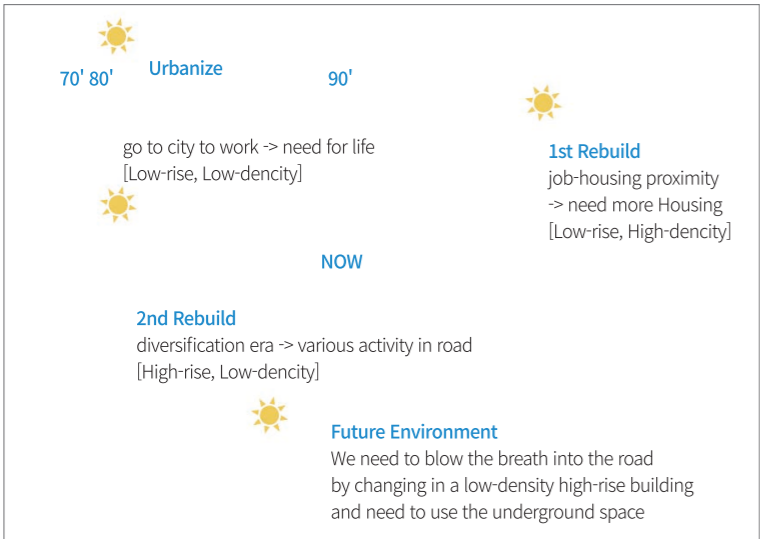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되는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및 관리업무를 개선하고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공공건축사업의 기획업무 과정에서 타당성 있는 목표 수립이나 예산계획 수립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실무에서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다.

특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해 온 필자의 경우, 공공건축 기획업무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많은 부분에서 느끼고 있다. 그중에서도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오랜 기간 디자인 컨설팅³⁾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 지자체의 기획업무 수행 능력을 눈에 띄게 향상해주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역할

첫째, 공공건축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한다는 것은 그 사업이 가지는 공공건축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이므로 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주관적이고 편향적이지 않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건축 가치관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래는 평소 필자가 생각하는 건축 가치관이다.

-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는 그 장소에 대해 국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공간이 가지는 사회적, 시간적 가치를 사용자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건축물의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시의 환경변화

‘형태적 콘셉트’가 아닌, ‘공간적 콘셉트’가 자연스럽게 ‘형태적 콘셉트’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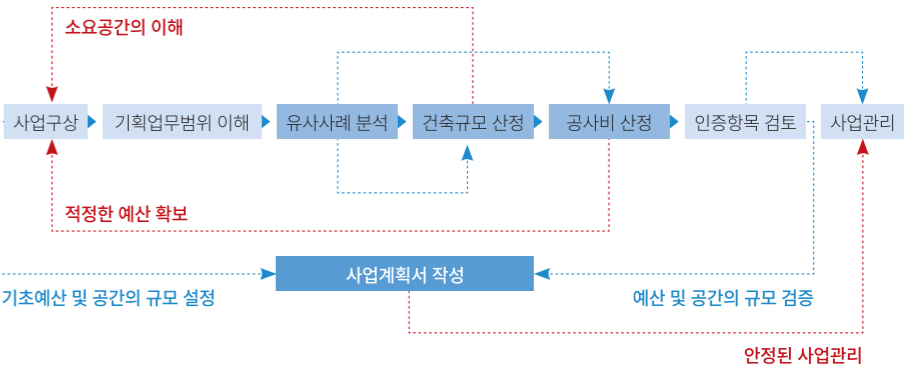
- 건축물에는 기본적으로 대지의 특성(향, 일조, 동선 등)을 고려한 ‘배치’, 그리고 개별 공간의 기능성을 충족하는 ‘형태 및 모듈’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독창적 공간 창출이란 명목 아래, 형태만을 추구하는 비효율적 공간 형태, 구조 모듈, 외부 장식 등은 건축사들이 지양해야 한다.

- 건축사의 무한한 창의적 의지에 의해 건축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한 상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기존의 형태 지향적인 건물 경향을 떠나서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 빌딩(Green Building),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등 기능성, 특히 친환경적 기능성을 얼마나 충족하고 발전시키느냐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안 및 계획된 건축물은 장소성에 대한 해당 건물만의 공간적인 아이덴티티 (Identity)와 시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전문가로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보완사항을 제시할 때, 단순 의견 제시보다는 기획업무의 범위와 프로세스를 이해시키고 보완사항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대안 등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신청기관 담당자의 사업기획 역량을 향상하는 역할을 한다. 당해 담당자가 동일 사업을 재추진하거나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수준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뿐만 아니라 사업구상 단계에서 합리적인 방향 설정을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수행 방식과는 차별화된 선도적인 방법으로 신청기관과 교류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여러 차례 체감할 수 있었다.



▲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시 검토사항 체크하도록 지원

3)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건축, 조경, 디자인 분야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하는 제도

문제점과 애로사항

여러 사업계획서를 접하다 보면, 지자체 또는 발주처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기획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또한 예산확보와 우선적인 사업 추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계획서나 첨부 자료의 경우 사업기획 분야 중심으로 작성되고, 규모와 예산을 산정하는 건축기획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⁴⁾. 둘째, 기존 수행사례를 참고로 한 관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 편익 분석 위주의 타당성 조사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요 공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규모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⁵⁾. 셋째, 사업계획서 작성 또는 공공건축사업 기획업무 수행의 경험이 없는 담당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업무의 특성상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담당자의 잦은 부서 이동으로 업무를 반복 수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결과적으로 사업계획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상기 문제들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사전검토 수행방식처럼 기관 면담과 중간 협의의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자료제공이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신청기관과 공공건축지원센터, 외부 전문가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업무의 세부 업무 범위

분류		세부 업무 내용	
		사업기획 업무내용	건축기획 업무내용
1	방향 및 목표설정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사업의 목적 검토
		사업의 기대효과 검토	
2	현황조사 및 분석	사업부지 선정 및 입지 여건 분석	부지 및 주변 현황 분석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시)	시설에 관한 의견 분석(필요시)
		사업실행 여건 검토	사업부지 관련 기초자료 분석
3	유사사례 조사	유사사례 관련 자료 조사	상위 법, 각종 영향평가 조사 분석
			유사사례 비교분석 (사업 규모, 예산, 등)
4	사업규모 및 범위 검토	관련 법제도 검토 분석	법규 검토
		단위사업 검토 분석	용도에 따른 규모 검토
			공간 구성 계획 [평면, 단면]
			부지 활용계획 [배치, 동선계획]
5	사업 조사분석 및 전략 구상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	예산계획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각종 인증업무 추진계획
		예산집행 구체화 방안	사업 대안 검토
		디자인 관리체계 [발주방식] 검토	
6	사업계획 관리	최종 사업계획안 작성	설계 및 공사 발주방식 검토
		시설 운영 계획	설계 및 공사 일정계획
		설계의도 구현 및 감리방식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제시한 분류 틀을 토대로 세부 업무 내용(검토사항)은 필자가 구성

▼ 사업예산 항목별 체크리스트

분류		세부 내용
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	· 지반조사 후 지질상태, 절토의 규모에 따라 부지조성에 필요한 공사비 고려 · 기반시설[전기, 통신, 수도, 우수수 등] 인입에 따른 공사비 검토
	기존 시설 철거비	· 기존 철거대상 시설 확인
	건축공사비	· 유사사례분석을 통한 공사비 산정
	전시공사비	· 별도 유사사례 참고하여 추가 산정 필요
	인테리어 공사비	· 인테리어 설계 적용 공간 선정 후 필요비용 추가 산정
	기타 공사비	·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반영 필요
설계비	설계공모비	· 예정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확보
	설계대가기준	· 1종, 2종, 3종에 따라 구분 적용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반영
	추가 요율 (인증, BIM 등)	· 인증 취득에 따른 추가 요율 반영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5등급 이상, 설계용역대가의 8%) - BF 인증대상(실비 정산가액) - 에너지효율등급(1+ 이상, 설계용역대가의 7%)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우수 이상, 설계용역대가의 9%) · 각 항목별 동시적용에 따라 설계용역대가 13% + BF 인증 용역대가 반영
	측량·지반 조사비	· 경제복원측량, 현황측량 비용 반영(건적에 의한 실비정산 반영) · 지반조사 비용(내진설계를 위한 탄성파 탐사비용 포함, 건적에 의한 실비정산)
부대비	문화재 조사	· 해당여부 확인
	각종 영향평가	· 개발행위허가대상, 산지전용 또는 농지전용 대상 확인 · 사전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설계의도 구현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설계의도 구현(=사후 설계관리 업무) 업무 대상임 · 설계대가기준의 8% 또는 실비 정산가액
	도시계획시설변경	· 공원 내 설치, 지목변경 대상 등
	인증수수료	· 각 관련 용역비용 및 인증수수료 추가
	설계 경제성 검토	· 해당, 용역비 추가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 적정성 검토	· 해당, 용역비 추가 ·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예측, 예비비에 추가 · 5m 이상의 거푸집, 동바리 / 항타 및 항발기 사용 / 10m 이상 굴착 등
	BIM, BEMS 등	· 해당요건 확인 필요
	감리·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대상 확인 · 상주감리 대상(건축, 전기, 통신, 소방)으로 공정별 비용 산정 · 지하굴착 깊이에 따른 토목감리, 예비비에 추가 · 건물 형태 및 구조방식에 따른 구조감리, 예비비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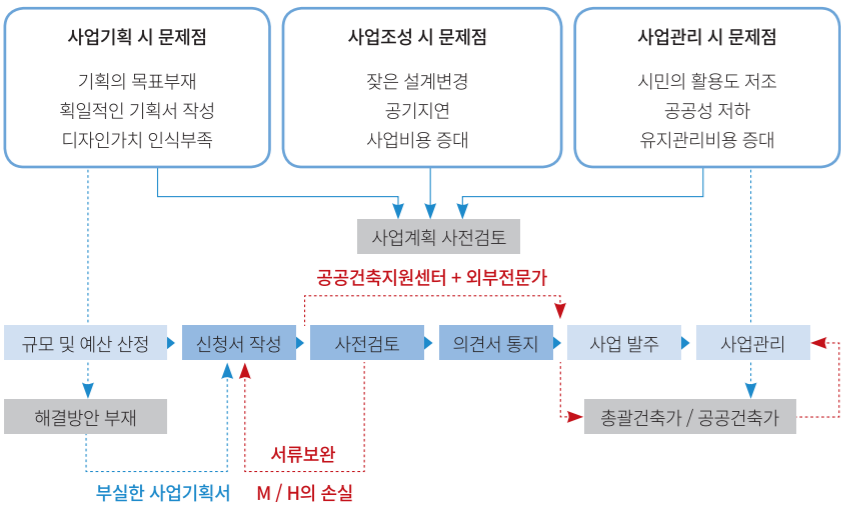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제시한 분류 틀을 토대로 세부 업무 내용(검토사항)은 필자가 구성

4) 표 기획업무의 세부 업무 범위 참고
5) 표 사업예산 항목별 체크리스트 참고

개선 및 제안사항

제도의 안정된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구상단계부터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계획서는 지자체별로 사업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성된다. 따라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 규모를 끼워 맞추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즉 공공건축 사업예산과 공간 규모를 산정하는 사업의 구상단계에서 관습적인 업무수행을 답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서 초기 검토 단계의 보완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상 단계에서 규모와 예산을 자문할 수 있는 지자체별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 선정 및 활용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통해 현실적인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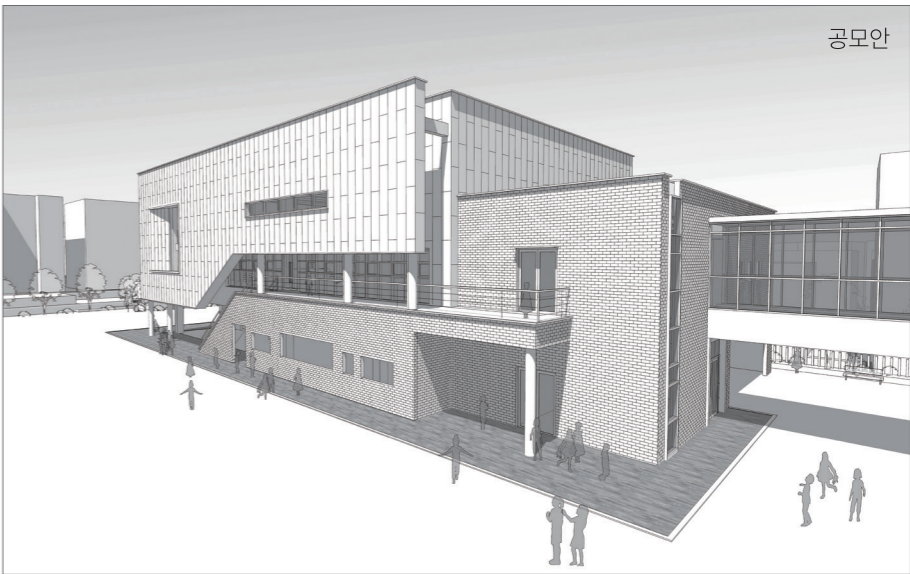
▲ 공공건축조성에 있어서의 전문가 참여 제안

둘째, 사전검토 대상 사업 범위의 확대 및 그에 따른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 사전검토를 신청하는 사업계획은 신축 건축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조경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전문 검토위원의 확보도 필요하다.

셋째, 적용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합리적인 예산확보로 공공건축의 가치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전체가 설계공모에 의해 진행되더라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사업예산으로 공모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공공건축에도 적용될 수 있게 실행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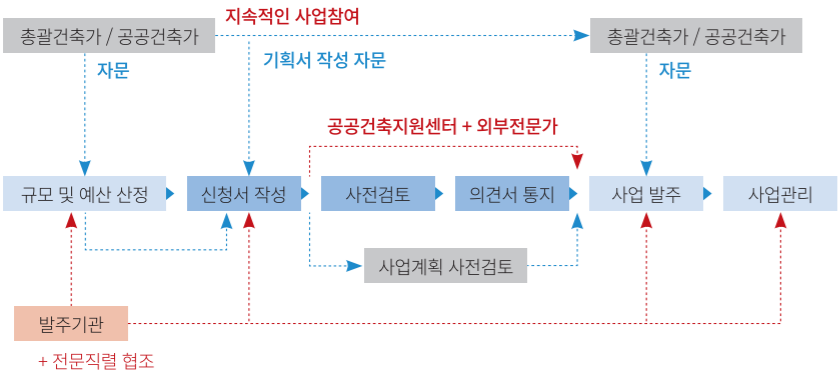
6) 별첨 1. 예정사업비 내 시설규모 산정 사례 참고
7) 출처: 필자 수행안

넷째, 그간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자, 기관, 전문가가 공유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 매뉴얼 등의 자료를 작성하고 실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기관별로 자료 및 사례 공유가 이루어지면 보다 안정되고 균일한 사업계획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 교육청 프로젝트의 공모안과 설계안의 비교⁷⁾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공공건축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한시적인 요식행위로 치부하기보다 일관성 있게 업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업구상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계획서 검토자의 참여 범위를 발주, 공모, 설계 협의, 시공 협의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의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업계획 사전검토 전후 단계 보완사항 제안

제도 운영의 기대효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기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합리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수준의 공간 품질을 확보하며, 사용자에게 양질의 공간을 제공하게 한다. 이는 공공적 가치 구현이라는 목표를 완수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충남공공디자인센터와 같이 모범적인 건축지원센터 운영은 지역별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추가설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확장은 공공건축물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공간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신청기관과 센터, 그리고 전문가의 상호 협의적이며 일관적인 디자인 관리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별첨#1. 예정사업비 내 시설규모 산정 사례⁸⁾

[충남 ○○○ ○○센터 건립사업]

아래는 예정 공사비 200억 원이 확보된 공공건축사업의 실제 자문사례입니다. 사업 규모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확보하여, 요구자의 수요면적 산정 부분에 가이드를 제시해 준 사례입니다.

1) 충남 ○○○ ○○센터 규모 산정 가이드

1-1. 면적 당 공사비 산정

- 사업비용 내 예상 공사비 : 200억 원

1-2. 유사사례 조사

	공 사 명	세 부 내 용						예상 공사비 (2022년 기준)
		용도	규모	연면적	총공사비	공사기간	㎡당 공사비	
1	국립 경상권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018년 발주	노유자시설	지상 3층	4,152.85㎡	118억 9천만 원	540일	2,862,227원/㎡	3,221,462원/㎡
		특이사항 : 조경면적 10,343.24㎡ / 건폐율 14.6%						
2	국립 청소년 생태센터 2019년 발주	수련시설	지상 3층	10,691.10㎡	334억 5천만 원	900일	3,128,717원/㎡	3,418,834원/㎡
		특이사항 : 조경면적 37,637.81㎡ / 건폐율 9.03%						
3	한국환경공단 연수원 2017년 발주	교육연구시설	B1F / 4F	10,905.98㎡	290억 4천만 원	730일	2,662,560원/㎡	3,086,637원/㎡
		특이사항 : 조경면적 14,935.24㎡ / 건폐율 13.23%						
4	경찰청 제천수련원 조성사업 2016년 발주	교육연구시설	B1F / 4F	10,271.16㎡	264억 2천만 원	720일	2,572,288원/㎡	3,071,446원/㎡
		특이사항 : 건폐율 5.36%						

1-3. 면적 당 공사비 산출

- 상기 자료의 평균비용 산출

- 3,199,595원/㎡ (1,057,717원/평)

1-4. 예상 공사비 내 건축 가능 규모 산출

- 20,000,000,000원 / 3,199,595원 = 6,250㎡

- 건축 가능 예상 규모 = 6,250㎡ (1,890평)

8)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정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예산과 규모 선정을 위한 접근방법을 자문한 사례

2) 예상 규모 내 용도별 면적비율 산정

2-1. 사업비용 내 예상 건축 규모 : 6,250㎡ (1,890평)

2-2. 사례연구

- 1)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간구성 (참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면적 배분에 관한 연구)
- 상담관리부, 재활부(의료, 교육, 직업, 사회), 숙식부, 기타서비스부
- 대형복지시설(3,000㎡)의 면적구성 비

상담 관리부	재활부				숙식부	강당, 창고 등	공용부
	의료	교육	직업	사회			
7.6%	10.5%	11.5%	9.8%	2.9%	4.5%	12.1%	41.1%

2) 호텔의 부분별 면적 비율

- 부분별 공간구성 (참조, 제주도 특급관광호텔의 공공부분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구 분	리조트호텔	시티호텔	레지던스호텔
객실 단위면적	41-91㎡	28-50㎡	70-100㎡
숙박부문	41-56%	49-73%	32-48%
공공부문	22-38%	11-30%	35-58%
관리부문		6.5~9.3%	
설비부문		5.0~5.4%	
로비 면적 (객실당 면적)	3.0-6.2㎡	1.9-3.2㎡	5.3-8.5㎡

- 객실부 평면구성 (참조, 제주도 특급관광호텔의 객실부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호텔명	롯데	그랜드	신라	KAL	퍼시픽	로얄	평균
기준층 객실 전용률	75.82%	68.83%	57.20%	64.59%	69.41%	67.56%	68.18%

3) 스페이스 프로그램 가이드

- 상기 검토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별 면적 비율을 산정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숙박 부문	객실 전용		1,625㎡		1,828㎡		2,030㎡
	16평(50㎡)	65%	12실	40%	16실	45%	20실
	24평(80㎡)		8실		8실		8실
	30평(100㎡)		4실		4실		4실
	객실 공용	35%	875㎡		984㎡	50%	1,095㎡
부대 시설	관리 부문	8%	300㎡	60%	275㎡	55%	250㎡
	재활 부문	25%	937㎡		860㎡		780㎡
	교육 부분	7%	263㎡		240㎡		219㎡
	강당 부문	10%	375㎡		344㎡		313㎡
	식당 부문	10%	375㎡		344㎡		313㎡
	공용부문	40%	1,500㎡		1,375㎡		1,250㎡
합계		100%	6,250㎡	100%	6,250㎡	100%	6,250㎡

※ 객실 수 확보방안

1. 객실 전용률 상향: 복도 폭, 층별 부대 공간(린넨 등) 최소화
2. 객실별 전용면적 축소

4) 부대시설의 공간별 활용방안

구 분		주요 활용시설
숙박 부문	16평(50㎡)	콘도형, 풀빌라형 / 테라스형
	24평(80㎡)	
	30평(100㎡)	
부대 시설	관리 부문	
	재활 부문	실내 물놀이 공간, 샤워실, 목욕탕 등
	교육 부분	프로그램실, 소회의실, 세미나실 등
	강당 부문	다목적 강당
	식당 부문	식당, 북카페, 매점 등
	공용 부문	
야외 시설	시설부분	클럽핑장, 캠핑장, 실외놀이터, 실외 물놀이 공간 등
	조경부문	무장애 산책길

REVIEW

026	모두를 위한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신은주 교수
038	時·空間의 인식을 지원하는 고령자 유니버설디자인	오미현 교수

모두를 위한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인천카톨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신은주** 교수

인류가 직면한 기후와 빈곤, 인권 문제는 생존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난제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경제와 환경 및 사회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ility)’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지점이기도 하다.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기업의 의사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환경과 사회 문제를 디자인 방법론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디자인(Sustainable design)이나 에코 디자인(Echo design)에서부터 신체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가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이윤 추구 목적이 달라지면서 디자인의 역할과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 디자인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2016년 ‘알파고’를 통해 대중에 소개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여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면서 여러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도시 환경 및 에너지에서부터 원격 의료, 교육,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환경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기술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듯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력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첨단 기술과 노하우(know-how)를 가진 기업, 그리고 역할자로서의 공공기관이 지속 협력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시청각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겪는 소통 문제를 인공지능 기술과 디자인 적용을 통해 해결한 국내외 기업과 공공기관의 사례를 살펴보고, 공공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한다.

1. 경계가 없는 소통

시각장애인을 위한 Seeing AI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AI for Goo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AI for Earth), 건강(AI for Health), 장애인(AI for Accessibility), 인도적 지원(AI for Humanitarian Action) 및 문화유산(AI for Cultural Heritage) 등 다섯 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관련 기관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다섯 개의 프로젝트 중 ‘AI for Accessibility’는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생활 문제를 경감하고 고용, 교육, 커뮤니티 및 가정 등의 폭넓은 생활 범주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¹⁾



1) AI for Good: <https://www.microsoft.com/en-us/ai/ai-for-good>
2) 출처: 구글 이미지 자료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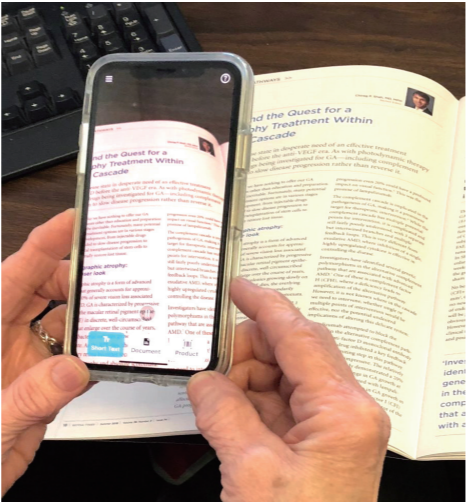
‘AI for Accessibility’ 프로젝트 중 하나인 ‘Seeing AI’는 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분석한 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 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무료 지능형 앱 서비스이다. 출시 이후 5백만 개 이상의 이미지 분석 작업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70개국에서 15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다.

Seeing AI는 짧은 텍스트, 문서, 제품, 사람과 화폐 등 총 5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의 6개 언어를 지원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설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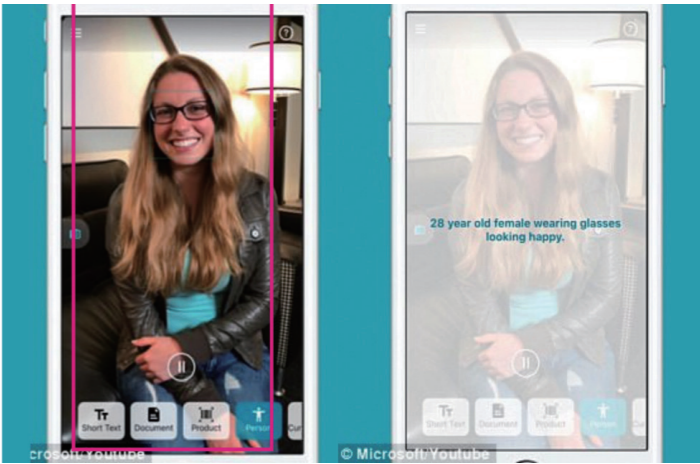
‘짧은 텍스트’와 ‘문서’ 채널은 간단한 글이나 문서를 빠르게 파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 채널을 이용해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 메모를 읽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추억 할 수 있고, 동물원의 설명 표지판을 읽고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 시각장애가 있기 전 요리사였던 한 사용자는 “카메라로 계량기 화면을 비추면 Seeing AI가 정보를 읽어줘서, 이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레시피도 사용할 수 있다”라며 가장 선호하는 채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품’ 채널은 사용자가 물건의 바코드를 찍으면 해당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정확하게 물건을 찍을 수 있도록, 신호음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카메라가 제품의 바코드 방향으로 움직이면 스마트폰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도록 신호음의 빈도가 증가하며, 사용자는 소리를 통해 카메라를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된다.

▼ 텍스트, 문서 채널³⁾



▲ 제품 채널⁴⁾



▲ 사람 인식 채널⁵⁾

‘사람 인식’ 채널은 사용자의 주변 사람을 인식하여, 인상착의 등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대방의 연령이나 성별 확인은 물론이고, 표정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한 후 이에 맞게 반응하는 등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사용자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능을 제공하는 셈이다. 사용자는 오디오 지침에 따라 주변 사람을 찍은 사진에 이름을 태그하여 저장할 수 있으며, 앱을 재사용할 때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화폐’ 채널은 모양과 크기만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지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안내한다. 사용자가 이 채널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금액을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범칙에 노출되는 빈도도 낮출 수 있다. 지폐가 구겨져 있거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도 인식할 수 있으며, 유로, 루피, 파운드,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 등 5가지의 통화를 식별할 수 있다.⁶⁾

▼ 화폐 채널⁷⁾



3)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자료
4)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자료
5)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자료
6) Seeing AI : <https://www.microsoft.com/en-us/ai/seeing-ai>
7)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자료



▲ Hand Talk의 이용자⁸⁾

살펴본 것처럼 Seeing AI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변의 시각 정보를 분석해 청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시각장애로 인해 불가능했던 소중한 사람과 소통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Hand Talk

「Google AI Impact Challenge 2019」 수상작 중 하나인 ‘Hand Talk’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앱으로, 영어를 미국 수화, 포르투갈어를 브라질 수화로 자동 번역하는 번역기이다. Hand Talk의 이용자는 번역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3D 아바타인 휴고(Hugo)를 통해 쉽게 다른 나라 수화를 이해하거나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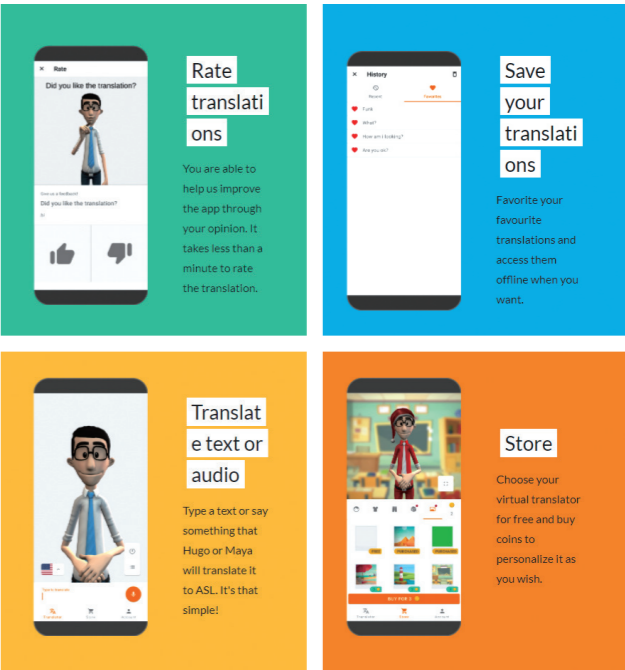
Hand Talk 앱을 개발한 것은 브라질 스타트업 기업이다. 2012년부터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장벽을 허물고자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이 앱을 개발해 왔다. Hand Talk의 포르투갈어/브라질 수화 버전이 먼저 출시된 후,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소셜 네트워크 앱으로 선정되면서 영어/미국 수화 버전도 출시되었다. 이후 이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Hand Talk의 탄생 배경에는 인공지능의 기술 혁신 외에도 수화 전문가로 구성된 팀의 협업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수화 비디오를 녹화하여 인공지능 휴고가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휴고가 풍부한 어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휴고의 번역 능력을 개선하는 동시에, 대화의 질을 향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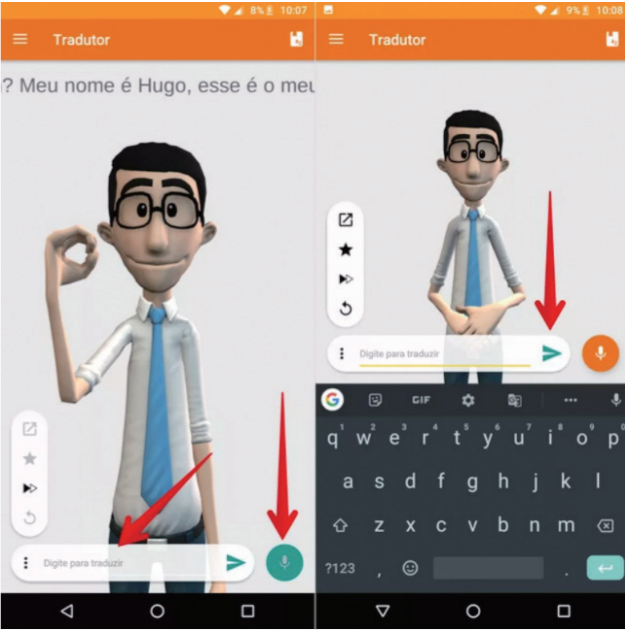
사용자는 글자와 소리가 수화로 번역된 3D 아바타의 손동작을 통해 소통한다. 가상 번역가인 3D 아바타의 옷과 디자인을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번역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번역 결과물을 평가할 수도 있다. 또한 휴고의 번역 속도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사용자가 좋아하는 번역물을 저장해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하거나, GIF 형식의 짧은 애니메이션 메시지를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하는 등 소통도 할 수 있다. 가상 번역가인 3D 아바타는 손동작으로 대화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정으로 감정까지 전달한다.⁹⁾

Hand Talk은 친근한 캐릭터 디자인과 GUI 요소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끌어내고,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수화를 배우고 소통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친화적 서비스가 돋보이는 기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4억 6천만 명의 청각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약 80%는 각국의 말과 문자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Hand Talk은 청각장애인이 학교, 직장 및 가족 내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장애의 벽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큰 사회적 포용력을 제공한다.



▲ Hand Talk 앱 기능¹⁰⁾



▲ Hand Talk 앱¹¹⁾

8) 출처: 구글 이미지 자료 캡처
9) Hand Talk : <https://www.handtalk.me/en/app>
10) 출처: Hand Talk 자료
11) 출처: 구글 이미지 자료 캡처



▲ 멀틱스가 개발 중인 스마트 미러 및 민원서비스 화면¹²⁾

모두를 위한 스마트 미러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인공지능기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선정된 대전시의 ‘스마트 미러’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민원안내 키오스크(Kiosk)다.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스마트 미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미러는 거울 형태의 터치스크린,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상 하 위치 이동용 인터페이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통, 관광, 행사, 여권 등의 다양한 민원을 안내한다.

스마트 미러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비장애인의 4가지 모드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해당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마이크를 통해 음성으로 민원을 문의하거나 스피커로 음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카메라를 통해 수화로 민원을 문의하면 거울형 스크린에서 3d 아바타의 수화 영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터치스크린에 민원사항을 입력하여 문자와 음성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경우에는 키오스크에 장착된 동작 감지 센서를 통해 화면의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터치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¹³⁾¹⁴⁾



▲ TalkingPoints를 사용하는 부모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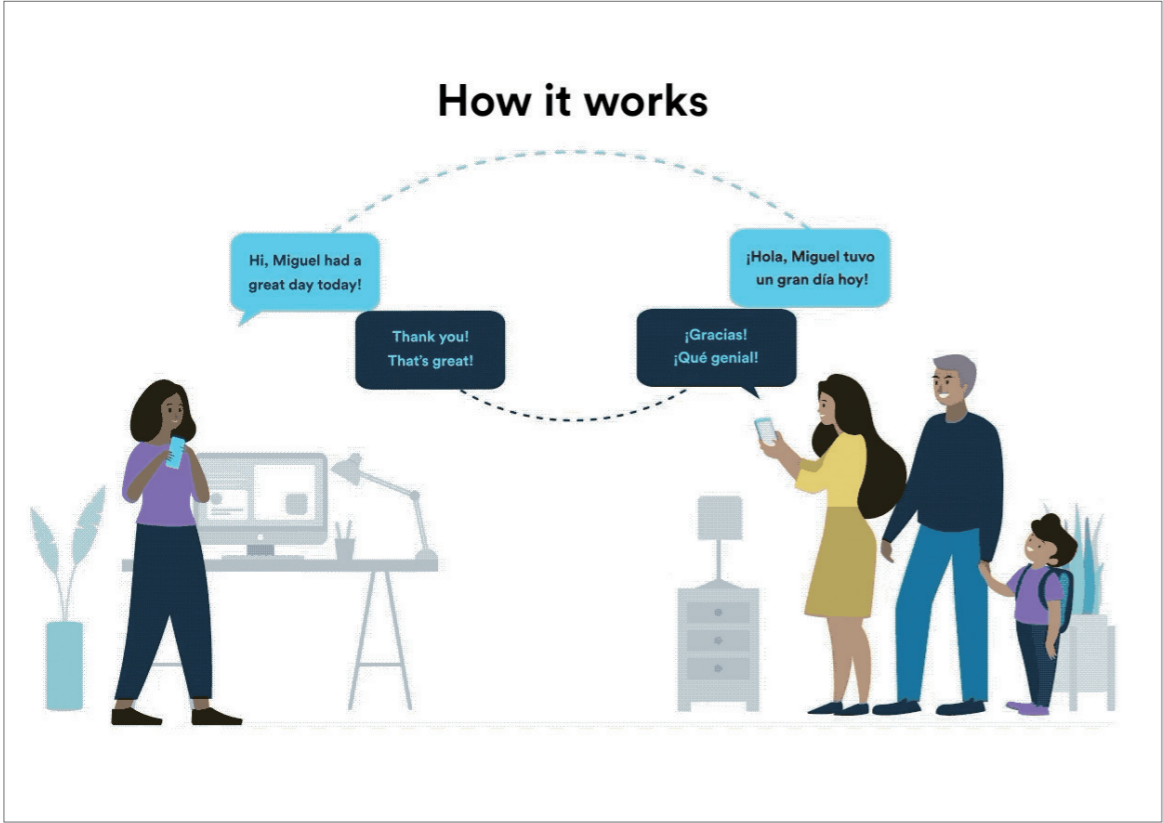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한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인 멀틱스, AI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솔트룩스, 대전시가 함께 추진한 민간 협력 사업의 결과물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미러는 장애로 인해 겪는 정보 차별과 의사소통의 불편등을 해소함은 물론, 한국 수화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을 넘어서 은행, 의료기관 등으로 확산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언어의 장벽이 없는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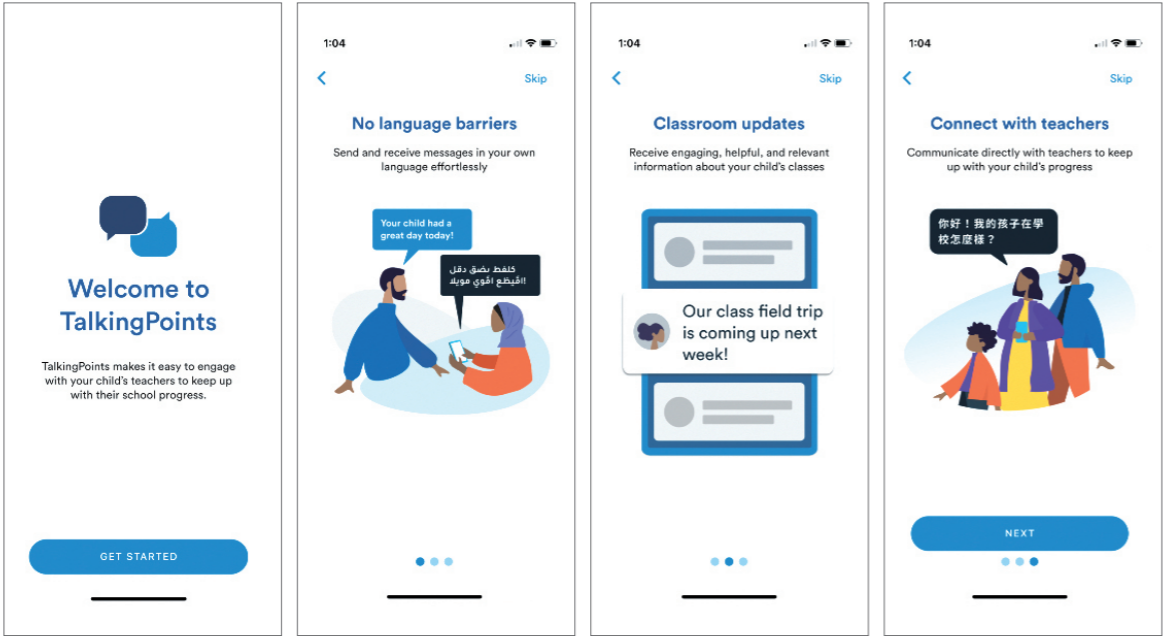
학교와 가정을 이어주는 TalkingPoints

사회적 기업인 TalkingPoints의 한국 이민 창업자는 어린 시절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인공지능 기반의 무료 자동번역 서비스 앱을 개발했다. 이 앱은 다문화 가정의 부모, 교사,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100여 개의 언어를 번역하고 65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TalkingPoints 앱은 구글(Google)로부터 인공지능 기술과 자금을 지원받아서 개발되었다.

12) 출처 : 멀틱스와 대전광역시 자료
13) 대전광역시 스마트 미러 보도자료 :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pageIndex=1&ntatcSeq=1326884321
14) 전자신문 : <https://m.etnews.com/20200701000356>
15) 출처 : 구글 이미지 자료 캡처



▲ TalkingPoints의 작동 원리¹⁶⁾



▲ TalkingPoints의 앱 화면¹⁷⁾

미국의 경우 전체 아동의 약 25% 정도가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역의 약 45%의 가정은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부모는 아이들의 선생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TalkingPoints는 쌍방의 언어를 통·번역함으로써 부모님과 선생님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한 예로 학부모가 가정통신문을 번역하고자 할 때 TalkingPoints의 번역 정확도는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 번역기로 통신문에 사용되는 영어를 번역하면 어색한 표현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TalkingPoints는 100여 명의 전문 번역가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보다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다.

TalkingPoints는 크게 번역, 가족 원격학습 등의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TalkingPoints를 사용하는 선생님은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을, 부모는 문자와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참여한 수업의 목록을 확인하고 교사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부모가 모국어로 작성하면 영어로 번역되어 교사에게 전달되고, 교사가 영어로 작성하면 부모에게 모국어로 번역되어 전달되므로 편하게 자녀의 학습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¹⁸⁾

16) 출처 : TalkingPoints 자료
17) 출처 : TalkingPoints 자료
18) TalkingPoints : <https://talkingpts.org/>

다문화 가족의 소통을 위한 Papago

다문화 가정의 경우 저소득층 비율이 높다. 언어 문제와 소득 격차로 인해 교육 소외 계층도 점점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다문화 가정에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TalkingPoints가 개발되었으며, 그 결과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 소외 계층을 아우르는 교육 서비스의 평등을 가져왔다. 한국에서도 다문화 가정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다양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네이버는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한국 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해 인공지능 통·번역 앱인 Papago에 ‘다문화가족 회화’를 파트너 서비스로 추가했다. ‘다문화가족 회화’에서는 실생활 회화에서부터 임신 및 육아, 의료, 자녀교육 관련 회화까지 다양한 통·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Papago는 사용자에게 향상된 번역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상황별 표현 데이터를 축적하도록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¹⁹⁾

Papago의 ‘다문화가족 회화’는 국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위한 AI 튜터

AI 튜터는 수십만 개의 문장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형 영어 회화 앱이다. LG CNS는 서울시 교육청의 요청으로 영어 회화를 교육하는 영어 버전 AI 튜터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한국어 버전도 추가했다.

AI 튜터의 인공지능은 학생의 학업 수준과 진도를 분석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회화 학습을 제공한다. 가령 학생이 대답을 못 하면 AI 튜터는 학생의 취약점을 분석해 힌트를 주며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한국어 버전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학습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체계적인 학업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해 교육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²¹⁾



▲ Papago의 ‘다문화 회화’²⁰⁾



▲ LG CNS 직원이 AI 튜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²²⁾

AI 튜터는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 학생들의 기초학습 역량을 향상하여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앱으로,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어디서든 교육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공공교육 서비스를 실현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성장 중심의 산업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 공헌의 가치를 실현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디자인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역할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개인과 개인, 그리고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공공디자인의 역할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공공디자인이 가시적이며 하드웨어적인 공공 환경, 시설물 및 용품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었다면, 앞으로는 비가시적이며 소프트웨어적인 공공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디자인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정보 서비스 제공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겪고 있는 소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향후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공공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민관 협력 하에 사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해 나간다면, 다양한 사회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9)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171116142500371>

20) 출처 : 네이버 파파고 자료

21)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8091731171>

22) 출처 : LG CNS 자료

時·空間의 인식을 지원하는 고령자 유니버설디자인



한남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융합디자인전공 겸임_오미현 교수

한국의 고령자 비율이 5년 후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과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공 공간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환경을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를 통해, 한국이 미래 사회에 대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런던의 템즈강 주변의 병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령자¹⁾



▲ 영국의 펠리컨 횡단보도(Pelican Crossing)²⁾



▲ 영국의 지브라 횡단보도(Zebra Crossing)³⁾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영국의 고령자 비율은 2014년에는 17.6%였지만, 2040년이 될 때쯤 2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상황은 한국보다는 다소 나은 편이다. 그럼에도 이미 영국은 고령자는 물론, 연령,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회적 시설들을 잘 구축하고 있는 편이다. 이는 영국의 교통 체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2017년 한국 경찰청 기록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OECD 평균인 5.2명보다 많다. 이와 비교할 때, 영국은 2.8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으며 한국보다는 약 3배 정도 낮다.

영국은 비교적 보행자 환경이 잘 계획되어 있다. 영국의 보행 환경에서는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는것이 익숙하며, 무엇보다도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도 사람이 건너가도 될 만큼 보행자가 우선이다. 또한 보행자 다음으로는 대중교통이 우선이다. 자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배려해준다. 영국의 신호등 체계도 주목할 만하다. 영국에는 꽤 복잡한 신호등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4개 정도의 신호등 유형이 있다. 그중 하나가 지브라 횡단보도(Zebra Crossing)다. 지브라 횡단보도에는 벨리샤 비콘

1) 출처 : Google Maps 캡처사진
2) 출처 : <https://www.4wheelz.co.uk/learning-to-drive/pedestrian-crossings/>
3) 출처 : <https://www.thesun.ie/motors>



▲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휠체어 보행자를 배려한 중간보도⁴⁾

▼ ‘Look Right’의 문구가 있는 영국의 횡단보도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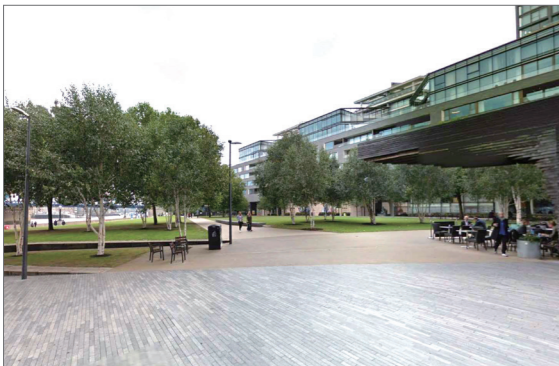
(Belisha Beacon)으로 불리는 작은 공 크기의 노란 전등이 세워져 있다. 운전자는 주행 중 그 불빛을 보면 서행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시스템이다. 펠리컨 횡단보도(Pelican Crossing)도 있다. 이는 영국에서 가장 많은 신호등이다. 버튼을 누르면 ‘WAIT’ 불이 켜지며, 잠시 뒤 초록색 불이 켜지면 보행자가 건널 수 있다. 퍼핀 횡단보도(Puffin)는 펠리컨과 유사하지만, ‘WAIT’라는 불 대신 적색과 초록색의 사람 모형 불빛이 켜진다. 마지막으로 투칸 횡단보도(Toucan Crossing)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건널 수 있는 신호 체계이다. 이처럼 다양한 신호등이 존재하는 것은 개인의 선호나 장애 등 ‘사용상 유연성(Flexibility in Use)’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보행환경은 말 그대로 모든 보행자를 배려하고 있다. 과속하는 차량이 거의 없으며 클랙슨 소리를 듣기가 어렵다. 횡단보도의 경우 세로 점선으로 표시된 곳의 신호등이 켜지면 건너게 되는데, 대부분의 차로에는 중간에 반드시 ‘중간보도’가 있다. 노약자나 빨리 걷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녹색등이 꺼져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다. 따라서 고령자들도 천천히 그리고 무사히 도로를 건널 수 있다. 불특정 다수를 배려하는 중간보도 외에도, 휠체어를 탄 노인이나 장애인을 배려한 중간보도도 볼 수 있다. 이 중간보도는 일반 중간보도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건널목 중간보도로 진입하는 부분의 턱을 없앴다. 진입로를 제외한 중간보도의 경계 부분에만 턱을 적용하였으며, 중간보도 영역을 표시하여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가 멈출 수 있는 공간을 형성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이곳에서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다시 건널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건널목에는 한국과 다른 것이 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곳 바로 앞에 차가 오는 방향을 알려주는 사인물이다. ‘Look Left / Look Right’이라는 글자가 바닥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자연스레 차량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은 영국의 다양한 교통 체계는 영국 시민 전반의 보행환경을 개선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도출했다. 무엇보다도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해 교통환경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에서는 교통체계 외에도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배려한 보행환경이 갖춰진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한 예가 바로 영국의 템즈강 타워브리지 근변에 위치한 런던의 시청 건물(The glass egg)이다. 이 건축물은 유명 건축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가 설계한 것으로, 친환경 건축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현지인과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이 주변의 환경은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4) 출처 : Google Maps 캡처사진

5) 출처 : <https://www.dekra-product-safety.com/en/when-zebra-suddenly-rears>



▲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의 턱을 없앴⁶⁾



▲ 휠체어의 접근성을 고려한 경사면⁷⁾

먼저 사람들이 휴식하는 건물 앞 공원이나 자주 이동하는 광장의 경우,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의 턱을 없앴다. 또한 평지의 높이가 같지 않은 곳에는 계단과 경사면을 동시에 두는 등 개인의 선호나 편의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특히 경사면의 각도 또한 휠체어가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각도로 조성하여 사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배려 덕분에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이들이 이곳을 편안한 공간으로 기억한다.

▼ 유니버설디자인이 고려된 런던시청 앞 광장⁸⁾



▲ 자연 식물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컬러 계획⁹⁾

고령자의 인지(認知) 능력을 향상하는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고령자 유니버설디자인은 신체 능력의 저하를 고려한 디자인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노인이 겪는 것은 비단 신체 능력 저하만이 아니다. 신체와 동시에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 또한 저하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와 방안 모색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간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대안으로 컬러, 조형, 타이포그래피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인지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공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인간의 색채 지각 능력은 40대 이후 노화가 시작되며 70대 이후에는 90% 이상의 고령자들이 시각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 고령자 색채 지각의 특징은 수정체의 황변화로 대부분의 사물이 노랗게 보이고, 어두운 명도와 탁한 채도로 사물이 인지된다는 것이다. 원래의 색을 온전히 인지하는 게 어려우며, 특히 R, YR, Y 계열의 색이 다른 색에 비해 선명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어떠한 색을 공간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고령자는 공간 정보를 다르게 인지한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 특성을 고려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공간에 적용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동시에 공간인지능력 향상도 유도하였다. 공간의 색채를 선정할 때 고령자의 신체 노화에 따른 색채 지각 능력이 고려되었으며, 공간의 안전, 사용자의 선호색, 고령자의 감각을 자극하는 건강 등이 계획에 반영되었다.

6) 출처 : Google Maps 캡처사진
7) 출처 : Google Maps 캡처사진
8) 출처 : Google Maps 캡처사진
9) 출처 : 필자 촬영



▲ 기둥에 색상 띠를 둘러 공간의 정보를 제공¹⁰⁾



▲ 홍성 노인복지관 복도¹¹⁾

꽃, 식물과 같은 자연적 요소를 색채와 접목해 그래픽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령자가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물론 큰 꽃이나 나무로 표현된 그래픽 요소는 디자인 심미성이 다소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령자들이 사용 주체가 되어 참여한 디자인이기에 사용자 즉, 고령자 관점에서의 심미적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다. 한편 고령자의 공간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화장실이나 대피소처럼 공간 목적이 명확한 곳의 진입문에 고령층이 인지하기 쉬운 색상을 적용하였다. 또한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에 포인트 색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고령자에 주는 이로움은 단순히 공간인지능력 향상만이 아니다. 고령자가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심리적 우울이다. 실제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로 연결되기도 한다. 우울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자연채광을 통한 개선이다. 그러나 공간의 설계가 다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색채의 활용이 고령자의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10) 출처: 필자 촬영
11) 출처: 필자 촬영
12) 출처: <https://www.hdrinc.com/portfolio/shirley-ryan-abilitylab>



▲ 다채로운 색채를 적용한 셸리 라인언 재활센터의 공간 내부¹²⁾

한편, 고령연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회의 중심 주체가 고령자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주요 이용자 역시 고령자가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래서 고령자가 의료공간을 이용할 때, 보호자의 동행 없이도 스스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와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공간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자인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의 일리노이에 위치한 셸리 라인언(Shirley Ryan Ability Lab) 재활센터를 들 수 있다. 셸리 라인언 재활센터는 미국 내에서도 재활 부분 1위의 우수병원으로 인정받았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주목할 점은 의료기관인 병원이 일반적으로 지닌 과묵함과 형식적 평범함에서 탈피해, 활기차고 리듬감 있게 공간을 디자인했다는 점이다. 먼저 고령자들이 불편한 신체로 심적 불안과 우울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해 다양한 색채를 활용해 정서적 심리 문제를 완화했다. 또한 바닥과 계단의 난간에는 공간의 방향성 제공이라는 실용적 요소뿐만 아니라, 조형적 예술성, 주변 경관 및 공간과의 조화, 용도의 적합성 등 심미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색채를 적용했다. 이러한 디자인은 고령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과 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한다.

고령자에게 공간 방향 결정을 제공하는 사이니지 유니버설디자인

고령자의 공간인지능력을 향상하는 요소 중 하나는 타이포그래피가 적절히 적용된 웨이 파인딩(Way finding)이다. 웨이 파인딩은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위치를 찾거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리노이의 셸리 라이언 재활센터의 복도 바닥이나 천정에 적용된 그래픽은 그 색채 자체로도 공간 인지에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공간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웨이 파인딩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웨이 파인딩의 대표적인 요소에는 사이니지(signage)가 있다. 사이니지는 사용자가 공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인지능력을 향상하게 한다. 특히나 고령자의 경우 색채만으로는 공간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때 방향표나 글자들은 고령자들이 공간을 인지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 공간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웨이 파인딩이 적용된 셸리 라이언 재활센터¹³⁾



▲ 사이니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일본의 의료기관¹⁴⁾

의료공간에 적용되는 사이니지 유니버설디자인은 고령자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한국과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이미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28%를 넘어(2018년 기준) UN 기준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자 비율 증가를 사회문제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배려가 복지, 환경, 고용, 문화 등에 적용되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선진사례로도 참고하고 있다.

일본의 우메다 병원은 대표적인 사이니지 디자인 적용 사례이다. 복잡한 병원 시스템 안에서 고령자들은 장소를 찾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고려해 우메다 병원에서는 불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배제하고, 고령자가 인지하기 쉬운 색상, 글자 크기, 핵심의 정보만을 활용하여 사이니지를 디자인하였다. 물론 흰색 배경이 의료공간의 전형적인 차가운 이미지를 다소 풍긴다는 견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시력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는 백색 종이에 글씨를 쓴 것과 같은 느낌으로 가독성을 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진료실 입구에 그려진 화살표 방향 표시와 숫자로 적힌 진료실 표시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직관적으로 표시하여, 공간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13) 출처 : <https://www.hdrinc.com/portfolio/shirley-ryan-abilitylab>
14) 출처 : <https://sinalizar.wordpress.com/2011/09/12/kata-civic-polyclinic/>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고령자를 위한 디자인

최근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5만 호를 제안했으며, 롯데 등의 민간 건설사들도 고령들의 신체, 심리, 사회적 특성을 배려한 고령자 맞춤 주택 평면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실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밖으로 확장되고 있다.

충남 공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가 개발되었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무장애 시설이 갖춰진 공간으로, 노인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놀이(운동)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어르신 놀이터가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높은 관심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어르신 놀이터는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공공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등장은 고령자가 공공환경의 주 이용자가 되어 새로운 공공의식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고령자가 사회 주체로 활동하게 하는 등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충남 공주시 금성동에 위치한 어르신 놀이터¹⁵⁾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령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은 고령자를 사회의 주체로 유도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 유니버설디자인이 풀어야 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많다.

첫째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법규이다.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이 전국에 걸쳐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법규와 지침은 아직 미흡하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각종 법안을 마련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사회 전반에 확대하고 있다. 그 예로, 독일은 국가 규격의 ‘DIN(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공공 주거 건축, 교통시설, 공공공간의 분야로 구분하여 기술적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법의 기준에 따라 대부분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의 일부로 유니버설디자인 계획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유니버설디자인 자체의 발전과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등 국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적 발판 마련은 지역의 삶과 고령사회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가 지속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5) 출처: 필자 촬영
16) 출처: 필자 촬영



▲ 어르신 놀이터에 설치된 공공벤치¹⁶⁾

TEAM

태안군

052 태안군 「공동주택 디자인 지원」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의 질 개선

김수열 주무관

태안군 「공동주택 디자인 지원」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의 질 개선



충청남도 태안군청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_김수열 주무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하는 경과 년수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이 끝나는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태안군의 경우에도 건축된 지 10년 이상 지난 6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단지의 도로, 가로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CCTV, 보안등, 주민 운동 시설, 휴게시설, 하수도 등의 유지보수를 포함해, 옥상 방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 등 세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작업이다. 세대 내 ‘전용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해주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이며, 2020년까지 111개 단지에 총 21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해주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규모가 큰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적립된 수선비가 있어 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수선비를 적립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런 이유로 보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옥상 및 외벽 창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외벽이 오염되는 등 세대 내 거주성은 물론이고 주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18년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사업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

건축물의 외부 미관이 저해되면 단지 내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적인 이미지까지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어느 지역을 가든 건축물 외벽 부분이 낡고 변색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오래된 골목의 고풍스러운 풍경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 사업 전



▼ 사업 후



지원사업을 통해 시행되는 외벽 도장공사 등의 작업은 지역 건축물의 미관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큰 영향을 준다. 지원사업 중 도시미관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은 ‘외벽 도장공사’와 ‘담장 허물기’ 등이다. 2020년까지 외벽 도장공사를 실시한 단지는 42개 단지이며, 담장 허물기를 실시한 단지는 1개 단지이다. 2016년까지는 색채선정 및 디자인 등 각 단지별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외벽 색채가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건축물이 간혹 발생하곤 했다. 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 디자인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컨설팅을 통해 디자인 및 색채를 제안받는 것은 물론, 비전문가가 고려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을 공사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컨설팅 결과에 대한 해당 단지 입주자 및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만족도와 기대효과가 높아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사업 전



▲ 사업 후

사업의 효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효과로 다음의 내용을 꼽을 수 있다.

첫째,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의 지원을 통한 거주 주민 수선비 부담액 감소다. 일례로 8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옥상 방수, 외벽 보수, 도색 공사비가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지원 없이 각 세대가 공사비를 부담하면 187만 원의 수선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지원을 받게 되면 각 세대가 37만 원씩 부담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보수계획이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지원을 받아 보수를 진행할 수 있다.

둘째, 공용부분 수선으로 인한 거주성 향상이다. 준공된 지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은 외벽 창호나 옥상 균열 부분의 누수로 인해, 비 예보 때마다 벽이나 천장에 빗물이 스며들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수를 통해 누수 방지는 물론이고, 매일 집에 들어갈 때 보이는 지저분한 외벽이 새집같이 바뀔으로써 전보다 향상된 거주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는 주택 가치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 입주자 간 입주자회(비영리 단체) 구성 등을 통한 주민 간 소통 활성화다.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각 세대는 사업계획, 세대별 자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이렇게 함께 대화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그간 잘 알지 못했던 이웃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된다. 이는 이웃과 소통하는 계기, 사이좋은 이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긍정적인 면이 많은 사업이다. 군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있다. 덕분에 담당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FOCUS ON

센터소식

- 058 2020년도 정책연구 성과
- 060 2021년도 정책연구 소개
- 061 2014~2020 연구성과
- 062 센터소식

충청남도 경관·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지역 경관의 보존과 주변 환경에 대한 조화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지원계획이 필요해지고 있다. 경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 마다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계획 등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현황에 근거한 전반적인 경관 자원을 파악하는 선행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충청남도 경관 공공디자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 대한 경관의 기본 자료를 구축하고 시·군의 경관과 공공디자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 논산시 실태조사 대상지 및 현황(출처 : 2020충남 경관·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충청남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가이드라인 개발

공공건축물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지역 자산이나, 기존의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는 설계변경, 공기지연, 효율저하, 예산낭비, 활용성 및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공공건축사업에 대해 건축기획을 의무화하고 설계공모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나 발주기관 담당자가 건축기획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건축기획을 내실화하고, 계획내용 검토나 자문에 투입되는 노력과 시간을 절감하며, 공공의 가치에 적합한 품질과 품격을 갖춘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이드라인 전반부에는 ‘건축설계’와 구분되는 ‘건축기획’의 개념, 내용, 범위, 절차, 전략 등을 설명하였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건축 관련 제도를 소개하였다. 사업계획 수립 부분에서는 계획 분야를 8개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계획 항목의 정의 및 중요성, 작성요령 및 산출방법, 작성사례, 관련 규정,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자료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부록에는 공공건축사업 공사비 및 공사비 영향요인 분석 자료와 사업계획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다.

2021년도 정책연구 소개

충청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행복한 노후와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이 필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공공건축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연구를 토대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제정 방안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 시·군의 제도적 장치마련, 공모사업 추진방안 제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이다. 충청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도민이 나이, 신체크기, 국적, 장애, 능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여 공공재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

충청남도에서는 지역의 정체성 정립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관,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도적으로 “공공디자인팀”을 도에 구성하고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및 공공디자인아카데미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범죄예방디자인사업, 2020년에는 경관 협정시범사업 등 사업 유형과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낙후된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업을 추진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지금 사업의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곳은 없어 사업 효과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10년 이상 추진해왔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이 공간을 종합적 및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충청남도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방안

충청남도에서는 공공기관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디자인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역 건축물과 공간 환경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단계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주요 역할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이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으나, 공공건축사업의 각 단계별 역할, 사업의 특성에 따른 주요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지침이나 운영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제1기 충청남도 공공건축 민간전문가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충청남도 공공건축 사업의 유형별 추진과정 특성 및 문제점 분석,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2020 연구성과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충청남도 경관·공공디자인 실태조사충청남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가이드라인 개발[현안과제]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운영 매뉴얼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충청남도 농촌마을범죄예방 디자인 추진방안고령화 사회의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조사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발전방안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충청남도 관광안내 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충청남도 해안경관 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충청남도 문화재 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현안과제] 충청남도 정책홍보 방안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충청남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방안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방안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전략과제] 충청남도 경관기록화사업 추진방안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충청남도 경관심의 개선 및 운영방안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충청남도 홍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충청남도 공사용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충청남도 경관, 공공디자인 실태조사[전략과제]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시스템 개발 연구

‘디자인관리 자문단’ 구성·운영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충남도에서 공모한 공공디자인 사업 12개를 대상으로 ‘디자인관리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관리 자문단은 올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고, 현재 건축, 조경, 공간, (산업·시각)디자인 분야 전문가 14명과 디자인센터 2명 등 총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각 사업별로 3~4인의 맞춤형 전문가를 구성해 사업 추진방향, 기본계획, 실시설계, 시공,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단계별 자문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총12개로 총 사업비 약45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공주·보령·아산·서산·당진·홍성 등 6개 시군에서 공공디자인사업 5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3개, 경관협정시범사업 1개, 지역현안사업 3개 등이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수행

지난 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승인 받은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 충청남도 와 15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추정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 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검 토는 사업계획의 내용과 범위를 객관적, 독립적으로 검토 함으로써 사업목표 및 전략 수립, 설계 및 시공방식 결정, 유지관리 방안 설정, 예산 실행 등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 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웹 기반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접수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과의 심 도 있는 협의단계를 거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센 터의 이러한 운영시스템은 사업기획의 내실을 기하고 검 토결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이해도를 높이며, 향후 추진방 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공공건축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72 건의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였다.



국내 정책동향

066 중앙부처
076 광역지방자치단체
105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중앙부처

건축 및 도시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6차 선도사업지 4곳 선정·발표

2020. 12. 02.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6차 선도사업’ 대상으로 총 4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업 공공건축물의 평균 사용연수는 40년으로, 주변 개발여건·지역주민의 개발수요·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도 안산시 : 기존 어린이집 및 나대지로 방치된 인접 부지에 ‘여성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한 커뮤니티 시설로 리뉴얼 추진, ② 대구 수성구 : 기존 청사의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친화적 시설을 복합하여 지역 내 거점 장소로 활용하도록 추진, ③ 대전 중구 : 시설 노후화(52년 경과), 특정 계층(청소년)에 집중된 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시설 및 수익시설을 복합화하여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 건축물로 조성 추진, ④ 충남 부여군 : 청사 인근 나대지에 군 의회 청사를 신축하여 사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해 문화·복지시설도 함께 배치 추진

▼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결과

구분	선도사업 대상	위치	경과연수
1	복합커뮤니티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6-1	24년
2	수성구 청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42년
3	청소년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88번길 9	52년
4	부여군 청사	충청남도 부여군 사비로 33	42년

국토교통부, 「2020 도시재생 혁신스타」 선정

2020. 12. 09.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역량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청년 혁신스타」 최종보고대회를 개최하고 5개 창업팀을 혁신스타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5개 팀은 성수 미술관(드로잉 카페 운영), 참새방앗간(수제 맥주 양조장 등 운영), 티구시포(공유 오피스 운영), 열정거북 협동조합(지역 문화기획자에게 마케팅 등 설루션 제공), 스타트립(한류 관련 여행 플랫폼)이다. 대상을 받은 성수 미술관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뛰어난 실행력은 물론이고, 사회적 가치 및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높고 매출 상승 등 실제 성과를 올린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 성수미술관 드로잉 카페 운영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증평군 방치 건축물 도시재생 연계 생활SOC 조성

2020. 12. 13.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5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 건축물은 정비

사업계획에 따라 대지면적 2,000㎡에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SOC 시설 및 행복주택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저층부에는 작은 도서관, 노인교실, 다목적실 등을, 상층부에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배치할 계획이다.

▼ 행복주택 현재 외부모습 및 예상 조감도



국토교통부,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 전면 개정

2020. 12. 16. | 국토교통부 | 도로건설과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① 고령 운전자보다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구조 등 개선, ② 고령 보행자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한 고령 친화형 도로시설물 설치 등이다.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첫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광명시립철산어린이집 준공

2020. 12. 17.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첫 결실을 맺었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와 함께 완성한 시립철산어린이집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시립철산어린이집에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단열 보강, 로이복층유리 창호 시공, 콘덴싱 보일러 및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사업 이전과 비교해 1차 에너지 소요량 및 냉난방비 감소로 연간 52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로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등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외부 비상계단을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노후 놀

이기구와 조명 등을 교체하여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전·후 모습



국토교통부, 제1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고양 성사 사업」 본격 추진

2020. 12. 20.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경제과

국토교통부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시행계 획인가를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 성사 사업」은 공공주도의 「도시재생리츠 사업」으로 추진된다.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그린 뉴딜에 부합하도록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지역에 부족한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연면적 중 약 27%에 기업지원시설을 조성하게 되는데, 성라공원 등 조망이 우수한 동남쪽 우측에 시설을 배치하여 쾌적한 기업 입주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물식 공영 및 부설주차장,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판매시설, 공공행정·생활SOC,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임대·분양주택 등도 건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고층형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시범사업 3개 단지 착공

2020. 12. 20.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과천 지식’·‘남양 뉴타운’·‘인천 검단’ 3개 단지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5등급)’을 획득하고, 착공도 연내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공공주택의 층수·유형·규모별 에너지 성능 비교를 위해 3개 단지를 선정·추진하였다. 기획·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단지 배치’, ‘가성비 중심 최적 기술 요소 조합’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확보에 집중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가 공사비를 기존 시범사업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절감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향후 민간 공동주택단지 보급·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2020년 제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의결

2020. 12. 21.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정책과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제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선정하였다. 이번 선정으로 2025년까지 47곳의 사업지에서 총 322만㎡의 쇠퇴지역을 재생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주차장·문화시설 등의 ‘생활SOC’, 로컬푸드 판매 및 청년 창업 공간 등의 ‘산업·창업 지원시설’이 공급되며, 마중물 사업 기준으로 1.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 등의 ‘소규모 주택 정비’를 포함한 ‘주택 공급’과 ‘빈집 정비 및 집수리’를 진행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7곳 중 45곳에 ‘제로에너지 건축’ 또는 ‘그린리모델링’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 재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BIM 지원센터」 개소

2020. 12. 22.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BIM 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2020 건축 BIM 어워드」를 개최하였다. 「공동주택 BIM 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LH 공동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시공사를 대상으로 연중 BIM 교육을 시행하고, BIM 추진기반이 부족

한 중소 설계·시공사를 대상으로 BIM 컨설팅 및 데이터베이스 무료 개방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친다. 2021년 처음으로 개최된 「2020 건축 BIM 어워드」는 BIM 활용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BIM 관련 기술과 성과를 공유하고, 건축 분야에서의 BIM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추진

2021. 01. 03.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 도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 탄소 저감(CO₂) 50%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된다. 대상지인 수원 당수2지구는 고속도로 및 철도와 근접하여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자연 여건과 인접해 있는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지니고 있다. 2025년까지 주택 5,000호도 조성할 계획이며,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수열·지열 등 다양한 신 재생에너지를 도입한다. 또한 도시 패시브 요소와 도시에너지 관리시스템, 주택 난방·급탕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 등 미래기술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확산 도모하는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 01. 28.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및 6개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역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그린리모델링의 당위성을 알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기존 설계 관행 탈피,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

2021. 01. 31.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건축혁신지원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 협의체’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시재생 등 상징성·파급력이 큰 5개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참여, 건축계획 사전검토, 건축물 설계 분리발주 및 설계 의도 구현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시범사업에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어촌뉴딜 300 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디자인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현황, 개선방안 적용 사례 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 조직(TF) 발족

2021. 02. 02.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혁신을 위한 전담 기구’를 발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1년 전담 기구에서는 주기적 정례회의를 통해 ZEB와 관련하여 도전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전담 기구 발족으로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녹색건축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2023년 ZEB 공공건축물 확대 적용 및 2025년 민간건축물 적용에 대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제3차 건축 정책 기본 계획」 확정

2021. 02. 16.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국민이 원하는 건축 정책을 발굴하였다. 한편 「건축 정책 기본 계획」 수립과정 최초로 「대국민 건축 정

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는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 비전 및 3대 목표



국토교통부, 「사람 중심 도로설계 지침」 제정… 안전한 보행·운전 환경 조성

2021. 02. 18.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개발과

국토교통부가 사람의 안전과 편의가 강화된 「도로설계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도시지역 도로에서 ▲저속 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 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도심에서 차량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 향상, ②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③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④ 고령자의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을 제정 등이다.

국토교통부, 21년간 방치된 전라북도 무주군 숙박시설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

2021. 03. 02.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가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무주군 숙박시설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하여 설계에 착수한다. 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무주군 숙박시설은 2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무주 관광숙박시설 선도사업계획」은 지역 내 부족한 고령자 복지 공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심리상담, 물리치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 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존 숙박시설의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 기간 및 공사비용을 줄이는 한편,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무주 장기방치건축물 현재 모습과 변경될 복합시설 조감도



지방자치단체-민간전문가 맞손… 공공건축으로 지역 경관 품질 높인다

2021. 04. 01.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가 손잡고 고품격 지역경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약 1년간 예산 지원과 함께,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 모니터링, 관련 정보 제공 등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선도모델 도출, 「공공건축가 운영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국토 균형발전 선도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2021. 04. 07. | 국토교통부 | 복합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광역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는 한편,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하여 총 22개 시·군으로 확대하였다. 이번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가 최근 새로운 국토 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진주시 등 3곳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선정

2021. 04. 15.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남도 진주시 등 3곳의 사업을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30년간 방치되어온 구) 영남 백화점 건물(안전등급 D)을 철거하고 진주시의 거점 아동복지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② 경상북도 청도군 도시재생사업

1972년에 준공된 노후 공용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여 다양한 주민 소통 공간 및 공용주차장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생활SOC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③ 경기도 여주시 도시재생사업

1985년에 지어진 시민회관(안전등급 D)을 그린리모델링하고 생활SOC 시설을 증축하여 ‘시민아울센터’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5곳 선정

2021. 04. 20. | 국토교통부 | 도심재생과

국토교통부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5곳을 최종 선정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해 온 사업으로 사업지 당 최대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소방, 생활·복지, 에너지·환경,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와 관련한 지역내 현안도 ‘스마트서비스’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소규모 건축물도 신청 가능 -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1. 04. 26.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건축물 에너지 인증’ 적용대상 완화, ② ZEB 인증기관 확대 기반 마련, ③ ‘건축물 에너지 인증’ 운영기관 업무 확대, ④ ‘건축물 에너지 인증위원회’ 통합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민들이 만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5곳 지정

2021. 01. 07.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2차 문화도시로 총 5곳을 지정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지원

한다. 이번에 ‘제2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직접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문화거점을 기획하고 문화도시를 구상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음악이라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뮤직 게더링’과 ‘디지털 뮤직랩’을 통한 ‘음악도시 부평’의 브랜드를 형성했다. ② 강원도 춘천시는 ‘마을에서 10분 안에 만나는 문화예술 활동, 10분 안에 연결되는 문화예술공간’을 목표로 도시 어디에서든 10분 안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위해 마을 모임 거점을 늘리기로 했다. ③ 강원도 강릉시는 시민이 직접 사업을 설계해 실행하는 자율예산제 ‘작당모의’를 통해 시민 주체를 발굴하는 한편, 다양한 연구 모임을 통해 지역브랜드, 관광 상품, 지역 음식 등 유무형의 지역 특화 콘텐츠를 만들어냈다. ④ 전라북도 완주군은 ‘시민문화 배심원단’, ‘문화현장 주민기획단’을 통해, 사업 대상,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⑤ 경상남도 김해시는 ‘도시가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잊혀 가는 도시의 역사를 기록하고,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 창조력 강화 위해 「문화도시」 공모

2021. 03. 11.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2021년에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사업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경관 및 공공공간

국민들이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 실내정원·유기적 공간 연결 돋보이는 「대구연호 A3」

2020. 12. 10.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관리과

국토교통부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최우수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대전은 다양한 수요계층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을 치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대안을 찾고자 ‘새로운 일상 머물고 싶은 H.O.U.S.E.’라는 주제로 추진되었다. 최우수작인 「대구연호 A3」는 주변과의 조화와 관계성이 돋보이는 단지 구조, 다양한 편의시설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외부공간의 ‘입체적 데크’ 계획, 안전한 ‘집콕’ 생활을 위한 실내정원·가변형 공간체계 등 새로운 일상이 요구하는 공간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대구연호 A3(국가건축위원회장상)·(주)한빛 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발표

2020. 12. 22. | 국토교통부 | 국토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제30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제안한 후보지를 「도심융합특구」 사업부지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역 주도-중앙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도청 이전지 일원

경상북도도청 이전 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로부터

부지를 매입 중인 국·공유지로 「대구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광주광역시 : 상무지구 일원

개발 가능한 대규모 유휴부지의 절반 정도를 시와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어 신속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가능하며, 부지면적도 충분하여 「광주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동·남해안 명품 관광거점 조성

2021. 01. 12.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 등 4개 신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은 2022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

‘전라남도 고흥~경상남도 거제’ 간 대표적인 전망대 3개소(고흥, 여수, 통영)에 총 118억 원을 투입하여 전망시설을 조성하고 주민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부대사업으로 남해안을 여행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소규모 전망쉼터, 가드레일 개선, 버스정류장 특화 등을 추진하여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②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남해대교가 창선·삼천포 대교와 노량대교의 개통으로 교량 기능이 다함에 따라, 총 190억 원을 투입하여 신개념 문화 관광 교량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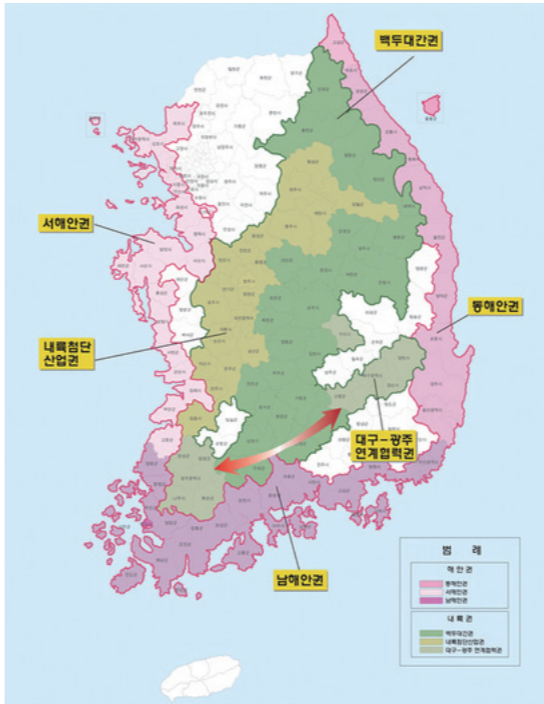
③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

섬진강휴게소 주변에 총 180억 원을 투입하여 하이패스 IC, 남해안 특판장, 환승주차장, 공유 자전거 대여소, 영호남 스토리움,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복합형 휴게소로 탈바꿈하고, 또한 ‘남해안 광역 시티투어’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④ 백두대간 문화 철도역 연계협력 사업

태백시와 정선시의 6개 역사를 중심으로 총 193억 원을 투입하여 각 역이 지닌 스토리와 문화자원,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폐광지역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이미지를 쇄신한다.

▼ 6개권역 발전종합계획



「스마트 복합쉼터」로 도로 이용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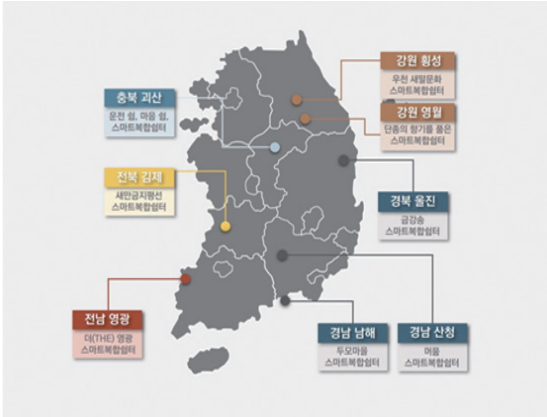
2021. 03. 01. | 국토교통부 | 도로관리과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전국 8개소에서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사업은 1개소 당 약 30억 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해, 국책연구원, 학계 등 전문기관 협업하여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 산청 머뭄 스마트복합쉼터



▼ 2021년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신규 선정 결과



옛 중앙선 열차가 떠난 곳… 관광·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2021. 03. 08. | 국토교통부 | 철도운영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존 중앙선 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앙선 청량리~안동’ 구간을 오가는 KTX가 개통되면서 옛 기능을 상실한 기존선 구간 역사 및 부지 등에 대한 구체적 개발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단양군은 풍경 열차, 레일바이크 등의 관광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통해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안동시와 강원도 원주시도 기존 역 주변 도심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 단양군 개발 조감도



마을만들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사례집 발간

2021.04.22.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역량과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사례집 : 모두가 행복한 그곳」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모두 7곳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태백시 통리 게스트하우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 들어 폐업한 숙박시설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재탄생한 숙박시설이다. 조례로 숙박비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용객을 유치하는 한편, 무상임대료 운영자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 금천구 금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공동부엌과 카페, 취미활동 어린이 돌봄 공간, 주민 교육장 등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도시재생사업」 초기에 시설을 완공하여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조기에 확보하였다는 점이 돋보였다.

경상북도 영주시 할매 목공장



목과 두부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시설로, 지역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참여하고 역량을 키워 운영하고 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에 선정되었다.

대구광역시 서구 회망공작소




20여 년 전에 폐쇄되어 방치된 수도 가압장을 허물고 신축한 공동이용시설로, 주민들을 위한 공방으로 이용되고 있다. 목공 교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공작소가 지역사회를 위한 주민 활동의 거점이 된다는 점에서 우수 사례에 포함되었다.

부산광역시 서구 마을빨래방



주거환경이 불편한 고지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립된 마을 공동 세탁공간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동된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주민협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제주도 김영수 도서관



50여 년 된 초등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낮에는 학교 도서관으로 저녁과 주말에는 마을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민의 생활환경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 그리고 많은 주민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 순천 창작예술촌



순천 원도심에 조성된 시설들로, 3곳의 전문예술인 거점 스튜디오(1~3호)와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4호)로 구성되어 있다.(사진은 4호 장안 창작마당) 전문 예술인부터 주민까지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조성·운영한 점이 좋게 평가받았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인 사례라는 평도 받았다.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청년마을’12곳에 조성된다

2021. 04. 18. | 행정안전부 | 주민참여협업과

행정안전부는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하여, 경상북도 영덕군을 포함한 1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마을은 마을별로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역의 유휴공간을 직접 리모델링하여 거주, 창업,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키게 된다. 또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공간,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12개 마을과 기존에 조성된 청년마을 3곳(전남 목포, 충남 서천, 경상북도 문경)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청년마을 12곳 선정지역 및 사업주요내용

선정지역	사업 주요내용
부산	동구(초량동)소별(주)공공플랜[소통으로 길을 연결하는 이바구 마을]·이바구마을(도시민박존)을 거점으로 지역자원(빈집, 공유공간 등)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창업창직 지원
인천	강화군(강화읍)소별협동조합 청풍[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마을의 주인 Local Master] 청년과 지역주민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협력의 경험을 나누고 응원하는 공동체 방식의 삶 모색
울산	울주군(상북면)발효문화(주)[마음과 몸, 꿈을 발효하는 365 醱酵마을] 지역 내 발효식품(장류·김치·술·요거트 등) 장인에게 제 조법을 배워 제품 개발 및 발효 식당·마켓·카페 창업 지원
강원	강릉(대단지 말고, 이주해 와서 살자) 중앙동 일대의 청년 창업가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청년들에게 기술멘토링을 실시하는 창업공동체 형성
충북	괴산군(감물면)소별(주)뽕하농[뽕하는 농부들, 뽕하농] 농업이론 교육, 다양한 농업실습, 청년농업인 멘토링 등 농업경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청년귀농인 정착 지원

선정지역	사업 주요내용
충남	청양군(청양읍)소별청년협동조합 청양사람[청양의 맛있는 동네, 청·맛·동] 청년들의 독특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청양의 지역 자원(고추·구기자·멜론 등)을 활용한 지역상품 제작·판매
	공주시(중학동)소별(주)퍼즐랩[청년이 디자인하고 제안하는 High-end Local] 백제 및 근대문화 유산을 간직한 공주 원도심에 정착한 청년팀의 사례를 전수하여 창업 활동 지원
전북	완주군(고산면)소별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청년을 환대하는 지역, 지역에서 완주하는 청년] 사람과 일, 정보가 오가는 비발언덕중개사무소를 통해 상생창업, 공간모색, 지역·청년 교류 등 정착지원
전남	신안군(안좌면)소별스픽스[노두(섬과 섬을 잇는) 마을] 아름다운 섬과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 정책 지원
경북	영덕군(영해면)소별(주)메이드인피플[천천히 걸어가고 싶은 청년들의 터전, 뚜벅이 마을] 영덕 블루로드(트래킹 코스)와 영해면 근대문화 역사거리를 중심으로 걷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트레킹 마을 조성
	상주시(남원동)소별무양주택 외 8개업체[우리처럼 살 수 있어요, 이인삼각 로컬러닝메이트] 남원동에 정착한 청년창업자들이 지역 경험과 경제적 자립 경험을 밑작 코칭하여 안정적 정착 지원
경남	거제시(장승포동)소별(주)공유를위한창조[청년들의 아ют도어 라이프가 있는 아ют도어 아일랜드] 목공을 좋아하는 마케터, 캠핑을 즐기는 기획자, 서핑을 사랑하는 공간운영자 등이 모여 아ют도어 비즈니스 창출

청년마을기업과 제로 플라스틱 카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다

2021. 05. 04. | 행정안전부 | 지역공동체과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기업 ‘문화공작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제로 플라스틱 카페 ‘자양분’이 지역사회에서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공작소’는 영상 제작, 인쇄 디자인, 행사기획 및 대행 등의 문화콘텐츠 사업을 기반으로 201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청년마을기업에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이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소재 제로 플라스틱 카페 ‘자양분’은 환경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개점하였다. 카페 안에는 다양한 플라스틱을 분류하는 ‘플라스틱 정류장’과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한 줌 상점’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1 마을, 1 마을기업’ 육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 만든다

2021. 05. 12. | 행정안전부 | 지역공동체과

행정안전부는 제8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마을기업 활성화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 마을, 1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①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② 마을기업 발굴 및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모, ③ 「마을기업 육성지원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불법광고물 정비로 옥외광고 발전에 기여한 기관 11곳과 개인 12명 선정

2020. 12. 30.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행정안전부가 불법 광고물 정비로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기관 11곳과 개인 12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기 파주시는 매월 집중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를 정해, 주요 도로변과 상가 등 2,726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다. 특히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옥외광고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광고물 설치 및 관리현황을 수시로 점검했다. 또한 파주시 누리집에 관내 소상공인 업소 홍보 내용을 무료로 게시하여 광고비용 절감은 물론, 불법광고물 방지도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기관 중 부산광역시시는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안내 시스템을 16개 구·군이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줄이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옥외광고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21. 04. 27.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①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②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③책임보험 보상한도, ④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 사업자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혹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건축 및 도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희망지’ 6곳 선정… 지원금 최대 1억 8천 만원으로 확대

2020.12.03.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가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역 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동대문구 용신동, 종량구 면목본동, 관악구 대학동, 도봉구 도봉1동, 강서구 화곡2동, 중구 다산동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특히 강서구 화곡2동은 초기 공동체 발굴·형성단계로 주민들의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으며, 관악구 대학동은 노후 주거지역과 상권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민 모임 확장성 및 거점 공간 활용성이 높아 향후 다양한 후속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 북촌 등 9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2020.12.28.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서울특별시는 종로구와 성북구 한옥 밀집지역 9개 구역에 대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 고시하였다. 금번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신설된 법에 근거해, 구역 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의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완화된 견폐율, 주차장 설치기준 등 건축 특례가 가능하다. 또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됨에 따라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 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온라인 건축문화제」 9만 명 이상 다녀가… 「건축공로상」 비대면 시상

2020.12.31.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문화행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특별시 최초 온라인 건축문화제」 개최 등 건축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해온 성과를 돌아보며, 서울특별시 건축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건축가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건축공로상」을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서울건축문화제 공식 홈페이지(www.saf.kr)를 통한 최초의 서울건축문화제 온라인 행사에는 현재 방문자 수가 9만 이상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특별시 건축상」 온라인 전시에 대한 호응이 가장 높다. 건축물 설계자와 다른 수상작 설계자가 인터뷰 형식으로 건축물 현장과 설계과정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영상 콘텐츠가 흥미로운 볼거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서울건축문화제 주제인 ‘틈새 건축(Architecture in Between)’에도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건축문화제를 총괄·기획한 송규만 총감독은 “‘건축’은 어려운 전문분야이기 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일상들을 공간으로 담아내며, 크고 작은 예술성으로 감동을 전달하는 ‘문화’로서 알기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강조해왔다. 한편 서울특별시에서는 매년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www.서울아름다운건물찾기.kr)」과 「한강 건축 상상전(www.hangangriver.kr)」을 운영 중이며, 서울건축문화제 홈페이지와 함께 개별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심 있는 누구나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도록하고 있다. 또한 「2020 서울건축문화제」 연계 전시로 진행된 「사회적 건축, 포스트 코로나」와 「도시건축혁신전」, 「서울, 건축 산책(서울특별시건축

사회)」도 계속해서 관람 가능하다. 이밖에도 전문가가 들려주는 건축 이야기 3편 ‘열린 강좌’와 도시 서울에서의 건축문화를 건축가와 다른 전문가가 함께 짚어보는 ‘건축가 대답’을 영상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 정보 총망라 ‘디지털 아카이브’ 전국 최초 구축

2021.01.18.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가 ‘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같은 도시·건축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업체뿐 아니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을 검토하는 심의위원, 업무 담당 공무원, 일반시민까지 도시·건축 분야 주체가 사용하는 자료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만든 ‘도시·건축 위원회 시스템’ 내에 구축돼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기준 및 매뉴얼, 지침 및 세부 기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 5가지 분야의 정보를 담고 있다.

▼도시·건축 디지털 아카이브



서울특별시, 24개 도시재생지역 사업 단계별 소식 한 곳에

2021.02.02.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는 해방촌, 목3동, 장위, 수유동 등 대표적인 24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현장 소식지를 한곳에 모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지역 소식지 모음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지역 소식지 모음집」은 사업 추진 단계별로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식지 모

음집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는 과정과 다양한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달라진 지역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 발간

2021.02.09.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금번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구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자책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환경의 쾌적성을 증진하며 시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 조례에 근거하여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을 지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건축 분야 용역 발주 현황 한눈에… 117억 원 규모 53개 발주

2021.02.15.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서울특별시가 도시재생실 및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공공개발 기획단, 도시공간 개선단 등 6개 실·국 본부의 용역사업을 총망라한 용역자료집을 공개한다. 이번에 발간한 용역자료집에는 6개 실·국 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용역의 세부 내용, 발주 시기, 사업예산 등이 담겨 있으며, 사업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제공된다. 이번 용역자료집 공개가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인해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높은 도시재생·건축 분야 용역에 사전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자료집 공개로 다양한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전 준비를 통해 더 우수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전국 최초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모두인> 오픈

2021.03.05.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들이 일자리를 찾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플랫폼 <서울 도시재생 모두인>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 도시재생 모두인>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부터 스펙 관리, 일자리 매칭, 채용 후 역량 강화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도시재생 인적자원 통합 지원 시스템이다. 서울특별시는 향후 <서울 도시재생 모두인>을 도시재생 성장 역량을 키우는 종합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며,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가 지원과 현장센터 매칭 기능도 더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 공모」 191개 당선 입상작 집대성 「모두의 아이디어」 출간

2021.03.25.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백서「모두의 아이디어: 건축 공모전」(부제: 프로젝트 서울 2016-2019)을 출간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공공건축 설계 공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설계 공모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은 2016년이다. 금번 출간된 책은 2016년 이후에 시행된 주요 설계 공모 39개의 당선 및 입상작 191개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1만여 건 조회 인기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주택 관련 협회로 전파

2021.04.20.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의「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2021년 2월 전자책을 게시한 이후 누적 조회 1만 건이 넘는 인기 전자책이 되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은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이재인 교수가 일반인들이 건축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포털사이트 지식백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가 편집 및 제작한 400여 페이지

분량의 책자이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서울특별시, 상봉동 일대 ‘新 사업모델 스마트 물순환 도시’ 입힌다

2021.05.17. | 서울특별시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서울특별시가 「스마트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중랑구를 선정했다. 중랑구 상봉동 일대가 불투수율, 유출 지하수 활용량, 현장 적응성, 물순환 회복 효과성, 시민 체감, 유지관리계획 등 모든 심사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사업은 2021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2022년에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제13회 서울 건축문화제」 9월 노들섬과 온라인에서 「온 앤 오프(On&Off)」로 열린다

2021.05.20.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가 「제13회 서울 건축문화제」를 9월 8일(수)~20일(월)까지 개최한다. 2021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존재했던 건축의 가치에 대해 온라인의 시선으로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온 앤 오프(On&Off)’를 주제로 선정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① 개막식, ② 「서울특별시 건축상」 시상식 및 전시, ③ 「나와 함께한 건축이야기」 시상식 및 전시, ④ 서울 건축문화포럼, ⑤ 2020년 건축상 대상 특별전, ⑥ UAUS(대학생 건축과 연합회) 전시, ⑦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의 스카이라인, 이렇게 바뀌 나간다!

2020.12.08. | 부산광역시 | 도시계획과

부산광역시의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 수립 용역」이 마무리된다. 2019년 6월부터 진행된 이번 용역은 주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상업지역의 초고층 개발사업 등으로 무너진 스카이라인(Sky Line·건물과 하늘이 만나는 지점을 연결한 선)을 다잡기 위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 수립을 목표로 수행해왔다.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 수립



부산광역시, 여춘뉴딜 정부 공모사업에 홍타·신전항 선정

2020.12.09. | 부산광역시 | 수산유통가공과

부산광역시는 「2021년도 여춘뉴딜 300 사업」 공모에 2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문화휴식공간 홍타민파크」(사하구)와 「신전항, 국제신도시를 품은 어촌으로 다시 태어나기」(강서구)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기반시설인 방파제와 물양장을 정비하는 한편,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을 정비하고, 홍타민 문화파크, 해양레저 마리나, 어촌 어울림마당 등을 조성해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문화휴식공간 홍타민 파크(사하구)



부산광역시 ‘1호 2호 국가산림문화자산’ 탄생!

2020.12.10. | 부산광역시 | 산림생태과

부산광역시는 괴정동 샘터공원 회화나무, 외양포 포대와 말길 등 2곳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1호로 국가산림문화자산이 된 괴정동 샘터공원 회화나무는 단물샘과 공동 빨래터를 아우르는 지역의 역사성, 그리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년 동안 주변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한 사하구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가덕도 외양포 포대와 말길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지만, 당시 석축 기술과 산길 개설 방법에 대한 보전·연구 가치가 매우 커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선정됐다.

▼샘터공원 회화나무



부산광역시, 「2020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곳 추가… 2020년 총 7곳 선정

2020.12.21.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산지역 4곳(총괄사업관리자 3곳, 도시재생 인정사업 1곳)이 「2020년 도시

재생 뉴딜사업」중앙 공모에 추가 선정됐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부산광역시는 2020년 총 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인 동구 좌천동(주거지지원형), 남구 문현동(일반근린형), 부산진구 범천동(주거지지원형), 그리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기장군 일광면이다.

▼ 부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현황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작의 벨을 울린다!!

2020.12.22. | 인천광역시 | 재생정책과

인천광역시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동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의 총 4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4개 사업은 빈집 등을 활용해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민과 상인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 정주환경 개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본격 착수

2020.12.23. | 인천광역시 | 주거재생과

인천광역시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온라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동인천역의 명성을 되찾고, 동인천역 일대를 20~30대 젊은이가 모이는 명실상부 원도심의 중심 시가지로 다시 ‘역전(逆轉)’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이다. 인천광역시와 NH는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역세권 상권 활성화, 자율정비기반 구축, 역사 문화적 가치 재조명, 도시재생 추진기반 구축 등 4가지 목표에 부합하면서 실행 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 총괄도



인천광역시, 지역 정체성 담은 건축자산 활용방안 찾는다

2020.12.30. | 인천광역시 | 건축계획과

인천광역시가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시행한다. 용역은 건축자산에 대한 점·선·면적 관리방안 수립, 지역 활성화 방안마련, 건축자산 상세 조사(기록화), 전문가와 시민참여 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며,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9년에 시행한 건축자산 기초조사에서 도출한 492개 건축자산의 구체적인 보전 방향과 이를 도시재생과 연결한 점·선·면 단위의 관리계획도 이번 용역에 포함된다.

인천광역시,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20년 이상 노후 주택 새로운 변신을 지원한다.

2021.02.07. | 인천광역시 | 고속도로재생과

인천광역시가 20년 이상 노후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사업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및 상가이며, 주택은 외부 경관 개선, 상가는 내·외부 개선을 진행하게 된다. 지원사업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도시재생 전문가, 건축 전문가, 주민협의체 분과장으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의 현장 조사, 신청서류 검토, 인천광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며, 2021년 4월부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인천 산업단지, 낮에는 비즈니스 공간, 밤에는 산업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021.03.11. | 인천광역시 | 산업진흥과

인천광역시는 「산업단지 산업문화공간 대개조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실행전략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뷰티 미용 및 소비재 제품 기업들을 연결한 소비재 브랜드 체험 공간 조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 조성, 생태문화 체험 공간 조성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하여 보고했다. 또한 승기 근린공원, 인력개발원 및 상공회의소,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부지를 활용한 복합 문화·예술·쇼핑 공간 조성, 남동 제1유수지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 남동 제2유수지를 활용한 산업역사박물관 조성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는 국내 외 산업단지 유사사례 분석과 적용방안 모색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더불어 마을 집수리 지원 사격!

2021.04.01. | 인천광역시 | 주거재생과

인천광역시가 「집수리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중구 전동웃터골, 부평구 하하골, 강화군 온수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2021년 5월부터 군·구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도시재생 전문가,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집수리지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집수리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모습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원도심 활성화 나서

2021.04.11. | 인천광역시 | 스마트도시담당관

인천광역시는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대상지로 남동구와 동구를 최종 선정했다. 남동구는 하촌로 일원에 ‘순찰형 스마트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주차비 결제, 입출차 서비스, 부정 주차 단속에 모바일앱, 키오스크,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동구는 ‘AI로봇을 통한 스마트한 지역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취약계층 아동 등에 AI(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어린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인천형 건축 도시디자인’ 대혁신 시동

2021.04.19. | 인천광역시 | 건축계획과

인천광역시가 「제1대 인천 총괄건축가 운영체제」를 출범한다. ‘총괄건축가’는 지속적이며 창의적인 건축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의 건축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 자료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각종 건축 관련 현안 사업들을 총괄 자문하면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 및 시 담당 공무원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 도시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2곳 선정

2021.04.22. | 인천광역시 | 재생정책과

인천광역시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중구 ‘개항 창조도시’ 지역의 스마트기술 사업에서는 공영 주차장 위치 및 주차 가능 대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주차장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주민과 방문객이 주차장을 찾아 배회하는 불편을 효과적으로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구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지역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등 보행 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이 도입되어 보행자 안전과 보행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위치



인천광역시, 「공공주도 3080+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2021.05.26. | 인천광역시 | 재생정책과

인천광역시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미추홀구, 부평구 2개 구 등 총 3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공공이 시행 주체가 되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유형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추진된다. 후보지는 기본적인 입지요건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인천광역시가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1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한 규제 완화,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원도심 근대건축물 ‘무영당’, ‘대지바’ 매입 보존
2020.12.22. | 대구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구광역시가 ‘무영당’과 ‘대지바’를 철거 직전에 극적으로 매입 성공해 이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 매입한 두 곳은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청년, 시민들이 즐겨 찾고 다양한 실험이 시도되는 생동감 있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을 계기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 매입을 계속하는 한편, 그간 진행해온 역사문화자산 보존과 관련된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 무영당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3개소 선정
2020.12.23. | 대구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구광역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가공모에 지역 내 3개 사업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대구광역시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신청한 ‘수성구 고산 어울림 센터’가 선정됐다. 또한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달서구의 「학이품은 본동, 이룩(26)하다.」, 북구의 「작은 목소리도 함께하는 관음(觀音)」 사업도 선정됐다.

대구광역시, 전수조사 완료하고 종합적 빈집정비계획 수립
2021.02.04. | 대구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구광역시가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빈집의 연차별 정비계획,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등 종합적인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광역시, 역사문화자산 보존·관리를 위한 시 차원의 제도화 본격 추진
2021.03.04. | 대구광역시 | 도시재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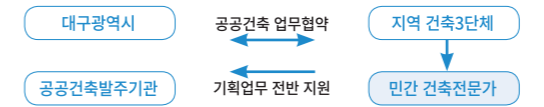
대구광역시는 역사문화자산 보존관리를 위한 시 차원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2020년 5월의 문화재청 전수조사와 연계해 1970년 이전에 축조된 비문화재 건조물 위주로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DB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구건축문화연합과 협조해 도시재생 아카이브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수집·정리된 정보들은 2021년 5월 중 ‘대구 3D 지도 포털’에 등록되며, 시민들이 3차원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사진, 도면, 건물 연혁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인허가 부서는 물론 시민, 민간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대구형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위해 공공건축지원체계 구축
2021.03.07. | 대구광역시 | 건축주택과

대구광역시가 ‘대구형 공공건축 JUMP UP 체계’를 구축하고 2021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구형 공공건축 JUMP UP 체계’는 공공건축의 수준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기획’ 과정에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하고 논의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대구형 공공건축 JUMP UP 체계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계획’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2021.04.06. | 대구광역시 | 스마트시티과

대구광역시가 ‘스마트도시 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확정 공고했다. 스마트도시 계획에는 ‘2021~2025년 대구형 스마트도시 모델 창출을 위한 스마트도시 비전과 추진전략’ 6개 중점분야, 26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담겨 있다.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스마트 대구(비전)을 위해 시민 공감, 기업 상생, 공간 혁신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체감형 서비스 구축, 시민참여 확대, 비즈니스 모델 창출, 첨단산업 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 공간배치 혁신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대구광역시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선정
2021.05.05. | 대구광역시 | 민생경제과

대구광역시는 「2021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달서구 「회춘」 젊음을 이어가다, 두류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달서구의 사업은 골목상권 가로환경 개선 및 방역시스템 구축 등 낙후된 상권의 인프라를 적극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골목상권 운영 지원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구축, 골목상권 발전 컨설팅,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역량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골목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선정된 ‘회춘’ 젊음을 이어가다, 두류먹거리타운 조성사업



광주광역시,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시민이 만든다
2021.01.10. | 광주광역시 | 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는 2040년 광주의 미래상과 계획 목표를 설정하는 ‘시민참여 기획단’과 함께 ‘2040 광주 플랜’ 홈페이지에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주제는 20년 후 광주의 미래상, 공간구조, 생활권, 주거, 교통, 관광, 산업경제 등이다. ‘2040 광주 플랜’ 홈페이지에서는 ‘시민참여 기획단’이 시민 눈높이로 담은 도시계획의 시기별, 단계별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광주광역시, 빈집 정비 ‘박차’

2021.02.04. | 광주광역시 | 도시정비과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위해성 등을 조사해 철거대상 등의 4등급으로 분류하고, 빈집정비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행 방법과 시기 등 연차별 시행계획을 구체화 한다.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자치구와 함께 관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2등급 주택은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청년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또한 3등급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고, 4등급 주택은 철거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사업」 공모 선정

2021.02.05. | 광주광역시 | 문화기반조성과

광주광역시는 「스마트 공립박물관 구축사업」 공모에 ‘인공지능 도슨트 로봇 시스템’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에 인공지능 도슨트 로봇을 활용한 전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 도슨트 로봇은 인공지능 자연인식 및 심층 기계학습을 통한 관람객에는 맞춤형 전시해설 기능을 탑재하고, 조명 연동형 화면, 무선 이어폰, 배터리 교환시스템을 적용해 기존에 서비스해 왔던 전시 안내 로봇의 한계가 보완됐다. 또한 도슨트 로봇을 이용한 관람객 동행 전시해설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2020년 도시재생백서·소식지 발간

2021.02.28. | 광주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광주광역시가 「2020년 광주 도시재생백서」와 「2020 광주 도시재생 소식지 모음집」을 발간했다. 두 번째로 발간된 이번 도시재생백서에는 광주광역시 1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 곳에 담았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을 통한 재정투입으로 가시적 사업효과를 보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점에서, 백서를 통해 그 변화상과 효과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간하게 됐다. 한편 2021년 첫 발간인 「소식지 모음집」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소식지

를 발행 중인 12곳의 소식지 45권을 한데 모아 엮은 결과물이다.

광주광역시,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 탄력

2021.03.01. | 광주광역시 | 문화도시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원을 흡수 통합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운영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콘텐츠 창·제작,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등을 위한 문화발전소 역할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건립 순조

2021.03.18. | 광주광역시 | 문화기반조성과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설은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미디어 관련 자료와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공간, 연구와 창작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 공간, 회의와 교육, 세미나 등을 위한 컨벤션 및 세미나 공간 등 총체적 복합 미디어 예술 센터로 조성된다. 센터 전시 시스템은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홀로그램과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통해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감도



광주광역시, 시민 아이디어로 도시문제 해결한다

2021.03.28. | 광주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광주광역시가 「2021년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광주다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실행형’과 ‘구체화형’으로 구분해 제안받는다. 실행형은 활성화 지역 중 뉴딜 선정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거점 공간 운영 프로그램 기획, 도시재생지원센터 필요사업 기획 등의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또한 구체화형은 활성화 지역 중 뉴딜 선정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광주광역시, 시립점자도서관 건립한다

2021.04.11. | 광주광역시 | 문화기반조성과

광주광역시가 시립점자도서관을 건립한다. 시립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시각장애인복지관 인근 부지에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된다. 도서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도서가 비치된다. 또한 점자도서열람실, 점자 인쇄실, 제본실, 음성 녹음실,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다목적홀 등을 갖춘 공공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시립점자도서관 조감도



광주광역시, 광주다운 도시·건축 실현 위한 첫발 내디딘다

2021.05.06. | 광주광역시 | 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가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을 위한 매뉴얼을 발표하고, 광주다운 도시·건축 실현 방안을 밝혔다. 매뉴얼은 광주광역시가 수립 중이거나 수립하기로 한 도시 기본계획, 건축 기본계획, 경관 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안전관리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65개의 ‘법정·비법정계획’, ‘조례’, ‘지침’, ‘정책연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건축 선언이 추구하는 가치와 계획, 목표를 반영하였다. 총 10개 조문별로 계획 목표,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사업, 추진체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추진과제별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특히 추진부서와 일정을 명시해 이행 책임 주체와 로드맵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광주광역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선정

2021.05.13. | 광주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광주광역시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대상으로 광주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주광역시는 「광주역 일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스테이션 G’,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광역시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R&D 고도화 지원시설인 ‘복합허브센터’, 창업기업 성장(Scale-Up)과 선배 창업기업 연계 지원시설인 ‘기업혁신성장센터’, 사회적경제 기업 플랫폼과 문화복합공간인 ‘사회문화혁신센터’, 창업클러스터 근로자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에 문화적 가치를 입힌다

2020.12.14.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공공건축가 49명을 위촉하여 공공건축 전문성을 강화했다. 대전광역시와 각 구에서는 총 27건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총괄건축가와 2명의 수석 공공건축가의 추천 회의를 거쳐 각 공공사업별 특성에

맞는 30명의 공공건축가를 선정했다. 공공건축가들은 건축 기획 업무와 자문 활동을 적극 수행해 왔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는「제2시립도서관 건립」,「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의 대규모 사업과「생활형 SOC 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참여하여 사업기획, 디자인 관리방안 등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행정인력이 수행하던 기획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대전광역시, 대전산업단지 노후산단, ‘도시재생의 마중물’로 조성

2020.12.24. | 대전광역시 | 투자유치과

대전광역시와 LH공사는 2020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LH 전면매수 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상상허브」 공모 선정과 ‘활성화 구역 지정 승인’을 이끌어냈다. 또한 「대전산업단지 활성화 구역 및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추진하는「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노후 산단 재생사업」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대전광역시는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 국비를 확보하였고, LH공사는 복합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 조성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대전광역시, D·N·A 스마트도시 조성 청사진 내놔다

2021.05.03. | 대전광역시 | 스마트시티과

대전광역시가 「2021년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도시 대전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실행계획은 지능형 서비스 향유 도시, D.N.A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등 2개 전략, 8개 분야, 54개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은 ‘지능형 서비스 향유 도시 구현’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 신속하게 대응하는 안전, 스마트한 경제산업 활력 기반 쾌적하게 관리되는 환경, 모두에게 열려있는 행정 등 5개 분야, 36개 과제다. 두 번째 전략은 ‘D.N.A 기반 스마트 시티 조성’으로 데이터가 흐르는 도시, 촘촘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망 인공지능 기반 도시 등 3개 분야, 13개 과제이다.

▼ 2021년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도시 대전 조성 실행계획



대전광역시, 대전역 인근 문화재 조사와 기록화로 도시의 나이에 그려

2021.05.12. | 대전광역시 | 문화유산과

대전광역시가 「2021년 도시 기억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대전광역시는 2020년 「대전 역세권 재정비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된 동구 소재동 및 삼성동 일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021년에는 「도심 주거 융복합 사업」으로 전면적인 재개발이 예정된 일명 ‘대전역 쪽방촌’과 그 주변 역전시장과 철공소 거리를 기록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 개정으로 ‘공공건축가’ 위촉 운영

2020.12.31. | 울산광역시 | 건축주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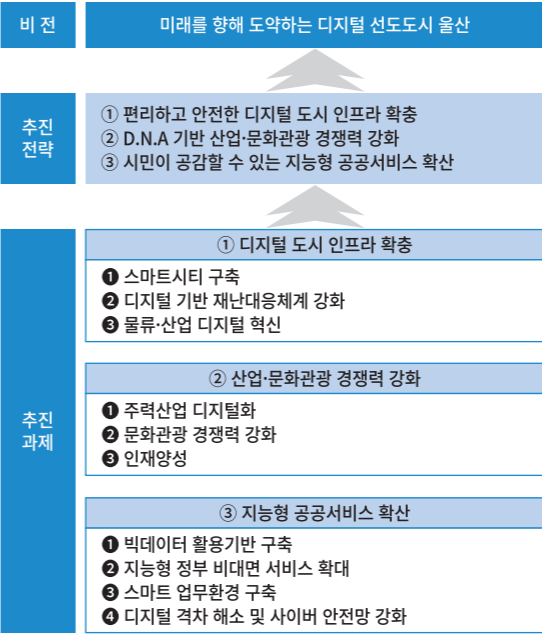
울산광역시가 「울산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를 개정해 2021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울산광역시는 모집을 통해 대학교수, 건축사 등 총 45명을 ‘제1기 울산광역시 공공건축가’로 위촉했다. 공공건축가들은 건축 도시 주요 공공사업 관련 기획업무에 참여하고 자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울산광역시는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질향상과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도시 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도시 인프라 확충 등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 추진

2021.03.09. | 울산광역시 | 정보화담당관

울산광역시가 「5지(G) 시대 디지털 전환 발전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디지털 선도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하는 이번 계획은 디지털 도시 인프라 확충, 산업·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등 3개 분야, 10개 과제, 35개(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 구축 등 신규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5지(G) 시대 디지털 전환 발전계획



울산광역시, 공공사업 민간 전문가 및 공공건축가 자문 실시

2021.03.18. | 울산광역시 |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가 「웅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첫 현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웅촌면 주민들을 위한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마을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마을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울산광역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마을 주민 및 공공건축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관련 주체들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해 유연하게 자문을 진행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조정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한편 향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 시 공공건축가 참여가 가점 항목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관 및 공공공간

서울특별시, 600여 곳 공유공간 망라 온라인 플랫폼 ‘공간이음’ 오픈

2020.12.01. | 서울특별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 담당관

서울특별시는 시내 600여 곳의 ‘공동체 공간’을 클릭만으로 한눈에 보고 검색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간이음’을 오픈했다. ‘공동체 공간’이란 동네 주민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운영하거나 일상을 영유하는 공유공간으로, 마을 활력소, 작은 도서관, 동아리방, 동네서점, 마을 공방, 공유 주방 등이 있다. ‘공간이음’에는 서울특별시가 2020년에 25개 자치구와 함께 조사 발굴한 민간·공공 공동체 공간 정보를 총망라해 담았다. 서울특별시는 공동체 공간 2천 개소 등록을 목표로 2021년 연말까지 공유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최초 장애인·비장애인 복합공간 ‘어울림 플라자’ 4년 만에 첫발

2020.12.09. |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는 「어울림 플라자 조성 사업」이 4년여 만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어울림 플라자’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미래 서울’이 실현되는 최초 공간이다. 장애인 특화시설인 장애인 연수시설 및 장애인 치과병원 등과 더불어,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연장, 수영장 등 다채로운 문화·복지·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3~4층에는 주차장이, 지하 1~2층

에는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홀, 체육센터, 공연장, 상가 등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된다. 또한 지상 1~2층에는 공연장과 상가, 사무실, 회의실이, 3층~4층에는 장애인 연수시설 및 기술 종합단지가, 5층에는 장애인 치과병원이 각각 입지한다.

▼어울림 플라자 조성 사업 조감도



서울특별시, 8년간 축구장 25개 규모 ‘마을마당’ 정비… 2021년도 18개소 녹색쉼터로

2021.03.18. | 서울특별시 | 푸른도시국 조경과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3년 ‘마을마당 정비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약 8년에 걸쳐 서울 전역의 187개소 ‘마을마당’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정비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낡아서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놀이 휴게시설(정자, 의자 등)·운동기구 등을 새로 정비하고, 나무를 심어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2021년도 10개 자치구 18개소 ‘마을마당’을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며, 4월~10월 중에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울로’ 5번째 공중 보행교 2021년 8월 열린다… 연결 건물에 쉼터 ‘도시 거실’

2021.03.22.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2022년 8월, 서울로7017에서 인근 건물로 바로 연결되는 다섯 번째 공중 보행교가 열린다. 연세 세브란스빌딩과 호텔 마누 사이에 있는 ‘역전주유소’ 자리에 들어설 신축건물과 서울로7017을 연결하는 ‘서울로 에너지플러스 길’이다. 신축되는 건물인 ‘에너지플러스’는 GS칼텍스의 기존 주유소를 철거한 자리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된다. 주유와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미래형 주유소인 ‘에너지플러스 허브’와 같은 모빌리티 인프라, 그리고 리테일, F&B 같은 라이프 서비스 콘텐츠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된다. 한편 공중 보행교는 서울로7017과 에너지플러스 건물 3층을 연결한다. 공중 보행교에서 바로 연결되는 실내 공공보행통로도 생길 예정이며, 건물을 관통해 건물 뒤편의 근린공원을 비롯한 주변 지역으로의 보행이 가능하다. 시민 휴식공간은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서울로 방문객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로와 남산공원 등 인근 공원의 녹지를 이어받는다는 개념의 ‘도시 거실’ 콘셉트로 조성된다.

▼건물전경 투시도



서울특별시, 25년 서울의 경관 3만 컷 ‘서울 경관 아카이브’ 앱으로도 본다

2021.03.24.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울특별시가 언택트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서울 경관의 기록’을 주제로 온라인 전시를 운영한다. 이번 여섯 번째 「경관 기록화사업」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관기록 대상을 도출하였고, 촬영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 드론을 도입하여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가진 5천여 장의 기록을 남겼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지난 25년간 누적된 기록물을 활용해 기획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주요 지점에서의 역사적 흐름을 기획한 ‘경관기록화 전시’, 25년간의 서울의 모습을 기록한 ‘경관 아카이브’, 서울특별시 경관 홍보 등의 ‘경관 이야기’로 구성된다.

▼서울 경관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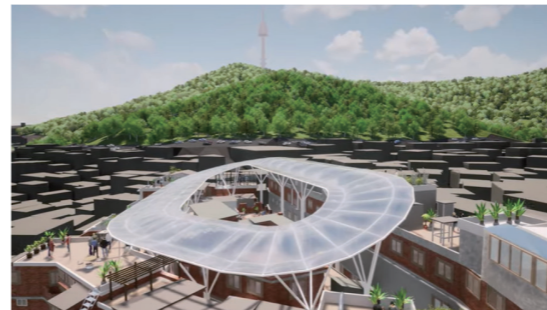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핫플 ‘해방촌 신흥시장’ 지역경제 이끄는 명소 부활… 도시재생 하반기 마무리

2021.03.29.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가 2015년 12월 해방촌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고 재생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신흥시장’을 지역상권 중심지로 부활시킨다. 서울특별시는 올 하반기까지 시장의 어둡고 칙칙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밤에도 환한 혁신적인 디자인의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이다. 오래된 공중화장실과 시장 도로는 깨끗하게 바꾸고, 경관조명도 설치해 미관을 개선한다. 배수·소방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CCTV를 새롭게 설치해 안전도 보강한다. 이벤트와 휴식공간도 조성한다.

▼해방촌 신흥시장 외부전경 조감도



서울특별시, 정동 ‘세실극장 옥상’ 역사 도심 조망 휴식 공간 재탄생… 4.1 개방

2021.04.01.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서울특별시가 대한성공회와 협력해 정동 세실극장 건물 옥상에 덕수궁과 근·현대 역사 장소를 조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 「‘세실마루’ 조성사업」은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이다. ‘세실마루’는 당초 접근이 제한되었던 세실극장 옥상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정동 일대의 다양한 역사명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근처 직장인들이 찾고 쉬어갈 수 있는 그늘막 및 의자, 녹지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성공회 성당 등 이 지역을 설명하는 안내판도 설치하였다. 한편 ‘세실마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국대사관 앞 도로에서 곧바로 탈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으며, 옥상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세실마루 옥상 전경 및 야경 그늘막 탁자 의자 안내판 사진



부산광역시 명소 8곳, 「제5회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

2021.01.29. | 부산광역시 | 관광진흥과

부산광역시의 명소 8곳이 「한국관광 100선」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곳은 ① 부산의 환상적인 해안 절경에 심취할 수 있는 ‘태종대’, ② 한국의 마추픽추로 불리는 ‘감천문화마을’, ③ 부산의 대표 관광지로 여름이면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해운대해수욕장’, ④ 영화 축제와 부산 구도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용두산 & 자갈치 관광특구’, ⑤ 바다 위를 걸어가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용궁 구름다리 & 송도해수욕장’, ⑥ 일몰이 아름다운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 다대포해수욕장’, ⑦ ‘바다’와 ‘경사지 마을’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 ‘흰여울 문화마을’, ⑧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송정해수욕장’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 명품 가로수길, 「녹색도시 우수사례」 최우수 선정

2021.02.08. | 부산광역시 | 산림생태과

부산광역시가 「2020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해운대 해변로 명품 가로수길」로 가로수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 해변로 중 우동항 사거리에서 동백사 거리에 이르는 왕복 구간에 지역 향토수종인 먼나무와 후박나무, 동백나무, 철쭉, 광나무, 송악 등 6종 3만 576주를 식재해 가로수길을 조성했다.

▼해운대 해변로 명품 가로수길



부산광역시, 자매·우호 도시와 랜드마크 상호 상징색 점등 행사 추진

2021.04.22. | 부산광역시 | 도시외교정책과

부산광역시가 ‘자매우호 도시 체결’을 기념해 「Lights On! Busan」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세계 주요 도시 랜드마크에 부산광역시의 상징색인 ‘블루(Blue)’ 라이트를 점등한다. 4월 22일 오کل랜드 ‘스카이 타워(Sky Tower)’를 시작으로 6월에는 가오슝 ‘아이허(愛河)’, 11월에는 월드 엑스포가 열리는 두바이의 ‘프레임(Frame)’, 12월에는 홋카이도 ‘삿포로 TV

타워’에 부산 상징색이 점등되며, 부산광역시는 광안대교, 영화의 전당, 부산타워에 자매도시 상징색을 점등함으로써 두 도시의 자매결연을 축하할 예정이다.

▼오کل랜드 스카이 타워



부산광역시, 드디어 베일을 벗다… 해운대수목원 임시 개방!

2021.05.17. | 부산광역시 | 산림생태과

부산광역시가 해운대수목원 일부 구간을 개방한다. 부산광역시는 해운대수목원 가운데 완공된 구간인 1단계 구역을 임시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 개방되는 공간은 치유의 숲과 주차장 등 약 13만 3천 평으로 숲에는 느티나무를 비롯한 634종의 수목 19만 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화장실과 정자, 의자 등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당나귀, 양, 염소 등에게 먹이 주기 체험이 가능한 작은 동물원도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해운대수목원 조감도



부산광역시가 먼저, 걷고 싶어 살고 싶은 ‘15분 생활권 도시’로

2021.05.19. | 부산광역시 | 걷기좋은부산추진단

부산광역시는 ‘15분 생활권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갈맷길 시즌 2’를 혁신적으로 추진한다. ‘갈맷길 시즌 2’는 4대 전략과 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갈맷길 혁신인프라 조성(천리 갈맷길, 갈맷길 안내센터), ②갈맷길 관광자원화(안심 관광 상품화, 홍보 프로모션), ③ 시민참여 보행문화 확산(걷기 캠페인 및 이벤트 운영, 갈맷길 서포터스 구성·운영), ④ 전략적 홍보(갈맷길 및 보행문화 매체 홍보, 유튜브, SNS 등 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갈맷길을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청라 커널웨이, 밤에도 아름다운 명소로 새 단장

2020.12.21. | 인천광역시 | 대변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커널웨이 문화 1, 2 공원 청라 라임로~커널로 왕복 구간에 대한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 주요 경관조명은 커널웨이 경계석 측면에 LED 조명 기구를 설치하여 수로를 비추는 수로 조명, 커널웨이 섬 구간에 인공 갈대 모양의 조명을 설치한 갈대 조명, 보도 교량인 ‘행복의 다리’ 구간에 ‘아트월’ 설치를 통한 조명 등으로 구성됐다.

▼청라 커널웨이 경관조명 개선



인천광역시, 송도 랜드마크 센트럴파크 새롭게 단장

2020.12.29. | 인천광역시 | 대변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센트럴파크 서쪽 ‘웨스트 보트

하우스’ 인근에 대한 3단계 정비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번 정비공사는 공원 내 이용 빈도가 낮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공원과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 인천광역시 경제청은 이번 센트럴파크 정비공사를 통해 ‘매력물’을 테마로 한 ‘옛지펀드’, 해수족욕장, 미디어월, 어린이 놀이터, 바닷분수, ‘미스터 터널’, 센트럴파크 횡단 교량 하부 공간 활성화를 위한 작가정원 및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차량 이용 방문객들을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였으며, 파고라, 선베드 등 다양한 휴게시설과 웨스트 보트하우스 주변 산책로(흙길) 등을 조성하였으며 식재를 완료했다. 이밖에 오래된 포장도로 교체, 안내판 정비, 야간경관 조명 설치 등 센트럴파크를 새롭게 가꾸기 위해 노력했다.

▼송도 랜드마크 센트럴파크



인천 바다색, 개항장 벽돌색을 아시나요? 인천광역시, 회색 이미지 벗고 ‘인천의 색을 입다’

2021.01.06.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과

인천광역시는 인천만의 통일된 디자인으로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원도심 골목골목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색과 빛을 적용한 다양한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가지의 인천색’을 개발하고,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을 추진해 원도심과 인천광역시의 대표 공간에 인천색을 입히고 있다. 둘째, 인천광역시 시청 내·외부 색채디자인, 인천e음버스 색채디자인, 학교 색채 컨설팅, 공공 우산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셋째, 보물 같은 섬이 많은 만큼 ‘풍경이 아름다운 섬 인천’이라는 경관 미래상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광역시, 'IFEZ 경관심의 업그레이드, 도시품격 UP!'

2021.02.01. | 인천광역시 | 도시디자인단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IFEZ 경관심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의 경관심의를 할 때, 도시경관 관리목표가 설정된 ‘경관계획’과 연계한 검토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매뉴얼은 IFEZ 경관계획 체계와 도시개발 특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나 설계자가 경관심의를 이행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경관 관리 목표를 지향하는 일관된 심의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인천광역시, 시민참여로 원도심에 희망 불어넣는다

2021.02.02. | 인천광역시 | 주거재생과

인천광역시는 ‘희망지 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형 도시재생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희망지 사업」은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문 사회 경제적 기반을 보유한 지원단체를 주민 모임과 연계하여 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2021년 도시숲 45개소 10만 5천㎡ 조성

2021.03.04. | 인천광역시 | 녹지정책과

인천광역시는 「2021년도 생활권 도시숲 확충사업」으로 제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 숲 등 45개소에 도시숲을 조성한다. 상반기 중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 명상 숲을 조성 완료할 계획이며, 도시 바람길 숲, 스마트 가든 등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보다 나은 녹색도시 환경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 제3경인고속도로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조감도



인천광역시,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

2021.03.31.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과

인천광역시가 「2021년도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21년는 강화의 역사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명소를 만들고 있으며, 동구(송림6동 깨끗한 담 만들기 주민참여, 송림고가 하부 디자인), 미추홀구(인천대로 하부), 연수구(컨벤시아교, 선학 지하차도), 남동구(장승백이 시장, 인천대공원역), 부평구(하정초, 부개고가교), 강화군(초지대교 야간경관)등을 반영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수봉공원 송신탑(1단계)



인천광역시, 석남 녹지에 '탄소 중립의 숲 조성'

2021.04.30. | 인천광역시 | 녹지정책과

인천광역시가 ‘탄소중립의 숲’ 조성 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탄소 중립의 숲’이 조성되는 석남 녹지는 완충녹지로, 4단계에 거쳐 조성이 추진돼 시민들의 여가 공간이자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이곳에 2022년까지 도시 바람길 확산 숲,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으로 녹음을 더할 예정이며,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숲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IFEZ, 아트센터 인천 통해 글로벌 문화 예술도시로 도약'

2021.05.19. | 인천광역시 | 아트센터인천운영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아트센터 인천’을 통해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아트센터 인천’은 지난 2018년 11월 공식 개관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콘서트홀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1,727석을 갖추고 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아트센터 2단계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글로벌 도시 IFEZ와 인천 만들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의 콘서트홀에 이어 대공연장과 뮤지엄까지 들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해지고, 전시시설까지 갖추게 된다.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트센터 인천



인천광역시, 생명력이 넘치는 '갯벌 정원 세어도'

2021.05.23. | 인천광역시 | 도서지원과

인천광역시는 「인천 갯벌정원 세어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세어도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을 하나로 연계하여 ‘3대 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어도 발전계획은 「어촌뉴딜 300 사업」을 기본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어업환경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어도항 환경정비, 섬 자원을 활용한 환경정비 및 정주 여건 개선, 주민 공동체 회복 및 갯벌정원 세어도 장소마케팅 등 3대 전략을 주축으로 진행하게 된다.

대구광역시, 옥상 녹지공간 확충 「2021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 시행

2021.01.27. | 대구광역시 | 산림녹지과

대구광역시가 「2021년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을 시행한다. 2020년까지 축구장 18개 정도 크기인 총 822곳의 옥상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 공공부문 7곳, 민간부문 30곳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공부문에서는 환경부 공모사업인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2곳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무더위 쉼터 관련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5곳의 옥상을 생명이 숨 쉬는 공간으로 바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부문인 「하늘정원 조성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건물 소재 구군의 공원녹지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시민 힐링공간으로 '재탄생'

2021.02.08. | 대구광역시 | 도시계획과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시민이 걷고, 쉬며, 힐링할 수 있는 자락길과 자연생태·체험 공간을 본격 조성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심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망대와 조류 관찰소, 수상 쉼터를 만들어 시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연 체험 및 생태학습의 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② 「대흥동 숲 체험원 조성

사업」은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숲 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③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와룡산 자락에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지 하단부에 길을 조성해 시민 건강증진 및 힐링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④ 본리지 여가녹지는 수변 산책로, 전망 데크 등을 설치하여 산책과 휴식공간,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구광역시, 코로나 블루 날리는 스마트가든 조성 완료

2021.02.26. | 대구광역시 | 산림녹지과

대구광역시가 영남대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대구의료원, 서구 보건소, 범어월드프라자 중앙광장에 지능형 실내정원(스마트가든)을 설치 완료했다. 스마트가든은 큐브형과 벽면형으로 총 25개소를 설치했다. 스마트가든 내 식물관리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을 접목하였다. 이는 조도와 급수, 바람, 공기정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동관수 시스템과 관량 조절 환기 등 스마트 관리기술을 통해 식물 생육을 원활하게 유지하여 정원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스마트가든 조성 사례



대구광역시, 생태계의 보고 달성습지! 다시 살아 숨 쉬다

2021.03.30. | 대구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대구광역시가 「달성습지 생태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개방한다. 이 사업은 달성습지 내에 서식하는 생물종과 관련된 흥미롭고 다양한 교육체험 꾸림정보(콘텐츠)를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생태학습관, 야외에서 직접 습지를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사전 학습장, 육역화된 습지에 물을 공급하는 습지

수로, 습지 생태계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 달성습지를 찾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다목적광장(주차장)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달성습지 생태복원 사업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기록 시스템 운영

2020.12.23. | 광주광역시 | 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기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운영한다. 광주광역시는 도심지 내 주거지 개발사업과 도시 외곽 산업단지의 확장 등에 따른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짧은 시간에 도시경관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광주광역시의 다양한 도시경관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기록할 수 있는 ‘도시경관기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은 시스템을 통해 무등산, 영산강, 황룡강 등 자연경관과 문화재, 학교, 주요 건축물, 시가지 등 다양한 도시경관 이미지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마우스나 손으로 화면을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360 VR을 제공한다.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도시로 비상한다

2021.04.20. | 광주광역시 | 문화도시정책관실

광주광역시는 ‘사람·예술·산업으로 빛나는 창의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약’ 단계로 미디어아트 특화공간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으며, 홀로그램 극장, 미디어 놀이터, 미디어 아카이브, 미디어 338, 디지털갤러리, 홀로그램 파사드 등 6개 특화공간을 운영해 미디어아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뤄왔다. ② ‘비상’ 단계를 위해 미디어아트센터가 개관 준비 중이며, 디지털 아트관(상설전시), 텔레포트관, 딥 스페이스, 미디어 파사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③ ‘발전’ 단계를 위해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주의 역사와 이야기가 숨 쉬는 도시공간에서 시민이 직접 광주의 미디어아트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산림청-한국수목원관리원, 명품 광주광역시립수목원 조성 손 맞잡는다

2021.04.20. | 광주광역시 | 공원녹지과

광주광역시가 ‘도심권역 산림사업과 광주광역시립수목원 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광역시는 산림청에서 도심권 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 사항 전반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산림청은 광주광역시 도심권 내에서 다양한 산림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관련 정책 및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공동목표는 ①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숲 생활환경 개선 기능 강화, ②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적극 예방, ③ 한국수목원관리원 소관 국립수목원 서비스 제공, ④ 한국형 산림뉴딜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⑤ 산림문화·휴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⑥ 국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등 이다.

상무소각장, 광주광역시 대표 문화시설로 탈바꿈한다

2021.05.14. | 광주광역시 | 문화기반조성과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이 광주광역시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021년는 다양한 공간 활용방안을 실험한 후,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를 소각장 리모델링 설계지침에 반영하고, 내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상무소각장을 산업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시·체험공간과 시민사회가 함께 소통·공유·협업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 광주대표도서관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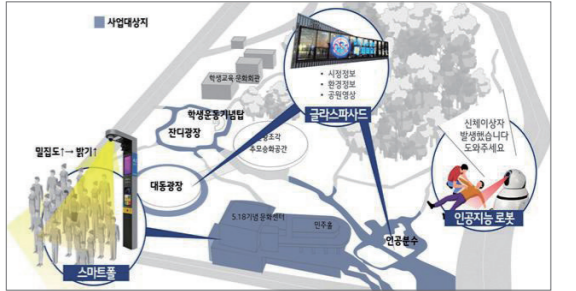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5·18 기념공원, AI 공원으로 조성한다

2021.05.20. | 광주광역시 | 미래산업정책과

광주광역시가 「MEC기반 5G 공공부문 선도 적용 사업」 스마트시티 분야에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5·18 기념공원에 모바일 에지 컴퓨팅을 활용한 지능형 공원관리 시스템을 도입·구축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광주광역시는 2021년 말까지 5·18 기념문화센터내에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발열 감지 등 방역 예방을 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복합 IoT 센서가 장착돼 대기환경 정보와 CCTV 관제를 수행하는 ‘스마트폴’, 다채로운 시각효과를 제공하는 ‘미디어월’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 광주 5·18기념공원 시스템 구성안



대전광역시, 낙후되었던 쪽방촌이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재탄생

2020.12.07. | 대전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전광역시는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역 쪽방촌 정비 계획’은 대전역 인근 쪽방 밀집 지역과 철도 부지를 포함한다. 대전광역시는 이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인 대전드림타운 이외에 지구 내 건물 소유주, 거주자들을 위한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설계 공모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효율적 단지 배치를 담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는 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대전동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대전광역시, 20년 만에 시민 공유공간으로 화려한 변신

2021.01.29. | 대전광역시 | 도시계획과

대전광역시가 옛 유성구 송강동 대덕정수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시민에게 개방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통해 대덕대로변 탈수기동은 문화·전시공간으로, 2동으로 구성된 관리 사택은 북카페로, 송수펌프동은 주민 회의실 등 주민 참여형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된다. 기존 건축물 중 수위실 및 염소 투입실은 철거된다. 또한 기존 정수지 자리에는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되며,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야간에도 은은하면서도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품격을 올리는 ‘도시경관 닥터제’시행

2021.02.24.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가 ‘도시경관 닥터제’를 시행한다. ‘도시경관 닥터제’는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공건축물·공간·시설물·옥외 사인 등을 점검·정비하고, 개선 방향 등을 컨설팅하는 제도이다. ‘도시경관 닥터제’의 운영 절차는 도시경관과 직원 3개 조 6명이 건축물·공간·시설물·옥외

사인 분야에 대해 월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경관·공공디자인·옥외광고물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경관 전문가 등이 자율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관리기관으로 통보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방법, 사업비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 정비 시에는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기존보다 향상된 디자인을 권장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안전 도시 브랜드 가치 높여

2021.03.23.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사업」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선도사업」으로 2021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은 동구, 중구 각각 1개소씩 2개소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대상지중 동구는 자양동 우송대 주변 지역으로 좁은 골목길, 노후된 건물들과 주차장, 건물 사이 좁은 공간 및 사각지대 등 주민 보행 시 불안감과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중구는 죽말경로당 일원의 주변 주택이 노후되고, 지리적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절도 등 생활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2개소 모두 셉테드 전문가로부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케어팜 도시정원’ 개장

2021.03.24. | 대전광역시 | 대전농업기술센터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장이 ‘케어팜 도시정원’으로 새롭게 개장한다. 행복농장은 대전광역시의 대표 도시텃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2020년 「도시농업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정원과 쉼터, 보행로,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시민 참여형 텃밭, 원예치유 교육용 텃밭, 그리고 방문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테마정원을 조성한 바 있다.

▼케어팜 도시정원



대전광역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 숲 1,000개소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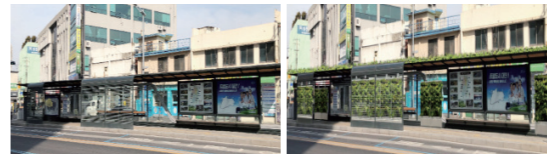
2021.04.02. | 대전광역시 | 공원녹지과

대전광역시는 탄소 흡수원인 숲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시 숲 확충을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생활권 도시 숲을 1,000개소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사업의 유형으로는 오염원을 저감 시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후대응 숲, 시민 쉼터와 소통 공간이 되는 생활정원 숲,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위한 명품가로 숲, 도시의 생태기능 회복을 위한 생태경관 숲, 산림을 가꾸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는 탄소상쇄 숲, 나무 심기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숲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도시 바람길 숲이 2021년 완공된다. 한편 새로운 형태의 실내 정원 스마트 가든, 도시 유입 오염물질을 거르는 미세먼지 차단 숲 등 기후변화 대응 모델로 정착한 사업과 가로수 조성, 옥상녹화, 쌈지공원 등 기존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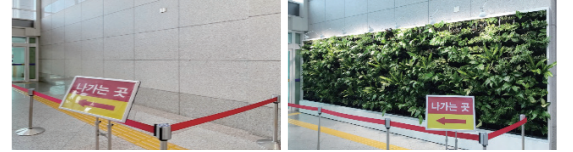
▼생활권 도시 숲 시행 전후



BUS STOP 녹화



스마트가든



미세먼지 차단숲



대전광역시, 대청호 생태 관광자원, ‘효평마루’의 재탄생 기대

2021.04.28.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2021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에 「대청호의 생태 놀이터, 효평마루의 재탄생」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청호의 생태 놀이터, 효평마루의 재탄생」 사업은 폐교를 활용하여 주민의 생태놀이공간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대전광역시는 이번 선정으로 폐교된 (구) 동명초등학교 효평분교에 생태 놀이터, 농산물 먹거리 판매장, 팜스쿨 교육농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효평마루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대청호 오백리길 투어 등과 연계하여 청정 생태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도시 미관 위해 노후·불량 벽화 새 단장

2021.04.30.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노후·불량 벽화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벽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구와 함께 체계적인 벽화 관리를 할 계획이다. 우선 벽화 관리방안으로 연 1회 벽화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등급제를 운영하고, 시·구 협조하에 벽화 관리 부서를 지정해 벽화사업 사전자문 등 체계적인 벽화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기별 전수조사를 통해 노후 불량 벽화에 대하여는 재설치 또는 삭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및 신중년을 투입할 계획이며, 노후

불량 정도가 극히 심한 벽화에 대해 5개 구로부터 대상지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불량한 대전 도심에 위치한 벽화 사례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위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울산광역시가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으로, 바람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 및 산림청 컨설팅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게 된다. 본격적인 공사는 202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2020년 「아시아 도시 경관상」 수상

2020.12.16. | 울산광역시 | 도시재생과

울산광역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2020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민 114만 명과 함께 이룬, 태화강의 기적’을 주제로 신청서를 제출해 국내 심사를 통과했으며, 일본 후쿠오카에서 실시된

최종 심사에서 수상이 확정됐다. 울산광역시는 민·관이 협력하여 이룬 생태복원 노력,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재탄생시킨 생태·문화적 경관 향상성에 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광역시, 주택 및 공장 대상 「2021년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시행

2021.02.03. | 울산광역시 | 도시재생과

울산광역시가 「2021년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1년부터 관내 모든 단독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되며, 공동주택(300세대 미만)과 공장(기업체)은 도장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된 대상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디자인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하며, 주변 환경, 브랜드 분석 등을 통해 색채디자인을 연구·개발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 도안을 제안한다.

울산광역시, ‘도심 속 허브공간 테마정원’ 2곳 조성

2021.03.02. | 울산광역시 | 생태정원과

울산광역시는 ‘도심 속 테마정원’을 조성한다. 대상지는 중구 성남동 원도심 일원, 북구 화봉동 송정나들목 공한지 등 2곳이다. 이번에 조성될 테마정원은 삭막한 도심 속에서도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형 정원’과 담벼락 녹화 및 꽃길 이대 설치를 통한 ‘쉼터형 정원’으로 조성된다. 울산광역시는 테마정원이 조성되면 시민정원사, 큰 애기 정원사, 우리 마을 가드너, 마을단체 등과 함께 유지 관리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탄소 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 대처 위해 ‘도시 숲 조성 정책’ 추진

2021.04.05. | 울산광역시 | 녹지공원과

울산광역시가 ‘도시 숲 조성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울산광역시는 시 전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녹지정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미포산업단지와 신일반산업단지 주변이며, 미세먼지 낮춤수종 16만 그루를 식재한다.

울산광역시, ‘도시 경관 기록화 고도화’ 등 3개 과제 선정

2021.04.26. | 울산광역시 | 정보화담당관

울산광역시는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공모사업」에 3건의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도시경관 기록화 고도화(도시재생과), 문화재 기록화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문화예술과), 방사능 방재 안전 정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울주군) 등 3건이다.

마을만들기

서울특별시, 노후 저층 주거지 ‘목동 엄지마을’ 도시재생 가로주택 결합해 정비

2021.01.08.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는 양천구 엄지마을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고시한 엄지마을 정비 계획은 도로포장, 벽화 및 조명 설치 등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가로주택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시내 첫 번째 사례다. 이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주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

한 것이다. 「엄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주도로 수립한 정비 계획에 따라, 3개 부문(안전한 환경 조성,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9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특별시 「백사마을 정비사업」 12년 만에 본궤도… 상생형 주거지 재생 첫 발

2021.03.04. | 서울특별시 |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의 「백사마을 재개발 정비사업」은 2009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이번 사업은 1960년대~197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돼 온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면서도 낙후한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백사마을만의 ‘상생형 주거지 재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특별시는 백사마을만의 차별화된 창의적 건축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부지를 총 28개 영역으로 나누고, 총 15명의 건축가를 배치해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부산광역시, 자율형 마을공동체 사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2021.02.08.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부산광역시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형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공모 대상은 마을공동체의 안전, 문화, 복지, 환경, 경제 등의 분야에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이다.

부산광역시, 시민 주도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저탄소 마을 16곳 선정

2021.05.12. | 부산광역시 | 기후대기와

부산광역시가 「부산형 저탄소 마을」 16곳을 선정했다. 저탄소 마을로 선정되면 3년간 저탄소 생활 실천 사업을 위한 보조금과 마을활동가 지원을 받으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1년 차에는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기후변화

교육, 가구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의 주민 인식 변화 위주의 사업이 진행된다. 2년 차에는 건물의 단열, 보일러 청소, 절수설비, 고효율(LED) 조명 교체 등 효율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3년 차에는 주택 미니 태양광 및 빔물 저금통 설치, 나무 심기 등 탄소상쇄를 통한 탄소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동

2021.01.14. | 인천광역시 | 협치인권담당관

인천광역시는 「마을공동체 기반 공모사업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체계를 일원화하여, 인천광역시와 군·구가 별도로 진행했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군·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즉, 각 군·구별로 공모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선정,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기획 공모사업인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자원 순환형」 및 「청년공동체 대상형」 등 새로운 유형이 추가된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직접 주관한다.

인천광역시, 지역과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첫걸음

2021.03.26. | 인천광역시 | 관광진흥과

인천광역시가 「2021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3개년 동안 인천형 관광두레 예비 PD 발굴 및 육성, 예비 주민 사업체 발굴 및 역량 강화 등 주민 주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인천관광공사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천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관광두레 협력센터’를 조성하여, 지역 내 관광기업 및 관광 스타트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서발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예비 섬 PD 양성 및 도서관광두레마을 조성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주민 파트너와 동인천역 도시재생 참여율 높이기 나서

2021.03.30. | 인천광역시 | 주거재생과

인천광역시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첫 주민 파트너로 선정된 4가구에 ‘주민 파트너 명패’를 전달 부착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주민 파트너 명패를 수여받은 가구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 동참과 공감을 유도하는 주민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광주광역시, 「2021년 마을 복지 공동체 사업」 본격 추진

2021.02.24. | 광주광역시 | 사회복지과

광주광역시가 「2021 마을 복지 공동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2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똑딱! 똑딱! 다복마을 대소동」 등 17개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 광주광역시는 17개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회계 교육, 중간지원조직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마을 학교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2021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75곳 선정

2021.03.01. | 광주광역시 | 자치행정과

광주광역시는 4개 부서가 통합공모로 추진한 「2021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175개 마을공동체를 최종 선정하고 지원한다. 이번 통합공모는 ‘자치행정과’의 광주형 협치 마을 모델사업(협치 마을, 주민자치회 준비 마을), 마을 교육공동체(씨앗 동아리 포함), 청소년 화해 놀이터,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소통방, 공유 촉진 사업, ‘민주인권과’의 인권마을, ‘사회복지과’의 광주 마을복지공동체, ‘여성가족과’의 여성가족친화마을 등 4개 부서 8개 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선정된 마을공동체가 분야별로 발굴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사업」, 시 역점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친화마을 16개 사업 추진

2021.03.03. | 광주광역시 | 여성가족과

광주광역시가 여성가족친화마을 16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2021년는 돌봄, 성평등, 경제, 대표성 등 기존 분야와 ‘그린 뉴딜’을 새롭게 추가해, 총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선정해 시행한다. 이중 ‘그린 뉴딜’ 분야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광주광역시 생태문화마을 첫 삽 떴다

2021.03.17. | 광주광역시 | 공원녹지과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원효사가 이주단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퓨전 한옥 숙소 힐링촌, 기존 지형의 다랭이논을 형상화한 경관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광주 생태문화마을이 완공되면 천혜의 자연 생태환경에 광주의 문화예술을 입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머물며 건강과 활기를 되찾고 광주의 멋과 맛을 느끼고 돌아가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 「2021년 골목형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사업」 추진

2020.12.02. | 대전광역시 | 지역공동체과

대전광역시는 「2021년 골목형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계획단을 모집한다.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 발굴, 마을 조사, 마을계획, 마을총회의 과정을 통해 주민 주도성 및 공동체성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에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50여 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 사랑방 본격 추진

2021.03.11. | 대전광역시 | 지역공동체과

대전광역시가 「2021년 시민 공유공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금년에 신규로 조성할 공유공간은 18개소로, 민간협력형 5개소, 주민자치형 13개소이다. 민간협력형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유형이다. 또한 주민자치형은 마을공동체가 자체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마을 자립형’과 공간 없이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사업과 연계하는 ‘마을 계획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전광역시, 시민의 힘으로 안심마을 만들 것

2021.03.22. | 대전광역시 | 안전정책과

대전광역시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선정사업은 「덕을 품은 굴다리길 조명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으로 대상지는 동구 용전동, 중구 석교동, 서구 내동, 대덕구 회덕동과 법1동이다. 먼저 동구 용전동에서는 대전문화관 및 읍내동 굴다리길과 초차장역 철길 옆 산책로 일대에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도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구 석교동에서는 어두운 골목길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화재 취약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지원한다. 또한 서구 내동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펜스를 개선하고, 범 죄 취약지역의 보안등 정비 및 태양광 센서 등을 설치한다.

대전광역시, 마을 살리기에 여성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2021.03.23. | 대전광역시 | 성인지정책담당관

대전광역시가 2021년 「여성 친화 마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전광역시는 2021년부터는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이 직접 참여하여 여성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하는 「여성 친화 마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마을 활동 경험에 있는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사전설명회, 역량강화 교육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마을에 필요한 성평등, 돌봄과 안전, 일 생활 균형, 사회·경제·환경문제 참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서울특별시,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선 길을 헤매도 재미… 안내표지판 새 단장

2021.03.03. | 서울특별시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가 서울 곳곳의 공공공간에 공간별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개발·적용하고 있다. 2021년은 ‘돈의문박물관마을’에 각 건물별 특색을 반영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길 찾기 재미를 선사한다. 이번에 개발 설치된 돈의문박물관 안내표지판은 마을 길 안내 표지, 건물 표지, 정보 안내 표지, 설명 표지 등 총 39개이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안내표지판



돈의문박물관마을 길 안내표지



돈의문박물관마을 건물 및 정보 안내 표지

부산광역시, 「2020 옥외광고 업무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2021.01.05. | 부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부산광역시가 「2020년 옥외광고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는 그간 건전하고 창의적인 옥외

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불법 광고물을 줄이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 기동 정비반’과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 시스템’을 직접 도입하고, 이를 16개 구·군과 통합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은 간판 표시 방법이 달라요

2020.12.23.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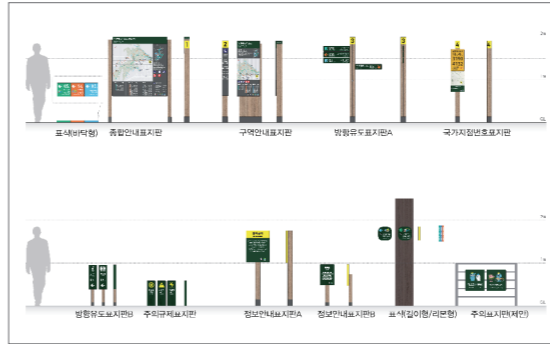
인천광역시는 미추홀구와 남동구에 특정 구역을 지정하고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특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반지역과는 달리 고시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 유형별 표시 방법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고 특별히 규격에 맞게 설치하여야 허가 처리된다. 이 지역 안에서는 일반지역과 같이 옥외광고물을 제작 설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업종이 바뀌거나 새로이 간판을 제작 설치할 경우, 미추홀구청과 남동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제작 설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도시에 질서와 개성을 더하는 「인천형 2020 표준디자인 사업」 성공적 완료

2020.12.24.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과

인천광역시가 ‘인천형 숲길 안내사인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2021년 서구 10대 등산로 및 둘레길 구간에 이를 적용 설치할 계획이다. 2020년 추진한 ‘숲길 안내사인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에는 군·구 관련 부서, 시민, 숲길 등산 지도사가 참여하여 인천형 표준디자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형 숲길 안내사인’은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디자인 개발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걷기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형 2020 표준디자인



인천광역시, ‘무료 와이파이, 여름에는 시원 겨울에는 따뜻~’, 버스 정류소 똑똑하고 쾌적하게 변신한다

2021.03.24. | 인천광역시 | 버스정책과

인천광역시가 버스 정류소에 승강장, 공공 와이파이 등을 대폭 확충하고 냉난방 시설 등을 보강하는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버스 정류소 개선을 추진한다. 승강장 500개소 설치 9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12월 완공된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12월까지 추진된다.

대구광역시, 「2020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에 ‘앉아보세요’

2021.02.25. | 대구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대구광역시는 「대구 도시디자인 공모전」의 2020년 당선작 중 일부를 실물 제작해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될 작품은 대상을 포함한 총 6개 작품으로 대상 <FACTORY BENCH>의 근대산업공장을 모티브로 한 벤치, 금상 <Lattice Band>의 섬유와 베를 콘셉트로 한 작품 등이며, 이는 북구 옥산로 테마거리 구간에 조성된다.

▼ 근대산업 공장 모티브로 한 대상작품 ‘FACTORY BENCH’



범죄! 꼼짝 마! 대구광역시설공단 도심공원, 중부경찰서와 협업하여 NFC 안심존 화장실 구축

2021.04.27.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설공단

대구광역시설공단 도심공원이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2·28 기념중앙공원, 경상감영공원의 여자 화장실에 NFC 태그 스티커를 이용한 안심존을 구축했다. 신고 위치를 미리 등록한 NFC 태그 스티커에 스마트폰 뒷면을 접촉하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가 나타나며, 전송 버튼 터치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 비상벨과 병행하여 운영되므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은 NFC 태그와 비상벨 모두 이용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어린이 통학 공간 공공디자인’ 국비사업 선정

2021.01.26. | 광주광역시 | 도시경관과

광주광역시가 「2020 어린이 통학 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안전한 대촌 라온길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2021년 5월까지 어린이 통학 공간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를 조성한다. 이에 따라 통학로 내 노후 승강장은 추위를 피할 수 있고 공공 와이파이와 비상벨이 설치된 스마트 안전쉼터로 탈바꿈한다. 또한 스토리 옐로우 카펫이 마련되고, 보도블록 및 바닥 포장재,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광고물 방지판 등이 설치되는 등 안전을 위한 시설물들이 마련된다.

광주광역시, 공중화장실 장애물 없는 시설로 개선

2021.01.27. | 광주광역시 | 물순환정책과

광주광역시는 공중화장실을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여 곳을 ‘장애물 없는 공중화장실’로 개선한다. 광주광역시는 공원, 전통시장, 체육시설,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의 노후 공중화장실을 우선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물 없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 외에도 공중화장실 신축, 민간 개방화장실 개보수, 편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한다

2021.03.22. | 광주광역시 | 교통정책과

광주광역시가 시인성을 강화한 「어린이 보호구역 광주형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주형 표준모델은 보호구역 내 암적색(미끄럼 방지) 포장, 시·종점 노면 표시, 노랑 신호등, 대각선 횡단보도, 발광형 시·종점 표지판 등 5가지 안전 시설물을 현장 여건을 반영해 설치하게 된다. 시범 사업대상지는 북구 문흥초와 광산구 운남초다.

▼운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후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건축 및 도시

천안시, 「2020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0.12.14. | 천안시 | 건축디자인과

천안시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20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공사 안전 관리 효율성,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건축 공사 현장 관리, 건축 관계자 안전의식 개선, 건축행정 관련 도정 협조 등 8개 심사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업무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도 최우수상에 이어 2020년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천안시,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정

2021.01.18. | 천안시 | 건축디자인과

천안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고시원·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에서 공공 임대주택 이주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즉시 이주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LH와의 협력하여 임시거소도 운영한다. 또한 대상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을 돕기 위해, 필요시 생활 지원, 사례관리 등도 지원한다. 취약계층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간편 집수리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어린이꿈누리터’ 문 활짝! 어린이 놀 권리 확보

2021.03.31. | 천안시 | 아동보육과

천안시 ‘천안어린이꿈누리터’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천안어린이꿈누리터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도시재생사업」 1호인 「천안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지하 1층에는 체험시설인 ‘흥놀이터’, 1층에는 열람실과 상담실, 카페, 꿈누리쉼터, 흥아뛰자, 2층에는 대공연장, 자유소극장 등이 들어섰다.

▼천안어린이꿈누리터 내부



공주시, 「공주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신성장 동력 창출

2020.12.09. | 공주시 | 기획담당관 정책평가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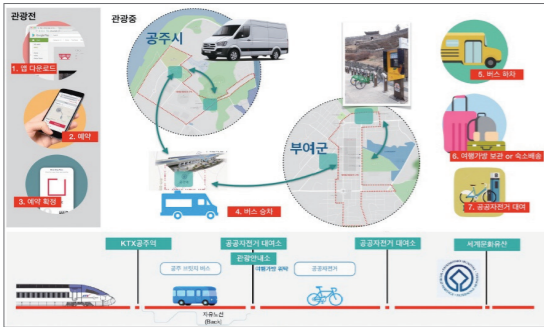
공주시가 「공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시가 밝힌 ‘공주형 뉴딜’은 3개 분야로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디지털 뉴딜’은 ICT 기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디지털 기반 지능형 지방정부 구현, 디지털 뉴딜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방안 등이 담겼다. ②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녹색 친화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③ ‘안전망 강화’는 실업 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경제 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맞춤형 인재 양성 등에 주력한다.

공주시, 「공주형 스마트도시」 청사진 제시… 도시 경쟁력 제고

2021.03.10. | 공주시 | 도시정책과 도시개발팀

공주시가 「공주형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주형 스마트도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세상 공주 스마트시티’라는 비전 아래 4대 목표, 16개 추진전략, 6대 중점분야 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및 공주시·부여군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도 「공주형 스마트도시」 계획의 큰 틀 안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 스마트도시 모빌리티서비스 연계망 예시



공주시, 「스마트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2021.03.12. | 공주시 | 교통과

공주시가 「2021년 스마트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공모사업은 주거생활이 불편한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 교통사고 발생 위험 도로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정비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옥룡동 일원 쌈지 주차장 17면 조성, 신월초 일대 바닥 신호등 및 교통단속 게도 시스템 설치, 웅진동 스마트 교통안전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주 ‘갑사 대웅전’ 보물 지정… 건축사적 가치 커

2021.03.25. | 공주시 | 문화재과

공주시는 ‘갑사 대웅전’이 ‘보물 제2120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갑사 대웅전은 17세기 건축물로서 정면이 5칸이면서 맞배지붕을 한 전환기 건축의 특징을 지닌 드문 사례로, 조선 후기의 건축적 경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시는 연혁과 유래를 알 수 있는 각종 기록과 유물이 잘 남아 있고, 평면구성과 공포의 구성수법, 상부 가구와 닫집 등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갑사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밝혔다.

공주시, 환경부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1.03.31. | 공주시 |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

공주시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환경부가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에 대해 행정·재정적인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공주시는 2021년부터 2년간 웅진지구에 ‘기후 탄력 회복 및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수 및 빗물 재이용시설, 쿨링&클린로드, 친환경 버스정류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공주시, 제민천 ‘테마 생태하천’으로 정비… 221억 원 투입

2021.04.07. | 공주시 | 건설과 하천계획팀

공주시가 제민천 상류 구간을 ‘도심 속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으로 정비한다. 이번 사업 구간은 2015년에 정비가 완료된 금강 합류부에서 선화교까지 2.4km를 제외한, 공주시청 앞에서부터 금학 생태공원까지 총 1.8km 구간이다. 감성 산책길, 주민 담소길, 금학 생태길 등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획을 통해 1.8km 하천 정비, 수변공원·친수 스탠드 등 친수시설 6개소 설치, 교량 4개소 재가설, 교량 1개소 신설, 천변도로 0.5km 개설 등을 추진한다.

▼ 제민천조성 조감도



공주시, 「도시재생 뉴딜 교육」 우수사례 선정

2021.05.03. | 공주시 | 도시정책과

공주시가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도시재생 뉴딜 교육 사례집」에 우수모델로 선정, 소개됐다. 사례집의 선정 기준은 운영체계, 교육프로그램, 성과 창출 등 3가지 분야로, 공주시가 운영하는 공주시민대학은 ‘성과 창출’ 분야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보령시, ‘찾아가는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2021.03.04. | 보령시

보령시가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 주요 상담 사항은 주택설계 및 인·허가 등의 건축행정 절차, 무허가 축사 양성과 및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노후주택 증·개축 등이다. 이와 더불어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 건축 무료 상담실 Q&A 코너를 마련해 다양한 상담사례 등을 소개하고 상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산시, 「2020 충청남도 건축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0.12.09. | 아산시

아산시가 「2020년 충청남도 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종합평가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건축행정 전문성, 공사 안전 관리, 건축행정 민원 만족도 등 8개 항목 16개 지표를 중심으로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아산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분야에 속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 실적 등의 행정절차

운영, 건축부서 내 전문 인력 비율 증가,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산시, 건축허가·공장설립 준비하는 민원인에게 사전 컨설팅 제공

2021.01.19. | 아산시

아산시가 건축허가·공장설립을 준비하는 민원인을 위한 ‘허가 민원 사전 컨설팅’을 시행한다. 시는 건축 허가나 공장설립 승인 등을 준비하는 민원인의 복합 허가 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게 되었다. 컨설팅은 허가요건과 필요한 행정절차, 제출 도서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한 번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산시, ‘50만 자족도시’ 대비한 공공건축 사업 박차

2021.01.27. | 아산시

아산시는 ‘모종 복합커뮤니티+The 새로이 센터’ 등의 생활밀착형 생활SOC 사업, 문예회관 건립, 지식산업 기반 등 45건의 공공건축물 사업을 추진한다. 배방 체육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꿈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배방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배방 주차타워 등이 2020년 준공돼 개관했거나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음봉 복합문화센터(도서관), 배방 공영 주차타워, 노인종합복지관 주차타워 등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시의회 청사,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온양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등은 설계 용역 단계에 있다. 아산시는 추진 중인 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50만 자족도시’에 걸맞은 공공 인프라 구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배방체육관 전경



논산의 새로운 미래 견인할 논산 국방 산단 예타 통과, 사업 추진 본격화

2020.12.07. | 논산시 | 국방협력과

논산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비용 대비 편익, 수익성 등 경제성·재무성 지수에서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룡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대상 일반 건물까지 확대

2021.05.20.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가 2021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대상을 주택에 이어 일반 건물까지 확대해 태양광 자가발전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 에너지 도시 전환 시책의 일환으로, 시 소재 건물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건물 지원사업」에 더해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계룡시, 뉴딜사업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박차

2021.05.20.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가 「계룡시 뉴딜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계룡형 뉴딜사업」은 18개 부서에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33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분야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 뉴딜’은 「취약계층 스마트교실 운영», 「계룡시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사업»,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구축」 등 16개 사업이다. ② ‘그린 뉴딜’ 분야는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 「스마트 상수도 관망 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12개 사업이다. ③ ‘안전망 강화’ 분야는 「식생활 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적 돌봄 안전망 구축»,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확충」 등 5개 사업이다.

계룡시, 스마트에너지 강소(强小)도시 기반 마련

2021.05.20.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가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공공 및 민간분야 스마트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공공시설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과 LED 가로등 스마트 시스템 도입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하여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필요한 전력은 친환경에너지로 100% 충당하는 ‘RE100’ 캠페인 확산을 도모하는 등 공공·민간부문에 스마트에너지를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가로등에 주변 환경변화 등을 감지하여 가로등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디밍 제어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고, LED 조명을 교체·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단지 4개 기업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지원하여 연간 최대 900MWh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등 ‘RE100’ 캠페인에 지역 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당진시,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

2020.12.28. | 당진시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일원이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역사문화와 함께 숨 쉬는 뉴트로 면천 사업」은 역사문화관광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역사문화 관광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성상리 일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점 단위 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면천의 아름다운 역사문화 테마 거리 조성», 「면천 리마인드 사진전», 「마을기업 설립 운영 컨설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당진시, ‘2050 탄소중립도시’ 첫발 디뎠다

2021.01.04. | 당진시

당진시가 ‘그린 뉴딜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 기본계획안에는 내연기관 차량 신규등록 제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등 시민기획단이 제시한 사업을 포함한 총

10개 분야, 25개 목표, 87개 과제를 담았다. 10개 분야는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산업 육성,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정의로운 전환, 친환경 수송 및 교통, 그린 리모델링, 지속 가능한 농업, 자원순환, 디지털 뉴딜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시민참여 및 친환경 도시 조성이다.

당진시 순성면 청사 “열 썰 틈 없다”, 그린 뉴딜 선도!

2021.01.11. | 당진시

당진시가 전국 공공청사 최초로 ‘제로에너지 2등급 인증’을 받아 화제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준공된 순성면 청사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1+++ 등급 인증’을 취득했으며, 지난 1월 6일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전국 공공청사 최초로 ‘제로에너지 2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당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순항 중

2021.01.29. | 당진시

3개 지역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인 당진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당진1동 구 군청사 부지에 조성 예정인 「도심 광장 및 거점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 완료 및 사업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진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조성 예정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 100호와 당진2동 행정복지센터가 결합된 형태의 복합타운으로, 2021년도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구 당진 시네마 건물을 활용한 「시민문화 예술촌 조성사업」, 당진중학교 및 당진정보고 인근에 조성 예정인 「학생활동 커뮤니티 거점 조성사업」, 「학교 앞 안심 광장 조성사업」, 「읍내 6통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도 기존 건축물 철거 준비 및 일부 건축물 철거 중으로, 계획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심광장 및 거점주차장 조감도(안)



당진시, 국내 1호 「생활SOC 공모사업」 학교 복합화 ‘당진 대덕초’ 개교

2021.03.03. | 당진시

국내 1호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학교 복합화 시설 ‘당진 대덕초등학교’가 개교했다. 당진 대덕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생활하는 ‘교사동’, 이와 연결된 ‘학교 복합화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 복합화 시설은 연면적 약 2,348㎡,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생활문화센터가 있으며, 2층과 3층에는 각각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정식 명칭은 ‘대덕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로 지난 2월 22일 개소식을 가졌다. 한편 나머지 복합화 시설은 우선 학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향후 코로나 19 등의 추이를 살핀 후 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의 협의를 거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당진 대덕초



당진시, 한국판 뉴딜 선도한다!

2021.04.15. | 당진시

당진시가 정부의 뉴딜 관련 공모사업과 자체 선정한 7대 과제를 중심으로 ‘당진형 뉴딜’을 집중 추진하고자, 「2021년 당진형 뉴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1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당진형 뉴딜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는데, 디지털 뉴딜 분야 16개 사업, 그린 뉴딜 분야 27개 사업, 안전망 강화 분야 1개 사업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2021년 당진형 뉴딜은 2020년 시민과 함께 수립한 중장기 계획과는 달리, 정부 공모사업 및 지역 균형 뉴딜사업 중심으로 구성해 조기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는 전체 사업 중 당진의 대전환을 이끌어 갈 7대 뉴딜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시, ‘2050 탄소중립도시 당진’ 위한 패시브 건축 업무협약 맺어

2021.04.28. | 당진시

당진시가 ‘제로에너지 건축’ 실현을 위한 ‘패시브 건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공사 중인 당진3동 행정복지센터는 ‘패시브 건축 예비인증’ 및 ‘제로에너지 2등급 예비인증’을 이미 획득한 상태로, 준공 시 ‘제로에너지 1등급’ 획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저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패시브건축협회로부터 당진 지역 건축사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패시브 건축 실무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산군,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도시재생 공모」 3관왕 450억 원 확보

2020.12.23. | 금산군

금산군이 도시재생 1, 2, 3차 공모에 모두 선정돼 총사업비(450억 원)를 확보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치돼 있던 폐병원이자 노후 건축물인 구 을지병원을 활용해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한 거점형 생활SOC를 조성하고, 주변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② 「중도·하옥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원도심 기능 회복, 지역 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어울림센터, 우리 동네 씨전 마당,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골목길 등을 조성해 나간다. ③ 하옥3리 「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 복지회관을 재건축해 지상 4층 규모 행복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보훈회관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내용이다.

▼ 하옥3리 행복복지문화센터 조감도



금산군, 「중도·하옥 도시재생 예비사업」 거점 공간 ‘웅기종기’ 개소

2021.01.19. | 금산군

금산군은 ‘중도·하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금산읍 중도리 일원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거점 공간 ‘웅기종기’를 개소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행 사업으로 주민 참여, 역량 강화, 이웃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될 계획이다. ‘웅기종기’는 주민협의체와 지원 기관의 각종 회의나 협의,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공유 공간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산군, 「스마트 행복한 도시 만들기」 총 15억 원 투입

2021.02.23. | 금산군

금산군은 2021년 「스마트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총 15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추부면 마전리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 추부면 마전리 스마트 교통안전환경 개선, 금산을 상리 일원 비호산 스마트공원 조성 등 3개로 추진될 예정이다.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는 도로가 비좁고 주차장이 없어 주거생활이 불편한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 고령 운전자와 보행

약자 등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도로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정비 등을 목적으로 현지 실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고 있다.

부여군, 부여형 뉴딜사업 추진계획 발표

2020.12.04. | 부여군

부여군은 「부여형 뉴딜사업」 2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스마트그린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세계 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굿트래 농식품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디지털 뉴딜’ 45건, ‘그린 뉴딜’ 25건, ‘안전망 강화’ 4건 등 총 74건의 뉴딜사업이 발표됐다. 이번에 보고된 뉴딜사업은 2021년부터 5년간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천군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순항,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설계 착수

2021.01.21. | 서천군 | 투자유치과 해양바이오팀

서천군이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는 정부의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 전략에 따라,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내에 건립될 예정이다. 연구 및 실험실, 기업 입주공간, 업무시설로 구성되는 산업화 인큐베이터는 해양바이오 분야 예비 창업자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산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향후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은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 본격적인 건축 공사를 착수한다는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조감도



서천군, 「균형발전 사업」 총 1,480억 원 투입

2021.02.19. | 서천군 | 서천군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

서천군은 농어촌 공간 재편 기반 구축 및 혁신적 생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도·지자체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천군에서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사업(포괄보조사업)」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4개 사업)」의 일환으로 「판교면과 화양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서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장촉진 지역 개발사업(4개 사업)」의 일환으로는 「서천 남부 국책사업 연결 순환도로 개설」, 「도서 개발 지원사업」, 「지역개발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홍성군, 「충청남도 건축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0.12.07. | 홍성군 | 홍보전산담당관

홍성군이 「2020년 충청남도 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군은 건축허가·신고 처리 기간 준수,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 등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과 ‘건축공사 현장관리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홍성군, 지속가능한 「홍성형 원도심 재생사업」, ‘주민이 주인공’

2021.02.22. | 홍성군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

홍성군이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며 침체된 농어촌지역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군은 그동안 주민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핵심 목표 아래,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 청년 워크숍, 주민참여 공모사업 등을 운영하며 주민참여 유도 및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2021년에는 주민 주도 사업 개발·추진을 위해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 공모사업인 「으라차차 도시활력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프로그램」, 「마을기업 설립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골목상권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벽화그리기



홍성군,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한다!

2021.03.10. | 홍성군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홍성군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며, 한 단계 높은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축제, 공연, 전시 등 비대면 방식의 문화예술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홍주 문화관광재단 설립, 홍성 문화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역문화 예술활동 공모사업, 군립예술단 운영, 홍성 역사인물축제 개최 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굵직굵직한 사업과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홍성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조감도



예산군, 안전하고 쾌적한 내포신도시 환경 조성 ‘총력’

2021.01.18. | 예산군

예산군이 도시기반시설물 및 각종 사업대상지를 점검해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2021년 도로관리 사업비를 투입해 교통신호기, 가로등 등의 도로 안전 시설물, 인도, 도로 등을 사전 점검하고 파손 부분을 수거함으로써 사전 위험 요소를 없애 군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원 관리, 녹지관리, 하천 유지관리에 예산을 투입해 홍예공원, 애향공원, 보훈공원, 어린이공원 7개소, 목리천 등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애향공원 내 테마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 애향공원의 경관성을 향상하기 위한 인공폭포, 이용객 편의 및 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휴게시설(그늘막), 야외무대, 화장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공원 내 수목 보완 식재를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녹색 쉼터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산군, 관광산업 이끄는 주요 축 「덕산권역 개발사업」 추진 본격화

2021.02.04. | 예산군

예산군이 예당호 및 덕산 두 권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덕산 권역 18개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덕산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덕산온천을 활용한 「덕산온천 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며, 덕산온천 주변 공원을 특색 있는 테마공원으로 재구성하는 「덕산온천 관광지 공원 재구조화 사업」도 추진하여 덕산온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덕산 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도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편의를 위한 「덕산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2021년 마무리된다. 한편 신암면에서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서화가인 추사 김정희를 테마로 한 ‘추사 서예 창의마을’이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추사 테마 시설로 조성될 전망이며, 추사고택 진입

보행로 설치공사를 통해 내방객의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고덕갈비, 은성농원 등 먹거리 관광으로 인기 있는 「고덕·봉산지역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고덕갈비가 유명한 고덕면 소재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예산 사과와인 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며, 하천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봉산면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2022년까지 추진된다.

▼덕산온천휴양마을사업 조감도



예산군,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제도」 시행

2021.04.09. | 예산군

예산군이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후 신고필증 교부 시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존치 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함께 교부한다. 이를 가설건축물 전면에 부착하게 해 가설건축물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태안군, ‘과학·치유·복지’ 미래를 선도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만든다!

2021.02.24. | 태안군

태안군이 ‘지속 발전이 가능한 신 해양도시 태안’을 만들고자 신산업 기반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 유일의 무인 조종 복합 테마파크인 ‘태안 UV랜드’ 조성사업은 무인 조종 멀티센터, 드론 스쿨, RC 자동차 서킷, 이착륙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8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태안을 인공지능 전략사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남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인공지능 융합산업진흥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라이프케어·헬스케어 주거실증 단지 조성」,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운영」, 「지역상생 프로그램 구축」 등의 연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③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태안 해양치유센터’에는 다양한 기능성 풀과 지역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테라피, 장기 치유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④ ‘태안군 가족 복합커뮤니티 센터’도 건립 중이다. ‘태안군 가족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지역의 출산율 및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공간을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계획되었다. 지상 3층 규모로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수영장과 체험실이 있는 어린이문화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해양치유센터 조감도



태안군, 찾아가는 건축상담실 운영!

2021.04.23. | 태안군

태안군이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건축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올 연말까지 매월 1회,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건축상담실’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멸실’,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오수처리시설’ 등 10여 종의 건축민원과 관련된 종합상담이 이루어진다.

경관 및 공공공간

천안시, 주민이 직접 리모델링한 ‘별빛공원’ 탄생

2020.12.14. | 천안시 | 공원녹지과

천안시가 ‘별빛공원’ 조성을 완료했다. 별빛공원은 「주민참여 공원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통해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옆 노후 어린이공원을 주민들이 새롭게 디자인하여 만들어진 공원이다. 시는 별빛공원 리모델링을 위해 ‘시민 별빛 디자인단’을 구성하였으며, 설계부터 조성까지 아이들의 시설 이용 편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별빛 디자인단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별을 고보 조명 및 레이저 투사를 통해 형상화하였으며,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경관으로 아이들의 밝은 꿈과 희망을 표현했다.

▼천안 성정1동 별빛공원 전경



천안시, 2021년부터 시청사 야외무대 새롭게 개방

2020.12.29. | 천안시 | 회계과

천안시가 노후한 청사 내 야외무대 보수를 2020년내로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할 계획이다. 기존의 노후 스탠드 객석 바닥을 철거·보수해 야외공연장 객석을 새롭게 조성했으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객석과 산책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했다. 한편 향후 트릭아트, 버들광장, 영성지, 인공폭포 등 청사 산책로를 즐길 수 있는 탐방코스와 볼거리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휴일이나 주말에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사 내 ‘숲 속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 2021년부터 시청사 야외무대 새롭게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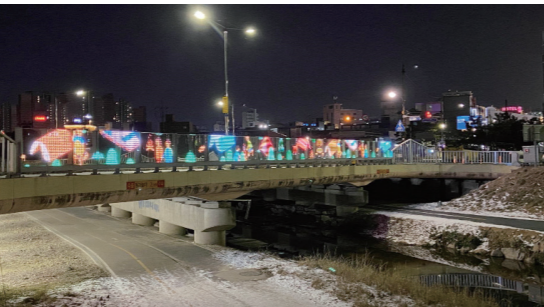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미디어 글라스’ 설치

2021.01.06.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가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미디어 글라스 설치를 완료했다. ‘스마트 친수공원’ 조성을 위해 이번에 준공된 미디어 글라스는 가로 32m, 높이 1.2m 크기의 스마트 디스플레이 소재를 활용하였으며, 천안천 서부역사교에 설치됐다. 다양한 영상과 미디어아트가 LED 조명을 통해 표현된다. 주간에는 천안천의 자연경관, 야간에는 미디어아트가 펼쳐지며, 천안천 산책길을 걸으면서 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시는 미디어 글라스를 통해 시정 홍보, 도시재생 관련 콘텐츠, 계절별 콘텐츠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볼거리 제공 및 기존 노후 시설물 개선을 통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산책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천 서부역사교 미디어글라스 설치 전경



천안시 오룡경기장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대상지 선정

2021.03.18.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가 향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에서는 쇠퇴지역 내 공유지 제공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 활용을 맡게 된다. 또한 민간에서는 기획·구상단계부터 참여하게 되며, 창의적인 도시재생사업의 계획과 시공을 맡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중앙정부, 천안시, 민간의 협력으로 사업 대상지인 오룡경기장 부지에 빙상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해 오룡경기장을 새로운 스포츠 명품시설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공모 계획 중인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마중물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스포츠파크, 스포츠 산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등을 조성한다.

공주시, 전국 최초 ‘어르신 놀이터’ 공개 시연

2020.12.09. | 공주시 | 경로장애인과 경로시설팀

공주시는 금성동 미나리 공원에 조성 중인 어르신 놀이터에 대한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어르신 놀이터에는 운동기구 및 족욕장이 조성되며, 편의시설 확충, 춘수정 건물 리모델링 등이 진행된다. 어르신 놀이터에는 어르신 맞춤형 놀이(운동) 기구로 핀란드 랑셋 제품 14종이 설치되었는데, 일반 체육시설과 달리 노인의 안전과 유연성, 균형감각에 중점을 둔 기구들이다. 이날 시연 행사에서는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해당 기구들을 어르신들이 직접 시연해봤으며, 향후 놀이구를 활성화하는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는 어르신 놀이터가 완공되면 전문 강사를 배치하고, 어르신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활동의 중요성과 정신건강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공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개소… 충청남도 최초 권역형

2020.12.14. | 공주시 |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공주시는 유구읍과 사곡면, 신봉면을 아우르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문을 열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8년에 개소한 신관동 1호점, 2020년 개소한 옥룡동 2호점에 이은 3호점이다. 이번에 개소한 3호점은 유구읍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돌봄 기관의 허브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한다. 한편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은 농업 및 생산직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과는 달리 주말 특화 운영을 실시한다.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아동 중심의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주시,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2021.02.23. | 공주시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공주시가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시책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청소상황실 설치 운영 및 쓰레기 적정관리 제도 활동 전개, ▲불법 쓰레기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홍보 강화, ▲청소 사각지대 쓰레기 수거·처리, ▲클린 구역 지정 운영, ▲‘하루 10분! 내 집·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업무 후 지정된 청소구역을 순찰하는 등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대로변과 다중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깨끗한 도시, 관광 공주의 이미지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2곳 선정

2021.03.05. | 공주시 |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팀

공주시 2개 마을이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유구읍 유구1리에 약 21억 원, 사곡면 신영2리에

약 23억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 정비, 노후 담장 개량, 마을 안길 정비, 주민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주시, 충청남도 최초 '예술인회관' 개관... 예술 특화 공간

2021.03.16. | 공주시 | 문화체육과 문화시설팀

충청남도 최초의 예술인회관이 공주시에 문을 열었다. 공주 예술인회관은 중동 국고개 일원 옛 시청사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총 3층 규모로, 1층에는 공주의 9번째 공립 작은도서관이자 충청남도 최초의 예술 특화 공간인 예술 전문 작은도서관이 들어섰다. 2층에는 한국예총 공주지회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각종 회의 및 교육공간, 3층에는 공연 연습 공간을 조성해 지역 예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주시, 「충청감영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본격 착수

2021.05.10. | 공주시 | 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

공주시가 충청감영 일원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충청감영 문화광장 조성, 충청감영 역사문화가로 조성, 역사가 흐르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3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우선 ‘충청감영 문화광장’은 포정사 문루 앞 유희 부지에 공주감영에 설치되었던 측우기를 형상화한 모형, 한식 담장, 관찰사 동상, 안내시설물 등을 설치해 충청감영의 정체성을 담는다. ‘충청감영 역사문화가로’는 포정사 문루에서 목관아터에 이르는 원도심 중심축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곳으로, 전선 지중화와 함께 상징조형물, 가로 갤러리 등을 설치하여 역사 경관의 정체성을 살릴 계획이다. 당간지주길, 대통1길, 제민천1길로 이어지는 ‘역사가 흐르는 걷고 싶은 거리’는 디자인 패턴 블록을 적용해 보행 친화적인 구조로 탈바꿈하게 된다.

▼충청감영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이미지



보령시, 갯개포구 명소화에 맞춰 새들마을과 궁촌마을
행복공간 조성

2021.03.19. | 보령시

보령시가 「셋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과 함께 수청지구 새뜰마을과 궁촌마을에 대한 「행복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역세권 지역이 새롭게 변신했다. 보령 첫 관문인 셋개포구에는 「셋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으로 인도교 설치와 함께 분수 광장이 조성되는 한편, 주탑 설치로 야간경관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역세권 주변의 「수청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에서도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CCTV 설치, 노후 주택 집수리지원, 오수관 정비 등이 완료되었고, 2차 집수리지원 및 도시가스 공급도 2021년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한 「궁촌마을 조성사업」에서도 공동작업장 및 마을 카페 설치, 골목 환경 및 노후 주택 집수리지원,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 등이 완료되었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 홈이 준공되어 전체 10세대 중 8세대가 입주 완료했다.

▼인도교, 분수광장, 야간경관설치



아산시, '청년 아지트 나와유' 2호점 배방센터 2021년 8월 문 연다

2021.03.18. | 아산시

아산시가 ‘청년 아지트 나와유’ 1호점의 정책 성과를 확산하고자,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배방읍에 2호점을 조성한다. 2호점은 지상 4층 건물의 3층과 4층, 그리고 옥상에 조성된다. 3층은 오픈 실험실, 스튜디오, 공유 부엌, 다목적홀, 미니 영화관 등 일상의 에피소드를 채우는 힐링 감성 공간으로, 4층은 스터디 카페, 공유 공방, 코워킹 라운지, 스마트 회의실 등 청년 비즈니스를 응원하는 열정 공간으로, 옥상은 곡교천을 바라보며 쉬어가는 루프탑과 야외극장 등 청춘 여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예정 건물은 차량 접근성이 뛰어나고 600세대의 청년 전용주택 ‘충남 더 행복한 주택’과 인접해 있어, 아산시는 충청남도 청년정책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산시, 부석면 검은 바위의 전설 ‘검은여’ 경관 개선

2021.02.25. | 서산시

서산시가 부석면 갈마리 일원에 추진한 「검은여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검은여 주변에 전석을 쌓아 호안 침식을 막는 한편, 제단을 정비해 충분한 제례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산책로와 쉼터를 설치하고 벚나무, 철쭉, 상사화 등 조경수를 식재해 운치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설화적 배경과 지리·문화적 가치를 살리는 데 방점을 두고, 인근 부석사, 서산 버드랜드와 함께 서남부지역의 중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검은여 호안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속도 붙었다!

2021.04.08. | 서산시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간월도 관광지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서산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 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 조정, 건축, 토목 분야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심의에 따라 관광지 5만 5천892㎡에 800여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상가 시설 등을 조성키로 했다. 이외에도 낙조 탐방로, 독실 체험장 등 일반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조망 공간 등을 건축계획에 추가하기로 했다.

논산시, '문화&휴식'이 함께하는 상상이상 복합문화
센터 조성한다

2021.02.08. | 논산시 | 전략사업실

논산시는 「내동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복합문화센터 내 층별 계획, 용도 계획, 입면 디자인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개선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내동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는 지난 2019년 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됐으며, 어린이 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다 함께 돌봄 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이뤄져 주민들을 위한 기초생활시설인 동시에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논산시, 탑정호 시대 본격 개막, 2,837억 원 투자 탑정호
기반 복합 문화관광단지 조성

2021.03.09. | 논산시 | 미래사업과

탐정호 주변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으
 로 본격적인 탐정호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렁다리, 음악 분수,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수변 산책로, 힐
 링 생태사우나 등 5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산노리 자연문화
 예술촌 조성사업」, 「탐정호 순환 체계 구축사업」, 「물빛정원
 조성사업」, 「복합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활
 발하게 진행 중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탐정호 수변 개발사
 업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사람 중심·

자연 친화적’ 관광개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논산의 관광 인프라를 증진하고 새로운 관광거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논산 출렁다리 야경



당진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연이어 선정

2020.12.11. | 당진시

당진시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과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됐다. 특히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서는 석문면 장고항 앞 해역에 200ha 규모의 주꾸미·갯오징어 산란 서식장을 조성한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주꾸미와 갯오징어가 산란·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패각과 팜사 로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당진 버그내 순례길’,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길로 거듭나

2021.02.02. | 당진시

‘당진 버그내 순례길’이 「2021년 대전·충남 강소형 잠재 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당진시는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 ‘솔뫼성지’, 충청남도 최초의 본당 ‘합덕성당’,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 ‘합덕제’ 등을 연결한 천주교 순례길인 버그내 순례길을 소재로 하였으며, 단순히 점적인 관광자원이 아니라 선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길을 통해 잠재 관광지를 육성했다는 점에서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시는 관광상품화 마케팅 지원, 유력 매체

활용 홍보마케팅,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당진 버그내 순례길



당진시, “우리 동네 경관은 우리가 가꾼다”

2021.03.02. | 당진시

당진시가 충청남도 최초로 경관개선과 관련한 주민약속과 이행사항이 담긴 「성소마을 경관협정」을 체결했다. 성소마을은 방문객들에게 합덕성당, 버그내 순례길 등을 특색 있게 전달하기 위해, 75명의 주민이 전원 합의하여 경관협정 운영회를 구성했다. 또한 시, 민간전문가와 함께 마을 경관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마을 주민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이행사항을 협정서에 담아냈다. 앞으로 성소마을은 5년 동안 경관개선 및 보존을 위해 협정 세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며, 시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당진시, 어린이 의견 적극 반영한 놀이터 만들어요

2021.04.27. | 당진시

당진시가 어린이공원(놀이터)을 아동 친화시설로 바꾸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진시와 현대제철, 세이브 더 칠드런은 놀이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 시계 조성 관련 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의 「놀이터 옥외 시계 조성사업」은 3개 기관의 뜻을 모은 결과물로, 2020년 당진시 놀이환경 시민조사단에서 조사한 놀이터에 시계가 없어 불편하다는 아동들의 의견에 대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어린이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기부하면서 이루어졌다. 조성 장소는 아동들이 많이 찾는 놀이터인 남산공원, 한마음공원 등 5개소로 확정했으며, GPS 수신 LED 전자시계를 설치한다.

금산 육지의 섬 방우리,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된다

2020.12.10. | 금산군

금산군이 방우리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에 나선다. 군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방우리의 생태계를 복원해 전 국민이 찾아오는 자연생태문화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2021년 상반기에 생태관광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생태탐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금산군, 남이면 국립자연휴양림 유치 성공

2021.04.01. | 금산군

금산군의 「국립자연휴양림 신규 조성」이 최종 결정됐다. 휴양림은 2024년까지 남이면 구석리 일원에 85만㎡ 규모로 조성되며, 방문자 안내센터,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동, 주차장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여군,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공모 선정

2021.04.08. | 부여군

부여군이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군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군에서 추진 중인 공공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란 주제로 1차년도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2020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는 등 사업계획의 활용 가치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향후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도시개발사업의 통합적인 공간 활용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천군, 공간환경 전략계획으로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도시를 꿈꾸다

2021.04.02. | 서천군

서천군이 「2021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 전문가 활용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 도시’형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공간과 정책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탄력적 도시구조를 그린다는 계획이다.

서천군, ‘서천 치유의 숲 치유센터’ 개관

2021.04.02. | 서천군 | 서천군 공공시설사업소 공원녹지팀

서천군이 ‘서천 치유의 숲 치유센터’를 종천면 종천리에 완공하고 문을 열었다. ‘서천 치유의 숲’에는 무장애길(1km), 대나무 소리 쉼터, 수변 명상 숲, 하늬바람 풍욕장, 황토 숲길, 소나무 명상 숲길 등의 실외 숲 치료 시설이 조성되었으며, 이번에 정식 개관한 ‘치유센터’에는 명상방, 향기방, 대강당, 체력측정실 등의 실내 치유 시설을 갖추었다. 2021년에는 ‘유아 숲 체험원’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유아 숲 체험원’조성이 완료되면 유아부터 노령층에 이르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시설을 갖추어 모든 국민을 위한 산림치유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천 치유의 숲 치유센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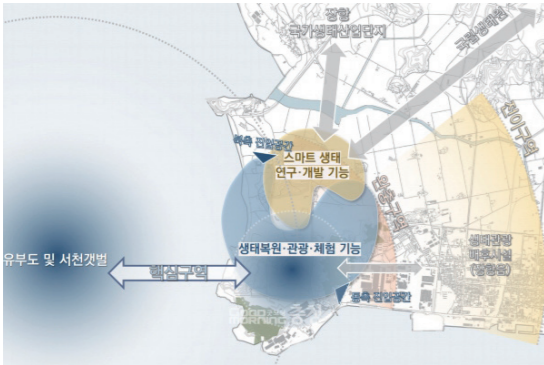


서천군, 장항 브라운필드, 탄소중립 시대 대응 국제환경 테마특구로

2021.04.09. | 서천군 | 서천군 기획감사실 기획팀

서천군이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시대 대응 장항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를 비전으로 3대 목표와 4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본 용역은 장항 오염정화토지(브라운필드)의 재자연화 및 생태환경복원을 통해 국가와 지역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환경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 장항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기본구상도



서천군, 야외 미술관 「도선장 가는 길」 성공적 마무리

2021.05.14. | 서천군 | 서천군 문화진흥과 문화예술팀

서천군이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도선장 가는 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는 <장항을 꿈꾸다> 등 조형물 2점과 <아버지의 자리> 등의 벽화 7점, 도선장 갤러리와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마을 이정표 만들기 결과물 등을 장항읍 도선장 공원 일원에 설치했다. 과거 장항과 군산이 하구둑으로 연결되기 전 배를 타고 군산으로 등교하는 학생과 출퇴근하던 직장인이 이용하던 도선장을 모티브로 한 「도선장 갤러리」는 낡은 목재 울타리를 철거하고 아연 각판과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해 미술 작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었다.

▼ 야외 미술관 도선장 가는길



청양군, 우산·칠갑호에 생활밀착형 치유공간 조성

2021.04.26. | 청양군 |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청양군이 산림복지지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밀착형 관광 치유 공간을 조성한다. 군은 「우산·칠갑호 산림 공원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내 삶 속 자연의 선물 우산’과 ‘물과 산이 어우러진 자연관광 칠갑호’ 등 두 가지 테마를 선정했다. 군은 우산의 단계개발 사업으로 자연 산책길 및 산림조경 숲 조성, 중장기 사업으로 편백나무숲 조성, 예비군 훈련장 공원화, 전문 정원사 양성, 생태계 모니터링 팀 구성, 테마공원 조성 등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한편 칠갑호 공원을 위해서는 기존 「관광거점 허브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수변 낙우송 그늘 길 조성, 수상 캠핑장 활성화,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관광과 힐링을 동시에 체험하는 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홍성군 남당항, 해양관광 거점 어항으로 재탄생

2020.12.07. | 홍성군 | 홍보전산담당관

홍성군이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남당항 동측 레저관광 마리나항의 연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2023년에 마리나항이 조성되면 연간 관광객이 증가하는 한편, 2025년에는 충청권역을 이용하는 요트 1,095척도 남당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당항 해양공원 및 축제광장 조성」, 「공리항 어촌뉴딜 300 사업」, 「속동전망대 스카이다워 설치」, 「남당항 여객터미널 건설」 등 그동안 해양관광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과 연계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홍성군 남당항, 해양관광 거점어항으로 재탄생_남당항 평면배치계획도



홍성군-홍성교육지원청, 폐교 시설 활용 업무 협약식 가져

2020.12.22. | 홍성군 | 홍보전산담당관

홍성군과 홍성교육지원청이 폐교 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폐교 활용과 홍성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등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폐교재산을 매각·임대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홍성군은 구) 광신초 부지를 매입하여 「광천 원촌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장사익 소리전수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구) 결성중 부지를 임대하여 야구장을 조성하고 주민 문화·예절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홍성군, 천수만 26km 해안가 확 바뀐다

2021.02.03. | 홍성군 | 홍보전산담당관 홍보팀

홍성군이 공리항-어사항-남당항으로 이어지는 천수만 해안가 26km를 체험과 힐링,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관광기반시설로 조성하는 등 어촌지역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를 투입한다. 우선 공리항의 어항 편의시설을 현대화하고, 관광기반 및 가두리 양식장 체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홍성승마장과 속동전망대 주변에는 스카이다워와 해안공원을 설치하고, 해넘이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당항 동측 매립지에는 해변 산책공간과 바다조망쉼터, 전망대 등의 해양공원과

지역의 대표 먹거리 축제인 대하·새조개 축제를 위한 축제광장을 만들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문화와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한다. 한편 군은 여객선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등 남당항을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여 해양관광의 거점 어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천수만 해안가관광기반시설 마련 위한 계획도



홍성군 농촌 유희시설,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

2021.02.18. | 홍성군 | 기획감사담당관 농정발전기획단

홍성군이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희시설활용 창업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과거 보건소로 사용했던 결성면 유희시설을 역사문화체험 교육을 위한 다목적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과 「결성읍성 복원사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결성면 주민과 함께 지역 전통 먹거리 맛보기 및 전통 짚공예품 만들기 체험, 지역 특산물 판매, 동네 해설사 양성 등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홍성군, 문화·관광도시로 도약 꿈꾼다!

2021.02.22. | 홍성군 | 문화관광과 문화유산개발팀

홍성군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문화를 바탕으로 2021년 한 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홍성’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전문가·공공기관 등과 함께 문화적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전문인력 양성, 지역 문화자산 활용 콘텐츠 기획, 문화거점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전문조직을 마련할 방침이다.

②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용
군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대표적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역사자원을 정비하는 등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홍성의 주요 관광지인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또한 「결성읍성 정비사업」을 통해 전망대, 숲 문화공원, 문화 탐방길 등 경관·유적·식생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친밀한 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2021년 홍주읍성 내 음식 체험·시식관, 판매관, 전시실 등 전통음식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충청 유교문화 체험 복합 콘텐츠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홍주읍성, 전통시장, 홍주천년 여행길 등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홍성군, 아름다운 배려 속 「결성읍성 동문 복원사업」 ‘순항’

2021.03.08. | 홍성군 | 문화관광과 문화유산개발팀

홍성군이 진행 중인 「결성읍성 동문 복원 및 성곽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전망대 및 숲 문화공원 조성, 동문지 주변 사·발굴조사 등을 시행하며, 2021년 도에는 동문을 복원하고 문화 탐방길을 조성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결성동헌, 형방청, 석당산 노을, 한용운 선생 생가지 등이 어우러지는 결성면의 새로운 역사문화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성읍성 동문



홍성군 광천읍, 지역 특색 살린 도시경관 사업 추진

2021.03.17. | 홍성군 | 홍보전산담당관

홍성군이 광천 IC 인근에 경관 열주등을 설치한다. 또한 광천천 주변에는 벚꽃을 활용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주택 밀집지역과 버스터미널 등에는 ‘로고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홍성군은 이를 통해 도시 미관과 안전성을 함께 살리고,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봄기운을 담은 희망의 빛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광천읍, 지역특색 살린 도시경관사업 추진_광천읍 벚꽃산책로 조감도



홍성군 광천읍, 장사의 선생의 소리로 문화의 고장 발돋움한다!

2021.03.19. | 홍성군 | 광천읍 총무팀

홍성군 광천읍이 광천읍 출신 소리꾼 장사의 선생을 테마로 한 ‘광천 복합 문화예술공간’ 건립과 장사의 인물 마케팅으로

문화 고장으로의 발돋움을 시도하고 있다. 읍은 장사의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 위치한 (구) 광신초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장사의 소리관, 캠핑장, 카페 등 지역 예술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홍성군, 신 한옥형 아동 숲 체험관 건립

2021.04.06. | 홍성군 | 허가건축과 공공디자인팀

홍성군이 ‘신 한옥형 아동 숲 체험관’을 건립한다. 체험관은 땅의 자연 형상을 유지하며, 아이들이 건축물과 자연을 오가며 자유롭게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형태로 계획됐다. 건축물은 다목적실, 교육실, 휴게실, 수유실, 세면 및 화장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배후 용봉산 경관녹지에는 기존 놀이터와 달리 친환경 자연 재료로 만든 놀이시설과 생태체험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건립되는 체험관은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전통 기와가 아닌 현대 재료(징크 패널)를 활용한 비정형 지붕과 집성목으로 제작된다.

▼체험관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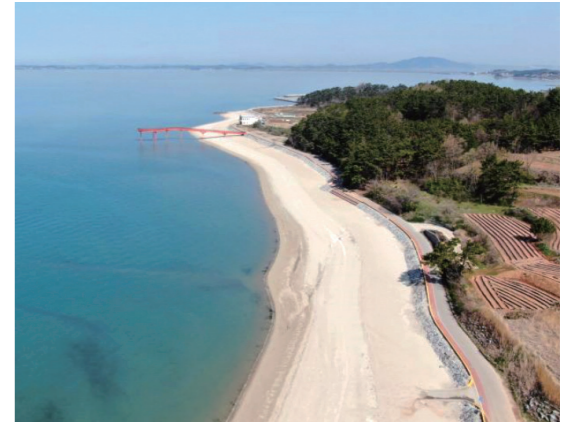


홍성군, 백사장 복원, 남당 노을 전망대 설치... 새 옷 갈아입은 남당항

2021.04.19. | 홍성군 |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홍성군이 백사장 유실과 침식된 연안을 복원하기 위해 「남당지구 연안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침식된 해안을 모래로 덮는 ‘양빈’으로 백사장을 복원하였으며, ‘남당 노을 전망대’라는 이름의 친수데크를 설치해 남당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경관을 즐기며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새 옷 갈아입은 남당항 전경



예산군 예당호 느린호수길, 「2020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심사위원상’ 수상

2020.12.18. | 예산군

예산군의 ‘예당호 느린호수길’이 「2020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예당호 느린호수길에 지역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기존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다 친화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경관 향상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당호 느린호수길은 예당호 수문 둘레길과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호 음악 분수를 거쳐 3개의 테마길로 이어지며, 국내 최장 예당호 출렁다리를 개통하여 예산 관광의 신흥 메카로 부상 중이다.

▼예당호 느린호수길 전경



예산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플랫폼 공사 순조

2020.12.24. | 예산군

예산을 주교리 일원에 지상 1층 규모로 건설 중인 주민 소통·문화 교육공간 ‘농촌신활력플러스플랫폼’이 2021년 3월 중 준공한다. 플랫폼에는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사무공간, 대회의실, 동아리실, 인큐베이팅실, 공유 주방, 공유 오피스 등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특히 시설이 완공되면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갖춰지며,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예산군 예당호, 환경부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2020.12.30. | 예산군

예산군은 ‘환경부 중점관리 저수지’에 예당호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생태벨트 및 인공습지 조성 등으로 2022년부터 5년간 지원된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예당호와 무한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해 녹조를 저감하는 등 상수원으로서 안전한 수질 확보에 나서게 된다. 또한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를 찾는 관광객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며, 「착한농촌체험세상」, 「내륙어촌 재생사업」, 「내수면 수산생태보존 기반 구축사업」 등 관광·레저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군, 산업형 관광도시 조성 ‘가시화!’

2021.03.08. | 예산군

예산군이 예당호 및 덕산 권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두 권역의 9개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 ①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으로, 먹고 자고 쉬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모를 통해, 예당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을 통해 2021년 예당호 휴게소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예당호 쉼 하우스’를 건립할 계

획이다. 준공되면 북카페, 휴게공간 등이 마련돼 예당호 휴게소를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③ 「예당호 워터 프론트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사업이다. ④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분수, 느린호수길과 더불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종합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관광 모노레일 설치로 쉽고 편하게 예당호를 둘러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⑤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수힐링센터, 노천스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⑥ 「덕산온천 공원 재구조화 사업」은 덕산온천 관광지 내 공원을 야간경관조명 등 특색 있는공원으로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부상촌과 연계해 덕산온천 관광지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⑦ 「추사사에 창의마을 조성사업」은 추사 국제서예원과 묵향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2021년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등을 마친 뒤 착공 예정이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감도, 예당호 모노레일 위치도



예산군, 청년의 창의·적극성·재능 통해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나선다!

2021.03.15. | 예산군

예산군이 「2021년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선정을 계기로 군은 예산해봄센터를 사용 중인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와 연계해 청년공동체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후에는 선발된 청년공동체와 함께 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 주민 공유 프로그램 발굴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예산해봄센터 내 문화미디어실, 주민 공유 공간, 공유 주방 등을 활용한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야외 갤러리 오픈

2021.04.09. | 예산군

예산군은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완료하고 오픈식을 가졌다. 군은 (사)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를 작가팀으로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프로젝트 시행 전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적합한 유형, 가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 재생형’과 ‘문화적 공간 조성 및 전시형’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한 바 있으며, 작가팀 공모 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사업 장소는 신활력창작소, 수정빌라, 여성회관 등 3개 구역으로, 기존의 오래된 벽화가 있던 3곳의 옹벽에 예산 예술인들의 작품들과 친환경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며, 밤에는 조명을 통해 조형물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야외 갤러리 작품



태안군, ‘바다·꽃·탐방로’ 자연 친화적 명품 둘레길 천수만 생태탐방로 조성!

2020.12.07. | 태안군

태안군이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사업」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70억 원을 들여 안면을 창기리 안면대교 남측부터 고남면 고남리 영목항까지 총 46.1km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태안군은 천수만 일원의 생태탐방로를 정비하고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다양한 테마(5가지 코스)로 해안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기본 콘셉트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건강한 태안 특산물을 먹으며 건강해지는 길’이다.

▼명품 생태 탐방로 조성 계획도



태안군 2개 어항, 「2021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선정! 총사업비 164억 8천만 원 확보 쾌거!

2020.12.10. | 태안군

태안군은 「2021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에 2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마검포항’은 ‘서해안권 해양레저의 떠오르는 명소’라는 테마로 월파 방지시설, 호안침식 정비, 선 접안시설, 선착장 연장(소형어선) 등의 ‘공통사업’ 부문, 해양 체험복합센터, 해양레저 체험존, 해양 친수

광장, 소형 레저 선박 슬로프 확장, 어망 어구 보관소 등의 ‘특화사업’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편 ‘황도항’은 ‘바다 반 바지락반 섬 안의 섬 황도’라는 테마로 ‘어린이 행복한 마을, 즐겁게 일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안을 제시했다. 방파제 높이 증고, 이안제 추가 신설, 물양장 및 부잔교 설치, 어항 진입로 보수, 바지락 작업장 조성, 어장 진입로 연장 등을 추진하는 한편, 어민들에게 편리한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 행복한 황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태안군, ‘전국 유일’ 무인 조종 산업 테마파크 조성공사 박차!

2020.12.28. | 태안군

태안군의 무인 조종 복합테마파크인 ‘태안 유브이(UV) 랜드’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태안 유브이 랜드’는 무인 조종 멀티센터, 이·착륙장, 드론 스쿨, 드론 레이싱 서킷, 원격 제어카 서킷, 무선조종 헬리 필드 등 드론이나 원격제어 비행기 등에 대한 실증 및 체험공간,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태안 UV 랜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드론 면허시험장’ 지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더불어 드론 스쿨, 드론 축구장, 드론 레이싱 서킷 등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론 도시 태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태안군, ‘600년 전 역사가 되살아난다!’ 「태안읍성 복원사업」 ‘착착’ 진행 중

2021.03.02. | 태안군

태안군이 「태안읍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태안읍성 동문 성벽 주변, 동문 성내, 동문을 감싸는 옹성 내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성벽 구조와 옛 동문 터 등을 확인했다. 앞으로 문루 건축양식 결정을 위해 태안읍성 하층을 더 조사할 예정이며, 동문 및 문루 출입 시설과 성벽 구조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충청남도 문화재위원의 자문 의견에 따라 ‘목애당’ 담장 안쪽까지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태안읍성 발굴조사 모습



태안군, ‘서해와 송림의 환상적인 조화’ 새로운 관광명소 만리포 ‘물닭섬 산책로’ 뜬다!

2021.03.04. | 태안군

태안군이 만리포 「물닭섬-천리포수목원 해안데크 설치공사 사업」을 준공했다. ‘물닭섬 산책로’는 물닭섬 돌레에 155m의 산책로와 180m의 해상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진 해안데크 산책로를 거닐며 아름다운 서해 바다와 울창한 송림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해상인도교에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닭섬-천리포수목원 해안데크



태안군 마검포항, 「2021년 어촌뉴딜 300 사업 리빙랩」 공모선정!

2021.03.30. | 태안군

태안군이 「2021년 어촌뉴딜 300 사업 리빙랩」 공모에 선정되었다. 마검포항 환경정비의 필요성, 배후지 마을 개발의 필요성, 젊은 인력 부족 문제 등의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전문가 투입 필요성 등을 적극 강조하여, 최종 선정 되었다. 앞으로 현장의 현안을 진단 분석하는 ‘탐색 단계’, 사업의 실행과 관리 운영 조직 출범 및 예비 운영 등의 ‘실행 단계’, 사업 성과 도출 및 리빙랩 백서 발간을 통해 모델을 정립하는 ‘평가 단계’(4년차)를 거치게 되며,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 행정이 함께 풀어가게 된다.

태안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충청남도 유일 선정, 2년간 20억 원 지원!

2021.04.13. | 태안군

태안군이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태안군 가족 복합 커뮤니티센터’ 내에 800㎡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태안의 해양 자원을 이용해 물리와 에너지를 놀이하듯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출렁출렁 유람선 존’, 바닷속 생물을 가상현실(VR) 게임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울방울 잠수함 존’, 직접 몸을 움직이며 오감으로 기초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영차영차 카약 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을 지키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는 ‘미끌미끌 유조선 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감도



태안군,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공모사업」 선정

2021.05.27. | 태안군

태안군이 「2021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에서 ‘노후 석탄 화력 폐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어민 상생형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라는 비전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됐다. 앞으로 군은 해상풍력 개발단지 조성과 관련한 입지 여건 조사, 수심 및 지반조사, 해상 변환소 설치 지원, 단지개발 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운영, 수산업 공존방안 모델 설계, 군사 전파 영향 조사 및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천안시 읍·면·동 마을 복지계획 수립 전격 추진

2021.03.09. | 천안시 | 복지정책과

천안시가 전 읍·면·동 ‘마을 복지계획 수립’을 전격 추진한다. 시는 마을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로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교육, 읍·면·동 담당 팀장 교육,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읍·면·동 분과회의를 실시했다. 또 2020년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 완료해 마을 복지계획 수립 동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일정은 ▲3월 읍·면·동 마을 복지계획 추진단 구성, ▲4월 추진단 발대식, ▲5월 마을 조사 및 주민 욕구 조사, ▲8월 마을총회를 통한 의제 선정, ▲9월 마을 복지계획 수립 완료로 예정되어 있다.

‘공주 한옥마을’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기관 재선정

2021.03.11. | 공주시 | 시설관리사업소

공주시는 공주 한옥마을이 한국 관광 품질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됐다고 밝혔다.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증패와 인증서가 수여되고, 홍보마케팅 지원을 비롯해 소방과 위생 컨설팅, 온라인 서비스 교육 등이 제공된다. 공주 한옥마을은

2018년 2월에 처음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0년 12월 갱신 심사를 통해 2023년까지 인증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공주시 신관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꽃밭 조성사업」 실시

2021.04.07. | 공주시 |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공주시 신관동 ‘자원봉사 거점캠프’는 공주 생명과학고 학생과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에 「아름다운 꽃밭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신관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자원봉사자와 생명과학고 학생은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에 화사한 꽃밭을 조성, 고질적인 민원해소와 함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우수 마을공동체 뽐내기 대회」 최우수상

2021.04.26. | 공주시 | 의당면사무소 총무팀

공주시 의당면은 ‘새마을운동 제창 51주년 제11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유계리가 「2020년 우수 마을공동체 뽐내기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계리 주민들은 주기적으로 마을 실개천 살리기, 마을 대청소라는 공동의 주제로 모이기 시작해, 마을 내 무인 가게인 ‘할매텃밭 무인 가판대’, 마을 농기구 수리소인 ‘할배 공작소’, 마을공동체 공간 ‘무릉도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마을 김장 담그기, 어르신 염색해드리기, 꽃·나무 심기, 마을 경로잔치, 어르신 치매 예방 공작 교실, 한글 문예학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선도적인 마을공동체를 운영해왔다.

공주시,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21.05.04. | 공주시 | 여성가족과 인구청년정책팀

공주시는 ‘주식회사 퍼즐랩’이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퍼즐랩’은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예비 관광 벤처기업으로 공주 원도심 공유 공간 및 청년·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유여행 브랜드 ‘마을 스테이’로 전국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도심인 중학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서산시, 읍내동 첨단기술 적용해 시민 안전 및 편의 쏙 올린다!

2021.04.22. | 서산시

서산시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공모 선정으로 시는 화재경보 시스템, 재난재해 대응 다목적 폴, 골목길 등 차량 확인 사각 지역 스마트알림이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화재경보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알림이 역할을, ‘재난재해 대응 폴(Pole)’은 CCTV, 경관조명, 실시간 재난재해 센서 등을 탑재해 안전 확보 역할을 하게 된다. ‘차량 확인 사각 지역 스마트알림이’는 지능형 CCTV, 속도위반 경보장치 등을 통해 과속차량 및 사각지대의 보행자 접근 정보를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당진시, 순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 선정

2020.12.08. | 당진시

당진시는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사업」에 순성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구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을 살린, 의료·복지·문화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주민주도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성면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주민설명회 및 생활SOC 분석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충청남도 농식품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당진시 에너지센터 「주민주도형 에너지 전환 선도마을 만들기 사업」 성공리에 마무리

2020.12.14. | 당진시

당진시 에너지센터가 「주민주도형 에너지 전환 선도마을 만들기 사업」을 협업체계로 추진하여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센터는 먼저 신평면 신송1리와 우강면 소반리를 대상마을로 선정하였다. 센터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교육, 에너지 자립마을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인식개선에 집중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각 가정에 태양광 정원 등 설치를 지원해주었으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ED 전등과 630W급의 나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 센터에서는 2021년에도 관내 다른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주도형 에너지 전환 선도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시, 169억 원 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속 추진

2021.01.11. | 당진시

당진시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 안길, 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측량, 설계 등을 2021년 초에 조기 발주해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경지 잔·출입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농로 포장·보수, 농경지 범람 방지용 배수로 정비, 마을 안길 안전사고 방지용 대기차로 확·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등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농경 활동 및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진행·마무리한다.

금산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모여라 금산’ 추진 총력

2021.01.13. | 금산군

금산군은 「‘모여라 금산’ 사업」 참여자 모집을 마감하고 신청 계획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으로 금산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마을 단위 및 주민 동아리 소액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 마을 단위 소액지원사업은 이장을 주축으로한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꽃길, 벽화, 마을 지도, 문패 만들기 등 경관 가꾸기를 하는 사업이다. 군은 주민 동아리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초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해 명확한 목표와 현실적인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을 단위사업의 경우 수시 대면 상담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금산군, 제1기 금산군 마을기자단 양성

2021.01.20. | 금산군

금산군이 ‘제1기 금산군 마을기자단’을 양성한다.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미디어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기자단 15명이 모집됐다. 교육과정은 ① 마을신문과 저널리즘의 이해, ② 행사, 스트레이트, 인터뷰 기사 작성, ③ 사진 촬영, ④ 취재 실습, ⑤ 마을신문 기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 이후 마을기자단은 각 동네의 역사와 마을의 미담, 감동 스토리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마을신문을 발행하고, 향후 지역신문 등의 명예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갈 전망이다.

부여군,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2개 마을 선정

2021.03.05. | 부여군

부여군은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 외산면 만수1리와 내산면 운치 3리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며 향후 4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청양군, 2021년 농산촌 개발사업에 82억 원 투입

2021.01.08. | 청양군 | 농촌공동체과 농촌개발팀

청양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에 82억 원을 투입한다. 2021년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장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목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대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마을 단위 자율 개발사업」, 「미당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11개 지구에 대해 종합 정비를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생활편의·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뒤떨어진 거점기능을 강화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균형발전 평가 ‘우수’
2021.05.04. | 청양군 | 기획감사실 기획평가팀

청양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균형발전 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청양군은 개발지역의 연평균 0.18% 인구증가, 6개 마을에 문화서비스 제공,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통한 24개의 자생 단체 조직,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한 8개 단체 법인화 등 눈에 띄는 지역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루었다. 특히 계획 수립·성과의 연계성이 높은점, 통합 추진체계의 운영과 역할 분담이 명확한 점, 성과관리의 환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홍성군, 「주민참여 혁신모델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2020.12.07. | 홍성군 | 홍보전산담당관

홍성군 마을교육공동체가 「주민참여 혁신모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햇살배움터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은 ‘마을과 학교가 서로 돕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온 마을학교’라는 주제로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함께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을 내 아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햇살배움터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홍동면 마을학교」는 2018년부터 홍성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여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능력 신장을 목표로 마을 교육공동체 구축 및 기반 조성에 힘써왔으며, 2020년에는 홍동초, 금당초, 홍동중, 풀무고와 연계해 행복 탐험대, 유소년 축구, 어쩌다 이상한 창작 등 1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홍성군 광천읍 원촌마을, 활력 넘치는 마을로 ‘재탄생!’
2020.12.23. | 홍성군 | 홍보전산담당관

홍성군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서 광천읍 원촌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광천읍 원촌마을 일원에 마을광장 및 놀이 쉼터 조성, 마을 공터 꽃밭 및 수목 식재, 문패 만들기 및 업사이클링 교육, 마을 자산 활용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등 마을 경관개선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공모 선정된 원촌마을 계획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성군 원천마을 에너지 자립 마을 방문
2021.02.01. | 홍성군 | 홍보전산담당관

홍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에너지 자립마을 결성면 ‘원천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원천마을은 주민과 농업, 축산업이 상생하는 환경친화적인 ‘생태·상생마을’을 목표로 주민 자발적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의 시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마을 전체 33가구 중 31호가 주택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 왔다. 또한 2018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 시험가동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홍성군, 주민자치 혁신모델 공모 8건 ‘최다 선정’
2021.03.30. | 홍성군 | 행정지원과 자치전략팀

홍성군이 충청남도 주민자치 공모사업에서 8건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충청남도의 3대 위기(고령화·저출산·양극화), 극복 둘레길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을 발굴하고자 진행되었다.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 사업,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등 4개 분야로 진행되었으며, 홍성군은 공모사업 4개 분야에 모두 선정되며 한층 강화된 자치역량을 보여주었다.

예산군, 샛티공원 내 ‘마을공동체 정원 텃밭’ 운영
2021.03.10. | 예산군

예산군은 주민들과 유아들이 텃밭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상호 교류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을 완료했다. 군은 종자, 비료 등 체험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고, 참가자들은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텃밭에서 농산물을 생산 및 수확한다. 또한 수확물 일부를 이웃과 나누는 활동도 진행된다.

태안군, 총사업비 1,020억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어촌뉴딜」 사업 속도 낸다!
2021.04.13. | 태안군

태안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해녀마을 특화개발사업」, 「영목마을 특화개발사업」, 「채석포 권역 개발사업」, 「몽산포 권역 개발사업」, 「파도리 권역 개발사업」, 「창기7리 어울림마을 사업」, 「청산1리 권역 개발사업」 등 총 7개소가 선정되었다. 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주민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전담팀인 ‘농어촌 마을팀’을 만들어, 군정 자문교수단과 외부 전문가를 투입, ‘기본계획’, ‘시행계획’, ‘역량 강화’, ‘공사’에 이르기까지 수시 자문을 받아 완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천안시,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 점검
2021.01.22. | 천안시 | 공원녹지과

천안시는 도시공원 중 어린이 놀이시설물이 설치된 총 121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물 취급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말까지 매월 1회 안전 점검에 나선다. 시는 전문기관과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의 고장이나 파손, 시설물의 낙후 여부 등을 점검하고, 추후 리모델링이나 시설물 교체사업에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천안시, 184개 공원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추진
2021.02.08. | 천안시 | 공원녹지과

천안시가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가로등과 전기시설 정비, 쾌적한 공원, 화장실 조성 등의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도시공원 녹지관리 사업」을 시행해 공원 잔디 관리 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산시-선문대 함께한 코로나19 캠페인, 국제 디자인상 수상
2021.03.10. | 아산시

아산시와 선문대가 「2021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위너(Winner)’를 수상했다. 아산시는 마스크를 쓴 시내버스를 이용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캠페인’을 펼쳐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선문대 시각디자인과는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입체감 있게 만들어진 마스크 디자인을 고안했다. 그중에서도 마스크를 쓴 버스가 시내를 달리는 모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웃음을 주며 큰 호응을 얻었고, 이는 인근 천안시까지 확대됐다.

▼마스크를 쓴 시내버스



아산시, “위급 시 주변 CCTV 비상벨을 누르세요”

2021.03.31. | 아산시

아산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CCTV 비상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비상벨 전수 조사는 CCTV 관제센터와 연결돼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방법용(여성 안심용), 공원 및 쓰레기 취약지 등에 설치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비상벨·스피커 정상 작동, 영상·음성 통화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후 비정상으로 동작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수리 및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산시, 53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440개 CCTV 구축... 안전 걱정 마

2021.05.03. | 서산시

서산시가 관내 모든 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CCTV가 구축됨으로써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사건·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이고, 방과 후·야간 등 안전 취약 시간대의 안전사고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필요시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등에 영상을 제공해 2차 사고 및 피해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계룡시, 안전하고 쾌적한 스쿨존 조성 ‘좋아요’

2021.03.30. | 계룡시

계룡시가 학교 주변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정비구역은 통학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변과 가로변 등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 음란·퇴폐행위 전단 및 벽보 등이 대상이다. 시는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보수와 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상태 불량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충남 옥외광고협회 계룡시지부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계룡시, 새로운 랜드마크 ‘계룡문’ 일반에 개방

2021.05.20. | 계룡시

계룡시가 ‘계룡문’을 일반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 시는 그동안 계룡문에 CCTV, 계단 및 2층 난간 설치 등 안전 시설물 보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계룡문 주변에 ‘쉼터’를 마련하고 각종 체력단련 시설과 의자, 파고라, 전통 정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더했다. 이밖에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 설치도 마무리했다. 한편 계룡문 2층 전망대에 오르면 계룡산과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계룡문 좌·우측에 태극기를 비롯한 육·해·공군의 상징 깃발을 게양하여 국방 수도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LED 로고 라이트 및 최첨단 3D 홀로그램을 설치하여 계룡 8경과 軍 문화 엑스포 등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상영할 예정이다.

▼계룡문 전경



당진 김대건 신부 캐릭터, 국민의 마음 사로잡았다!

2021.04.27. | 당진시

당진시가 「2020 대한민국 공공 PR 대상 시상식」에서 김대건 신부 캐릭터 등을 활용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홍보 성과를 인정받아 이벤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 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캐릭터 및 서체 개발, 웹툰·동화책 제작 등 다양한 홍보 사업을 통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당진시, 안전 쉼터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2021.05.17. | 당진시

당진시가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운영한다. 스마트 승강장 내부에는 무선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 당진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방법용 CCTV, 실시간 버스정보 시스템(BIS), 난방기가 설치돼 있다. 또한 겨울철 승강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개방형 온열 의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전용 대기 공간, 자동문을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도 배려하였다. 한편 630W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승강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공급하도록 설계하는 등 친환경 그린 승강장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당진시 스마트 버스승강장 내부



부여군, 관광 전자지도 제작... 나들이 정보가 손안에 ‘쏙’

2021.03.24. | 부여군

부여군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 전자지도 서비스를 개시한다. 관광 전자지도는 ‘부여군 전자지도’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속할 수 있다. 관광명소마다 움직이는 아이콘이 배치되어 사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락처나 홈페이지 등 세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위치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용자 인근 관광지·맛집·숙박업소 등을 바로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내비게이션 앱을 연결하여 관광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홍성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21.03.05. | 홍성군 | 홍보전산담당관 스마트도시팀

홍성군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11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16개소를 연말까지 구축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홍성읍이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냉난방 온도조절과 미세먼지 차단으로 폭염·혹한기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쉼터 형태이며, 행정정보 영상, 방법 CCTV 등 IT 기반의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LED 조명을 활용한 바닥 신호등과 보행자 주의 LED 안내판 등 보행 및 위험신호를 제공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 통행 여부, 운전자 정지선 준수를 위한 정보까지 제공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공모 최종 선정

